

# THE HOLY QURAN

Korean translation  
of the meanings, commentary  
and the reading

Surah 78 – 114

Prof. Dr. Choi Young Kil Hamid

**ANYANG RABITA MASJID**

Tel. (0343) 42-9078

Fax. (02) 592-5575

1418 A.H – 1997 A.D





# 성 구 란

한국어 해설과 독본  
78-114장

최 영 길

안양 라비타 사원

전화 (0343) 42-9078  
팩스 (02) 592-5575

1418 A.H - 1997 A.D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 رجاء

الحمد لله للعالمين والصلاة والسلام على سيدنا محمد وعلى آله وصحبه  
أجمعين وبعد..

فندرجو من كل من يقرأ ترجمة التفسير هذه من اللغتين العربية والانجليزية الى  
اللغة الكورية — سواء أكان القارئ يقرأ من أجل وضع تقرير على مدى صحتها أو  
مراجعتها أو مجرد قراءتها — في حالة وجود خطأ أيا كان نوعه أن يتفضل مشكوراً  
بإفادة المترجم أو إفادة قسم اللغة العربية بجامعة ميونخ جي، سيئول كوريا بهذا الخطأ.  
وسوف نقوم بإصلاحه فوراً.

والله نسأل أن يوفقنا جميعاً لما فيه خدمة كتابه العظيم.

---

C.P.O.BOX 5346  
SEOUL, KOREA

---

한국어 꾸란 해설을 애독하시는 독자 여러분께 —해설 정확성에 관한 검  
수를 위해서나 참고를 위해서, 또는 단순한 독서를 위해서 애독하는 가운데 —  
어떤 형태로든지 잘못 해설된 오류가 발견될 때 해설자 본인이나 명지대학교  
아랍어과로 발견된 오류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즉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꾸 란

## 1. 개 요

꾸란 학습이나 연구 또는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꾸란은 다양한 일반 서적들과는 전혀 다른 성서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유념해 두어야 한다. 일반 서적과는 달리 꾸란은 어떤 개념이나 사상, 그리고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논평을 담고 있는 서적이 아니다. 그래서 꾸란에 처음 접근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그 점이 낯설고 이상하며, 개인의 생각과 철학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당황하고 좌절한다. 그와는 반대로 꾸란에는 이전에 인식하지 못한 그 어떤 무엇이 담겨져 있고, 그가 갖고 있는 개념이나 착상과 일치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다. 독자는 꾸란이 신앙의 원리를 다루고 도덕과 윤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법을 제정하고 모든 인류를 이슬람으로 초대하면서 역사적 사건들을 교훈으로 창조주의 존재를 거역하는 불신자들에게는 경고를, 그리고 받아 들이는 신앙인들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아름답고 조화있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동일 주제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반복되고 아무 뚜렷한 이유없이 곧 다른 주제로 연결되고 있다. 화자와 피화자가, 그리고 이야기의 방향이 아무런 예고없이 전환되고 있다. 역사적 사건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역사서와는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철학이나 형이상학의 제 문제들도 주제를 다룬 교과서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인간과 우주에 관해서도 자연과학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언급되고 있다. 이와같이 꾸란은 문화,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꾸란의 독자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법의 원리와 법의 규정도 사



회학자, 변호사 및 법률학자들과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도덕과 윤리 또한 제반 문학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같지 않다.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경솔한 독자가 일반서적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 이미 그의 머리속에 인식되어진 것과 모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당황하고 좌절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그 독자는 꾸란이 무질서 하고 주제의 연속성이 없으며, 논리가 서지않는 방법으로 잡다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한 서적에 불과하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상대자들은 꾸란에 이상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일부 현대인들은 그들의 이러한 의혹과 반대 의견을 정당화 하기위해 이상한 고안들을 창출해내고 있다. 이상한 해석을 덧붙이거나 때로는 꾸란절 사이를 접속시켜 비논리적인 것들을 조작해내고, 때로는 꾸란이 아무런 질서나 조화가 없는 잡다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유도한다.

이러한 일은 독자가 꾸란이 하나의 유일한 성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다른 서적들과 달리 꾸란은 다루어야 할 주제, 그리고 성취하려 의도한 목적을 이론화 하지 않고 있다. 문제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꾸란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읽혀지고 있는 서적들과는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책의 문체나 서술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하여 들 것은 꾸란이 종교에 관한 한권의 일반 서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한 독자가 일반 서적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꾸란에 접근할 때 꾸란의 문체나 제시방법에 당황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독자는 여러 곳에서 배경설명이 언급되지 않고, 꾸란의 특정 구절이 계시된 상황과 환경이 진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러한 것들의 이유 때문에 일반 독자는 꾸란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을 충분히 발견해 내지 못한다. 이러한 독자들은 꾸란의 특수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꾸란의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잡다한 주제들만을 발견하고서 꾸란의 내용이 어렵다고 한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는 그 뜻과 내용이 명백한 것 마저도 전혀 다른 엉뚱한 의미로 보일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의혹과 의심, 그리고 어려움으로부터 독자가 구제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손에 있는 그 책이 원어로 존재하는 유일한 성서라는 것과, 그러므로 그 책의 문체가 일반 서적들과는 다를 수 밖에 없고, 그것의 주제가 독특하여 일반서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서는 꾸란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가서야 비로서 꾸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꾸란을 일반 서적으로 간주하는 선입관으로부터 해방되고, 본서의 독특한 문체와 주제에 익숙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독자는 꾸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꾸란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꾸란의 성질, 핵심, 목적, 그리고 주제를 아는 것이 필수적 조건이다. 마찬가지로 문체, 사용되고 있는 용어 및 사물을 설명하는 방법 등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또한 어떤 계시가 있게 된 배경과 환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 2. 하나님의 지침서

독자는 우선적으로 꾸란의 본질을 이해하여야 한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성서로 간주되든 아니든 간에 독자는 먼저 꾸란이 무함마드를 통하여 제시된 신성한 지침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후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여 배우고 말하며 이해하는 지혜를 부여하였는가 하면 부정으로부터 진리를, 악으로부터 선을 분별하는 식별력도 주었다. 더불어 신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비롯하여 사물에서 지식을 얻고 활용하는 권능까지 주었다. 간략하여 묘사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종의 자율을 주었고, 지상을 다스리는 신의 대리권을 주면서 하나님의 지침서에 따라 삶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인간을 지상의 대리자로 임명하였을 때 인간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를 인간에게 경고하였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요 주권자라. 또한 우주를 관리하는 주관자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만을

경배하되 그밖의 것은 절대 아니 되니라. 너희는 내 왕국 안에서 결코 독립할 수 없으며,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니라.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 일정기간 능력을 부여받은 예언자들을 지상에 보냈으니, 그 이후에는 너희 모두가 내게로 귀의할 것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지상에서 행한 행위의 결과를 내가 심판하고, 너희가 시험에 합격하였는지 아니면 실패하였는지를 결정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올바른 여정은 스스로 나를 주권자로서 받아들이고, 나만을 홀로 경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낸 지침서에 따라 행동하면서 지상에서 사는 그 기간은 시험 기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라. 현세 삶의 진정한 목적은 최후의 심판에서 성공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침서를 준수하고 따라서 다른 과정은 그릇된 것이라. 너희가 전자의 여정을 선택한다면 너희가 현세에서 평안하고 화평하게 살 것이요 내세에 가서는 영원한 축복과 기쁨을 만끽할 것이나, 후자를 선택한다면 현세에서도 나의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며 내세에 가서는 영원한 슬픔과 고통의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러한 경고와 함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인간으로 지상에 보내면서 후손들이 지상에서 지켜야 할 지침서를 보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인간은 밝은 광명속에서 살 수 있는 법을 부여 받았다. 이 광명과 그 법이 바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분에게만 순종하는 이슬람이다. 현세를 떠나기 전에 스스로가 그 법을 실천하고 동시에 후손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종 무슬림으로서 삶을 영위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인간들은 이슬람의 길에서 이탈하여 서로 다르고 왜곡된 길을 걷게 되었다. 태만과 무관심으로 그 복음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서에다 인간의 생각을 더하였거나, 그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켰거나, 때로는 그 복음의 일부를 삭제하여 버렸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권능과 속성을 다른 것들에 비유하여 여러 가지 형태와 다양한 종류의 미신을 혼합한 종교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과 진리 및 정의 그리고 윤리의 본질들을 버렸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생활규범으로 만들어 그들의 편견과 욕망에 따라 합리화 함으로써

자신들을 기만하고 세상을 혼돈과 죄악으로 가득 채웠다.

이러한 상황은 실로 슬픈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패한 저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부여한 한정된 행위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을 거역한 죄인에 대해 즉시 심판을 아니 하신즉, 이는 현세의 삶을 시험의 기간으로 두셨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상에서 삶을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전과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수락하여 준수하는 것과 거역하는 것은 인간에게 위임되어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복음을 준비하신 후 사람 중에서 선지자들을 선택하신 후 진리와 삶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그들에게 부여하셨다. 그들로 하여금 방황하는 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선지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분으로부터 수여 받은 그 지침서에 따라 행동하였다. 서로 다른 국가와 서로 다른 민족 가운데서 수천년 동안 수천명이 선택되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내세관에 근본을 둔 종교를 갖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지상에서 처음으로 삶을 시작한 최초의 인간에게 가르쳤던 동일한 삶의 방식을 가르쳤다. 그들 모두는 최초의 인간을 위해 제정한 도덕과 윤리의 근본 그리고 문화를 설명하여 하나님의 지침서를 준수하였다. 그들 모두는 유일한 교인들로서 하나이며, 동일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 임무는 모든 인간을 동일한 복음으로 초대하여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들의 초청을 수락한 모든 인간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신의 지침서를 준수하고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최선을 다하며, 부정한 일에 대항하여 최선을 다해 대처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선지자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 그들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초청을 수락하려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던 교파들마저도 점차 부패하여 갔으니 유감스러운 일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공동체 가운데 일부는 그 지침서 전체를 잃어버렸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변조하였거나 인간의 사상을 혼합하고 때로는 그 계명의 일부를 삭제하여 버렸다.

이로 말미암아 창조주는 무함마드를 마지막 선지자로 선택하여 모든 선지자들에게 부여하였던 임무들을 그로 하여금 완성케하려 하신 것이다. 그는 모든 인간을 초청하고 올바른 길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계율을 수락한 모든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하여 율법에 따라 공동체의 삶을 인도해야 할 임무를 받았다.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그 꾸란이 바로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성서이다.

### 3. 핵심 주제

위에서 꾸란의 본질을 이해하였다면 그것의 핵심, 목적과 대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다루고 있는 주제의 대상은 인간이다. 인간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성공과 완전한 패배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꾸란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는 사실제시오, 올바른 길로 초대하는 것이다. 사실이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상의 대리자로 임명할 때, 그분께서 아담에게 계시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 모든 선지자들에게 계시했던 것과도 같은 것이요,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꾸란은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사실에 모순되는 이론들은 인간들이 창안한 것들이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 그분과 인간,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 인간이 고안한 이론들은 모두가 그릇된 것이요, 그릇된 그 이론들에 기초를 둔 삶의 방법들 또한 잘못된 것이므로 파멸을 초래한다는 경고도 꾸란의 가르침이다.

계시의 목적과 대상은 인간을 올바른 길로 초대하여 태만, 부주의 또는 유혹에 의해 잃어 버렸던 복음을 다시 찾아 주는 일이다.

독자가 이러한 기본원칙을 마음속에 염두하여 둔다면 꾸란의 문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거나 주제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공백이 있다거나 여러 다른 주제들 사이에 상호연관 관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꾸란의 목적은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자연과학이나 철학,

역사나 예술 및 그밖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꾸란은 후자의 주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꾸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을 설명하여 그것에 관해 오해와 잘못된 선입관을 제거하고 마음속에 진리를 심어주며, 그릇된 행위로 인하여 당면하게 될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경고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다.

#### 4. 배 경

꾸란에 제시된 여러 주제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관해 제시된 배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계시가 된 이유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꾸란에 제시된 주제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특정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나 선조들과의 관계 등을 알아야 할 때도 있다. 왜냐하면 꾸란은 동일 장소와 동일 시대만을 위한 하나의 교과서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함마드에게 최초로 임무를 부여할 때 기록된 한권의 성서를 넘겨주고 그것을 발행하여 삶의 특별한 방법에 따라 인류를 초청하도록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꾸란은 논리적으로 어떤 주제를 창출하여 가는 일반 문학작품의 문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꾸란은 하나님의 독특한 문체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시간, 장소 그리고 서로 다른 단계에서 필요로 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양식으로써 꾸란을 계시하였다.

#### 5. 양적 분류

신앙생활은 물론 신학연구 및 이슬람법에 관계되는 제반 규범을 이해하는 지름길은 꾸란을 다독하고 정독하는 것이다. 특히 무슬림이 꾸란을 음미하고 낭송하는 것은 하나의 신성한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꾸란을 낭송하고 음미한다. 꾸란 전체를 일정한 배분된 시간에 따라 편리하게 그리고 좀더 규칙적으로 완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꾸란 전체는 30장 또는 7장

으로 균등 분할되어 있다. 30장으로 분할되었을 경우, 삼십분의 일( $\frac{1}{30}$ )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랍어로 주즈으(al Juzu'), 페르시아어 및 우르드어로는 시파라(Sipara) 또는 단순히 파라(Para) 라고 부른다. 그래서 매일  $\frac{1}{30}$ 에 해당하는 분량을 읽는다면 30일, 즉 한달 동안에 꾸란 전체를 완독하게 된다. 꾸란 전체를 7장으로 나눌 경우 칠분의 일( $\frac{1}{7}$ )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질(al Manjil)이라 부른다. 그래서 하루에  $\frac{1}{7}$ 에 해당하는 분량을 읽을 경우 꾸란 전체를 7일, 즉 일주일만에 완독할 수 있게 된다. 사분의 일( $\frac{1}{4}$ ), 이분의 일( $\frac{1}{2}$ ) 및 사분의 삼( $\frac{3}{4}$ )에 해당하는 분량은 아랍어 발음에 따라 각각 루브으(Rubu'), 니스프(Nisf), 살라싸(Salasa)로 표시하였다. 꾸란 아랍어 원문옆에 루브으, 니스프 및 살라싸로 표시되어 있다.

제목에 따라 분류할 경우에는 114장이 된다. 분량은 균등하지 않다. 각 장(Sura)마다 한글과 아랍어로 각 장(Sura)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 명칭 바로 다음에 아랍어로 표기된 숫자는 일반적으로 무슬림 학자들에 의해 수락된 연대적 순서를 의미한다. 각 장은 절(Ayat)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예로서 파티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쉰다섯 파티하, 한글로는 제1장으로 표시하였다.

## 6. 편 집

꾸란을 계시한 하나님은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계시된 그대로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무함마드를 통하여 꾸란 구절들이 계시되면서 종려나무 잎사귀, 나무껍질, 뼈 등에 바로 옮겨졌으며, 꾸란 구절이 기록된 모든 조각들은 정돈이 되어갔다. 그 밖에도 일부 무함마드의 교우들은 자신들이 간직하기 위해 베껴가기도 했다. 동시에 무슬림들은 이슬람 초기부터 의무화 되었던 예배를 근행하기 위해서 꾸란 구절을 암송해야 했다.

선지자 무함마드 생시에 꾸란 전체를 암기하였던 많은 교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권의 책의 형태로서 편집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무함마드가 사망한 후 편집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한 사

건이 발생한 것이다. 폭동같은 격렬한 배교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참전하였던 많은 교우들, 그 가운데서도 꾸란 전체를 암송한 많은 교우들이 피살되고 말았다. 바로 이때 제 2대 칼리프 우마르(Umar)는 꾸란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변질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꾸란을 암송한 하피즈(Hafiz)들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않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꾸란 전체를 정통성 있는 한권의 책 형태로 편집해야 할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초기에 그러한 작업을 보류하려는 듯 보였던 제 1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Abu Bakr)에게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아부 바크르가 편집 작업을 보류하려 했던 인상을 보인 것은 선지자 무함마드가 하지 아니한 것을 행한다는 것이 신약적 측면에서 무거운 짐이 되지 아니 할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몇 차례의 자문과 토의를 거친 후 그는 꾸란 편집 작업에 동의하고 처음에는 이 일에 관해 그의 입장과 비슷했던 제이드 빈 싸비트(Zaid bin Thabit)에게 이 임무를 위임하였다. 이렇게 하여 꾸란 편집의 역사적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제이드는 이 편집 작업에 능력을 갖춘 가장 훌륭한 적격자였다. 그는 선지자 무함마드 생존시 서기로서 일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무함마드의 제자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완성된 꾸란 전체를 무함마드가 가브리엘(Gabriel) 천사 앞에서 암송할 때 그가 지켜보고 있었다. 편집 과정에서 우선 선지자 무함마드가 남긴 기록된 모든 조각들과 무함마드의 교우들이 소유하고 있던 자료들이 모두 수집되었다. 정통성 있는 하디스(Hadith)에 따르면 꾸란 구절을 복사하여 소유하고 있던 교우들로는 제 3대 칼리프 우스만(Uthman), 제 4대 칼리프 알리(Ali) 및 압둘라 빈 마쓰우드(Abdullah bin Masud), 압둘라 빈 아므르 빈 아쓰(Abdullah bin Amr bin As), 후자이파(Huzafah)의 노예에서 해방된 살림(Salim), 무아즈 빈 자발 제이드 빈 싸비트(Muaz bin Jabal Zaid bin Thabit), 우바이 빈 카압(Ubyy bin Kaab), 아부 제이드 까이쓰 싸쿰(Abu Zaid Qais As Sakm)들이 언급되고 있다. 전체를 암기했거나 일부분만 암기했던 이들 교우(Sahaba)들의 협력으로 기록된 모든 조각에 기록된 꾸란을 암송



가의 암기와 대조하면서 검증을 하였다. 이러한 검증과 편집과정의 일부는 진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선지자 무함마드가 소장하여 왔던 여러 도구에 기록된 꾸란, 교우들이 복사하여 소장한 것 그리고 꾸란 전체를 암기한 하피즈들의 암송 등이 3가지가 일치하지 아닐 때는 기록하지 아니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정확하고 정통성 있는 완본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완본을 우마르의 딸이자 선지자 무함마드의 부인이었던 하프사(Hafsa)집에 소장하여 두고 복사를 원하거나, 이미 소장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기 위해 복사를 원하는 이들은 누구나가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장(Sura)의 배열에 관해 제이드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선례를 그대로 따랐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을 도입해서도 안되지만 그럴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아부 바크르에게서 꾸란 편집 임무를 위임 받았을 때 주저하였던 것도 선지자 생존시에 없었던 일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제이드는 모든 일에 있어 선지자의 모범을 그대로 답습했던 것이다. 그래서 꾸란 각 장의 배열이 선지자 사후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선지자가 단식월 라마단(Ramadan) 기간에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두번이나 꾸란 전체를 암송한 순서를 그대로 따랐다. 이미 정통성 있는 하디스(Hadith)를 인용한 바와 같이 제이드는 선지자의 마지막 두 차례 암송 가운데 두 번째 암송시에 자리를 같이하고 있었으므로 꾸란의 각 장의 순서 배열을 알고 있었기에 다른 방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더 더욱 없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꾸란 전체를 암기했던 예언자의 동료들도 역시 그 순서의 배열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니 선지자가 가르치고, 그리고 행하였던 바로 그 순서의 배열을 답습하는 길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맘 말리크(Imam Malik) 법학자에 따르면 꾸란은 예언자의 동료들이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순서에 따라 편집되었다.

## 7. 아랍어 방언과의 관계

아랍어가 아랍 세계의 공통 언어이기는 하지만, 아직 지역간 그리고 부족 간에 약간의 방언이 있다.

꾸란은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 꾸레이쉬 부족이 사용하고 있었던 아랍어로 계시 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암송의 편의를 위해 서로 다른 여러 지역 부족 또는 지역 방안으로도 꾸란을 암송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다. 한편 꾸란의 의미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도 야기되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슬람이 아라비아 국경을 넘어서 전파되고 아랍인들이 비아랍 무슬림들과 빈번한 접촉을 갖게 되면서 아랍어가 새로운 환경요소들에 의해 점차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때 꾸란이 부족이나 지역간의 방언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손실되거나 첨가 및 변질되어 각 부족과 각 지역의 무슬림들에게 분쟁을 야기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각 부족 또는 각 지역의 무슬림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방언 아랍어로 꾸란을 조작할 가능성, 거기에다 꾸란의 순수 아랍어가 비아랍인들과 접촉한 아랍인들에 의해 변질될 위험성도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제 3대 칼리프 우스만(Uthman)은 선지자의 교우들인 사하바들과 협의하여 제 1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 지시에 따라 편집된 정통 꾸란 원본만을 사용하고, 그밖에 방언으로 된 꾸란 사본들의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나의 예비조치로 장래에 어떤 혼동이나 오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원본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방언으로 된 꾸란 사본들을 소각시켜 버렸다. 이에 대한 실례로서 일부 사하바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꾸란 사본 공백에다 해석 등을 기록하여 둔 것이 있었는데, 이러한 주해석이 꾸란 원본과 혼합될 가능성까지도 배제했던 것이다. 그 당시까지는 변질되거나 혼합될 가능성은 없었지만, 꾸란은 진본 그대로 안전하게 보존되어져야 된다는 신중한 의견에 따라 그러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읽혀지고 있는 모든 꾸란은 아부 바크르 지시에 따라 편집된 꾸란의 진본이 복사되어 우스만이 각 지역으로 보낸 바로 그것들이다. 오늘날 전 세계 일부 대도서관에서 가장 오래된 꾸란 사본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것들이 완전히 진본과 다르지 아니하고 완전히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에 의심을 가진 독자가 있다면, 그는 발견된 가장 오래된 꾸란과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꾸란들을 비교하여 보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알제리아 서점에서 구입한 꾸란과 아세아 극동에 위치한 한국 서점에서 구입한 꾸란과 가장 오래된 꾸란을 서로 비교하여 보아도 그것들은 우스만 시절에 만들어진 꾸란 사본들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도 의심이 있다면 이 세상 어느 곳에서 구입한 꾸란을 가지고 꾸란을 암송한 하피즈(Hafiz)가 암송하는 꾸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하여 보아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오늘날 읽혀지고 있는 꾸란은 최초로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하여 세상에 전해진 바로 그것이다. 꾸란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었는가에 대해 일축의 의심을 가질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오늘날의 꾸란이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되었던 그 당시의 꾸란과 일점일획도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 8. 꾸란의 내용을 한글로 옮기게 된 동기와 그 배경

꾸란의 내용을 한글로 옮기기 시작한 시기는 1976년 12월 사우디 아라비아 메디나 소재 이슬람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유학시절이었다. 꾸란의 내용을 한글로 옮기게 된 그 당시의 동기 및 목적은 그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자의 효율적인 학업을 위하여 교수님들의 강의가 끝나면 기숙사로 돌아와 강의실에서 배운 꾸란의 절(Ayat)과 내용을 독서카드에 옮겨 적었던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장(Surah)이 되었고, 한장 한장의 장이 쌓이고 쌓여 114장 꾸란 전체의 내용이 한글로 정리되었다.

그 당시 이러한 저의 학습방법을 지켜 본 어떤 유학생은 신기하게 생각했는가 하면, 격려를 아끼지 아니 한 유학생도 있었으며, 이러한 소식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진출한 한국 교포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계시던 웨이크 우마르 압둘라 카멜(Sheik Omar A. Kamel)씨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부터 그 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보살핌으로 오늘의 조

그마한 열매를 맺게 된 동기가 되어 1986년 12월까지 10년 계획으로 이미 정리된 내용을 재정리 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그 분의 아낌없는 보살핌과 그 곳에 진출했던 한국 교포들의 격려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꾸란의 내용과 이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여러 독자들에게 일뿐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역자만의 학업을 위해 보관했던 것을 활자화하게 되었다.

끝으로 본서가 <꾸란 의미의 한국어 해설과 낭독>이란 제목으로 출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과 더불어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여 주신 안양 라비타 사원 대표 후세인 유창식(Husein You Chang Sik)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슬람학 박사  
최 영 길





## 제78장 나 바 아

메카에서 계시된 40절로 부활과 보상 그리고 불신자들이 조롱한 부활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본 장이 나바아(소식)장이라 불리워진 등기로 본대(사프와트 타 파씨르, 제20권 p.5).

본 장은 부활과 보상에 관한 소식을 시작으로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 능력에 대한 예증들을 제시하면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으며, 부활을 언급하면서 그 시각 그것은 곧 최초로 왔던 것부터 최후에 온 것들을 모아 천국으로 인도될 무리와 지옥으로 인도 될 무리를 분류하는 시각임을 말하고 있다.

불신자들을 위해 마련한 지옥과 여러가지 응벌의 형태에 관하여 언급하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생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다시 내세에 관해 언급하면서 불신자들이 흠으로 돌아 갔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장은 끝나고 있다.

제 78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그들은 무엇에 관하여<sup>1)</sup> 서로  
가 서로에게<sup>2)</sup> 질문하느뇨
2. 위대한 소식에<sup>1)</sup> 관하여 질문  
하느뇨
3. 그것에 관하여 그들은 의견을  
달리하나
4. 실로 그들은 곧 알게 되리라<sup>1)</sup>
5. 실로 그들은 곧 알게 되리라
6. 하나님<sup>1)</sup> 대지를 두매<sup>2)</sup> 넓다  
랴게 두셨으며
7. 산들을 두매 기둥으로 두었고
8. 너희를 창조하며 자용으로 두  
셨으며<sup>1)</sup>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یْمِ

عَمَّ يَتَسَاءَلُونَ ۝۱

عَنِ النَّبَاِ الْعَظِیْمِ ۝۲

الَّذِیْ هُمْ فِيْهِ مُخْتَلِفُونَ ۝۳

كَلَّا سِعْلَمُونَ ۝۴

كَلَّا سَيَعْلَمُونَ ۝۵

اَلَمْ نَجْعَلِ الْاَرْضَ مَهْدًا ۝۶

وَ الْجِبَالَ اَوْتَادًا ۝۷

وَ خَلَقْنَاكُمْ اَزْوَاجًا ۝۸

- 1-1) 안마(Anma)는 Ma + An의 축약된 단어로 mim(Mim)이 nun(Nun)에 동화되어 알리프의 음가가 생략된 상태이다.
- 2) 불신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부활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였다.
- 2-1) 대단히 중요한 소식인 부활에 관한 소식(알바흐르 알무히드 409/8 및 타프씨르 알꾸르투비 181/9)
- 4-1) 불신자들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부활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것이요 그들이 조롱했던 결과를 맛보게 되리라(사프와트 타프씨르, 제20권 p.6).
- 6-1) 6절 부터는 하나님 능력에 대한 예증들로 부활을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능력으로 보아 의심할 바 없다는 것을 예시하여 주고있다.
- 2) 대지는 안식처로 거주하도록 하고 모든 일용할 양식을 그곳으로 부터 얻도록 하였으며
- 8-1) 인간을 창조하되 남녀를 두고 이들이 결혼하여 자손을 두도록하여 땅을 관리하는 신의 대리자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 78. 쑤-라트 나바아( Sūrat Naba'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âhi arRamān arRahīm

01. 암마 야타싸알루-나  
'Amma Yatasa'alūna
  02. 아닌 나바일 아짐  
'Anin Nabail 'Azim
  03. 알라지 훔 피-히 무크탈리푸-나  
Alazi Hum Fihī Mukhtalifūna
  04. 칼라 싸 야을라무-나  
Kallā Sa Ya'lamūna
  05. 쑤마 칼라 싸 야을라무-나  
Thumma Kallā Sa Ya'lamūna
  06. 알람 나즈알릴 아르와 미하-단  
'Allam Naj'alil 'Ardha Mihādan
  07. 왈 지발-라 아우타-단  
Wal Jibāla 'Awtādan
  08. 와 칼라크나-쿰 아즈와-잔  
Wa Khalaqnākum 'Azwājan
-



9. 수면을 두매 너희 휴식을 위해 두었고<sup>1)</sup>

وَجَعَلْنَا نَوْمَكُمْ سُبَاتًا ٩

10. 밤을 두매 의상으로 두었으며<sup>1)</sup>

وَجَعَلْنَا اللَّيْلَ لِبَاسًا ١٠

11. 낮을 두매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두었노라<sup>1)</sup>

وَجَعَلْنَا الْيَوْمَ مَعَاشًا ١١

12. 하나님은 너희위에 칠천을 두었으며

وَبَيْنَنَا قُوفًا سَبْعًا شَدَادًا ١٢

13. 그 안에 찬란한 빛을 두고<sup>1)</sup>

وَجَعَلْنَا سِرَاجًا وَهَّاجًا ١٣

14. 풍부한 비구름을<sup>1)</sup> 보내어

وَأَنْزَلْنَا مِنَ الْمُعْصِرَاتِ مَاءً تَبَّاجًا ١٤

15. 이로 하여 곡식과 채소들을 생산케 하고

لِنُخْرِجَ بِهِ حَبًّا وَنَبَاتًا ١٥

16. 울창한 정원들이 되도록 하지 아니 했더노

وَجَدْتِ الْوَعْقَانَ ١٦

17. 실로 분류하는 그날은 정하여진 것으로<sup>1)</sup>

إِنَّ يَوْمَ الْقَضِيلِ كَانَ مِيقَاتًا ١٧

18. 나팔이 울리는 그날 너희는 떼를 지어 앞으로 나오게 되며<sup>1)</sup>

يَوْمَ يُنْفَعُ فِي الصُّورِ فَتَأْتُونَ أَقْوَابًا ١٨

9-1) 잠과 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신체의 휴식을 갖도록 하였으며

10-1) 의상이 인간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듯 밤을 둔 것은 너희를 감싸 주도록 하였으며(알타 쓰힐 리올름 알탄질 173/4)

11-1) 낮을 두되 일용할 양식을 얻고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며 거래와 그 밖의 일들을 이행토록 두었으며(무크타사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590/3)

13-1) 태양을 두되 빛과 열을 두어 대지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용하도록 하였으며

14-1) 무으씨라트 : 비가 쏟아지기 직전의 구름. 아스트에서 파생된 단어로 추스가 되기 전의 상태처럼 무으씨라트는 물로 되어 비가 내리기 전의 상태를 말한다(알타쓰힐 리올름 알탄질 173/4).

17-1) 계산의 날 또는 보상의 날로 이날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한정된 시각이므로 앞서 오지도 아니하고 유예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실 때 오는 날(제37장 21절, 제36장 59절 참조).

18-1) 이스라엘 천사가 나팔을 불면 무덤에 있던 모든 피조물은 무덤으로 부터 나와 계산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제39장 68절 참조).

09. 와 자알르나 나우마쿰 쭈바-탄  
 Wa Ja'alna Nawmakum Subātan
10. 와 자알르날 라일라 리바-싼  
 Wa Ja'alnal Laila Libāsan
11. 와 자알르난 나하-라 마아-산  
 Wa Ja'alnan Nahāra Ma'āshan
12. 와 바나이나 파우까쿰 싸브안 쉬다-단  
 Wa Banaina Fawqakum Sab'an Shidādan
13. 와 자알르나 쉬라-잔 와흐하-잔  
 Wa Ja'alna Shirājan Wahhājan
14. 와 안잘르나 미날 무으씨라-티 마-안 싹자-잔  
 Wa 'Anzalna Minal Mu'şirāti Mā'an Thajjājan
15. 리 누크리자 비히 합반 와 나바-탄  
 Li Nukhrija Bihi Ḥabban Wa Nabātan
16. 와 잔나-틴 알파-판  
 Wa Jannātin 'Alfāfan
17. 인나 야우말 파슬리 카-나 미까-탄  
 'Inna Yawmal Faşli Kāna Mīqātan
18. 야우마 윤파쿠 피 쉰-리 파 타으투-나 아프와-잔  
 Yawma Yunfakhu Fi Şūri Fa Ta'tuna 'Afwājan
-

19. 하늘은 문이 열리는 것처럼  
열리고

وَفُتِحَتِ السَّمَاءُ فَكَانَتْ أَبْوَابًا ۝

20. 산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지며

وَسُيِّرَتِ الْجِبَالُ فَكَانَتْ سَرَابًا ۝

21. 지옥은 기다리고 있으니<sup>1)</sup>

إِنَّ جَهَنَّمَ كَانَتْ مِرْصَادًا ۝

22. 사악한 자들을 위한 목적지라

لِلظَّالِمِينَ مَا بَأْسًا ۝

23. 그들은 그곳에서 영주하나라<sup>1)</sup>

لِيَسْتَوِيَنَ فِيهَا أَحْقَابًا ۝

24. 그들은 그곳에서 시원함도  
맛보지 못할 것이며 마실 음료수  
도 없으며<sup>1)</sup>

لَا يَذُوقُونَ فِيهَا بَرْدًا وَلَا شَرَابًا ۝

25. 오직 끓어 오르는 액체와 검  
고 어두운 흑독한 액체 뿐으로<sup>1)</sup>

الْحَمِيمَ وَالْعُثْقَالَ ۝

26. 이것이 그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이라

جَزَاءً وَكَفَّارًا ۝

27.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어떤 계산도 두려워 하지 아니하  
고<sup>1)</sup>

إِنَّهُمْ كَانُوا لَا يَرْجُونَ حِسَابًا ۝

28.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  
부정하였으매<sup>1)</sup>

وَكَذَّبُوا بِالَّذِي يَكْتُمُونَ ۝

29.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록보  
관 하시니라

وَمَنْ شِئْ أَحْصَيْنَاهُ كِتَابًا ۝

21-1) 제6장 128절 참조.

23-1) 끝이 없이 영원히 계속 영주하는 것(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8)

24-1) 불지옥의 뜨거움을 식힐 찬 것이나 시원한 것도, 그리고 이러한 작열속에서 그들의 갈증을 식혀줄 음료수도 없으며.

25-1) 그 이상 뜨거울 수 없는 최고로 뜨거운 액체와 지옥의 백성들 몸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상 처의 고름들 뿐이며,

27-1) 계산과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믿지 아니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정하게 보상하리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였다.

28-1)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예증들과 꾸란의 말씀을 부인하였으며

19. 와 푸티하티 싸마-우 파 카-나트 아브와-반  
 Wa Futihati Samā'u Fa Kānat 'Abwāban
20. 와 쭈이이라틸 지발-루 파 카-나트 싸라-반  
 Wa Suiiratil Jibālu Fa Kānat Sarāban
21. 인나 자한나마 카-나트 미르쇄-단  
 'Inna Jahannama Kānat Mirṣādan
22. 릿 띄-기-나 마아-반  
 Li Ṭāgīna Ma'āban
23. 라-비씨-나 피-하 아흐까-반  
 Lābithīna Fīha 'Aḥqāban
24. 라- 야두꾸-나 피-하 바르단 왈라 샤라-반  
 Lā Yazūqūna Fīha Bardan WaLā Sharāban
25. 일라 하미-만 와 갓싸-간  
 'illā Hamīman Wa Gassāqan
26. 자자-안 위파-간  
 Jazā'an Wifāqan
27. 인나훔 카-누 라 야르주-나 히싸-반  
 'Innahum Kānu La Yarjūna Ḥisāban
28. 와 캣자부 비 아야-티나 킷자-반  
 Wa Kaḥḥabū Bi Ayātina Kizzāban
29. 와 클라 샤인 아흐싸이나-후 킷타-반  
 Wa Kulla Shayi'in 'Aḥṣaināhu Kitāban
-

30. 그러므로 너희 행위의 결과들을 맛보라 웅벌 외에는 너희에게 더하여주지 아니 하리라

فَذُوُوا فَلَئِنْ كُنْتُمْ لِإِصْحَابَهَا

31.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승리한 것이 있나니<sup>1)</sup>

إِنَّ لِلْمُتَّقِينَ مَفَازًا

32. 천국과 포도들이 있고<sup>1)</sup>

حَدَائِقَ وَأَعْنَابًا

33. 나이가 같은 청순한 배우자가 있으며<sup>1)</sup>

وَكَوَاعِبَ أَمْثَلًا

34. 넘치는 잔이 있도다<sup>1)</sup>

وَأَكْوَافًا مَاءًا

35. 그들은 그곳에서 어떤 무익한 대화나 거짓된 말도 듣지 아니하며

لَا يَسْمَعُونَ فِيهَا لَغْوًا وَلَا كِدَابًا

36. 주님의 계산에 따라 보상을 받노라

جَزَاءً مِمَّن رَّبِّكَ عَطَاءٌ حِسَابًا

37.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에 있는 만물의 주님이신 가장 자비로운 하나님께 어느 누구도 그분의 능력에 견주지 못하리라

رَبِّ السَّمَوَاتِ وَالْأَرْضِ وَمَا بَيْنَهُمَا الرَّحْمَنِ لَئِنْ لَمْ يَكُنْ مِنْهُ خَطَابًا

38. 영혼<sup>1)</sup>과 천사들이 앞으로 줄지어 서는 그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 사실을 말할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나니

يَوْمَ يَقُومُ الرُّؤْمُ وَالْمَلَائِكَةُ صَفًّا لَّا يَتَكَلَّمُونَ إِلَّا مَنْ أُذِنَ لَهُ الرَّحْمَنُ وَقَالَ صَوَابًا

31-1) 현세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의로움을 실천한 그들에게는 승리의 장소인 축복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32-1) 그들이 원하는 모든 종류의 과실들이 있으며

33-1) 천국에서 기다리는 「히와르 아인」이 있으며, 「카와이브」는 「카이브」 단어의 복수형태로 가슴이 나온 여성이라고 풀이되고 있다(알타쓰힐 리울룸 알탄질 174/4).

34-1) 순수한 술로 가득찬 잔. 본 절의 「카으쓰」는 술을 의미한다고 꾸르푸비는 말하고 있다(타프 씨르 알꾸르푸비 181/19).

38-1) 루호 :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전한 가브리엘 천사

30. 파 두-꾸 팔란 나지-다쿰 일라 아자-반  
Fa Zūqū FaLan Nazidakum 'illā 'Aẓāban
31. 인나 릴 무땃끼-나 마파-잔  
'Inna Lil Muttaqīna Mafāzan
32. 하다-이까 와 아으나-반  
Ḥadā'iqā Wa 'A'nāban
33. 와 카와-이바 아트라-반  
Wa Kawā'iba 'Atrāban
34. 와 카으싼 디하-간  
Wa Ka'san Dihāqan
35. 라 야쓰마우-나 피-하 라그완 왈라 킷자-반  
Lā Yasma'ūna Fīha Lagwan WaLā Kizzāban
36. 자자-안 민 랍비카 아뵤-안 히싸-반  
Jazā'an Min Rabbika 'Atā'an Ḥisāban
37. 랍비 싸마와-티 왈아르디 와마 바이나후마  
Rabbi Samawāti Wal'Arḍhi WaMā Bainahuma
- 아르라흐만 라 야믈리쿠-나 민후 키뵤-반  
arRahmani Lā Yamlikūna Minhu Kḥitāban
38. 야우마 야꾸-무 루-후 왈 말라-이카투 샷판  
Yawma Yaqūmu arRūhu Wal Malā'ikatu Ṣaffan
- 라 야타칼라무-나 일라 만 아지나 라후 아르라흐만  
Lā Yatakallamūna 'illā Man 'Aẓina Lahu arRahmānu
- 와 깔-라 싸와-반  
Wa Qāla Ṣawāban

39. 그날이 진리의 날이 될 것이  
라 그러므로 원하는 자는 그로 하  
여금 주님께 귀의토록 하리라

40. 실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sup>1)</sup>  
다가올 응벌에 관하여 경고했나니  
인간은 그가 행한 그 행위들을 지  
켜볼 그날 불신자들은 저에게 재  
앙이 있나니 차라리 흠으로 돌아  
갔으면 하고 말하리라

ذَلِكَ الْيَوْمُ الْحَقُّ مَنْ شَاءَ اتَّخَذَ إِلَىٰ رَبِّهِ مَا بَاءًا ﴿٣٩﴾

إِنَّا أَنْذَرْنَاكُمْ عَذَابًا قَرِيبًا لَا يَوْمَ يَنْظُرُ الْمَرْءُ مَا قَدَّمَتْ

يَدُهُ وَيَعُولُ الْكَافِرُ بِالْآيَاتِ كُنْتُ سُرْبًا ﴿٤٠﴾

40-1) 부활의 날을 조롱한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

39. 달-리칼 야우말 하꾸 파만 샤-아 잇타카자  
Zālikal Yawmal Ḥaqqu FaMan Sha'ā Ittakḥaḥa  
일라 랍비히 마아-반  
'ila Rabbihi Ma'āban

40. 인나 안자르나-쿰 아자-반 까리-반 야우마 양주롤  
'Inna 'Anẓrnākum 'Aẓāban Qariban Yawma Yanzurul  
마르우 마 깃다마트 야다-후 와 야꿀-롤 카-피루  
Mar'u Mā Qaddamat Yadāhu Wa Yaqūlul Kāfiru  
야- 라이타니 쿤투 투라-반  
Yā Laitani Kuntu Turāban

---







## 제79장 나지아트

메카에서 계시된 46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과 내용이 비슷한 이슬람 기본원리인 유일신사상, 메세지와 부활 및 보상을 다루면서 부활의 날과 상태, 및 시각 그리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들의 주거지와 불신자들의 주거지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본 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는 자들의 영혼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인도하는 천사와 불신자들의 영혼을 강력하게 끌고 가는 천사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피조물의 일들을 운용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는 말씀으로 계시가 시작되어, 불신자들, 부활을 조롱하는 자들이 부활의 날에 있을 그들의 상태에 관하여 이야기 한 후, 스스로 주님이라 자칭하는 오만 불손한 파라오와 그의 꿈트 백성들을 역사케 한 이야기,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하여 계략과 음모를 꾸민 메카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 불신자들이 조롱했던 부활의 시각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악한 자들의 영혼을 강력하게 끌어가는(나지아트)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사”라는 어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제 79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1. 사악한 자들의 영혼을 강력하게 끌어가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사<sup>1)</sup>

وَالَّذِينَ عَمَّرْنَا

2. 축복받은 자들의 영혼을 부드럽게 인도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며<sup>1)</sup>

وَالَّذِينَ نَسَّطْنَا

3.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며<sup>1)</sup>

وَالَّذِينَ سَجَّأْنَا

4. 경주하여 인도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며<sup>1)</sup>

فَالَّذِينَ سَبَّأْنَا

5. 하나님의 명령들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나니<sup>1)</sup>

فَالَّذِينَ أَمَرْنَا

6. 어느날 동요하게 될 모든 것은 크게 동요하고<sup>1)</sup>

يَوْمَ تَرْجُفُ الرَّجِفَةُ

7. 뒤를 이어 동요가 반복되도다<sup>1)</sup>

تَتَّبِعَهَا الْزَّادَةُ

- 1-1)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불신자들의 영혼을 가장 무섭게 끌어가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며
- 2-1) 믿음 가진 자들의 영혼을 가장 편안하게 인도할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며...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인도할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사 가장 무섭게 끌어갈 천사와 가장 편안하게 인도할 천사를 두고 맹세하고 있다(무크타사르 이브누 까씨르 595/3).
- 3-1)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천사, 즉 하나님의 명령들을 물에서 수영하는 것 같이 수행하는 천사를 두고 맹세하며(사프와트 타프씨르, 제20권 p.12)
- 4-1) 믿음으로 선을 실천하였던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며,
- 5-1)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람, 비, 온갖 곡식 등 세상사의 모든 것들을 운용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며
- 6-1) 모든 것을 동요하게 하는 첫번째의 나팔이 부는 날.
- 7-1) 계속하여 두번째 나팔이 울리니 이는 무덤으로부터 부활시키는 나팔소리이다. '라지파'와 '라디파'가 있는데 전자가 첫번째 나팔이며 후자가 두번째 나팔로 첫번째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모든 것이 완료되고 두번째 나팔이 울릴 경우는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풀이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두비 193/19).

79. 쑤-라트 나-지아-트 ( Sūrat Nāzi‘āt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āhi arRahmān arRahīm

01. 완 나-지아-티 가르간

Wan Nāzi‘āti Garqan

02. 완 나-쉬्ष-티 나슈판

Wan Nāshiṭat Nashṭan

03. 왓 싸-비하-티 싸브한

Wa Sābiḥāti Sabhan

04. 파 싸-비까-티 싸브간

Fa Sābiqāti Sabqan

05. 팔 무답비라-티 아프란

Fal Mudabbirāti ‘Amran

06. 야우마 타르주푸 아르라-지파투

Yawma Tarjufu arRājifatu

07. 타트바우하 아르라-디파투

Tatba‘uha arRādifatu

8. 그날의 마음들은 두근거리고<sup>1)</sup>

قُلُوبٌ يَوْمَئِذٍ وَاجِعَةٌ ﴿٨﴾

9. 그들의 눈들은 밑으로 쳐져있으며

أَبْصَارُهُمْ خَاشِعَةٌ ﴿٩﴾

10. 저희가 실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냐 라고<sup>1)</sup> 말하며

يَقُولُونَ مَرَاتًا لَمْ نَدِدْكَ فِي الْمَقَابِرِ ﴿١٠﴾

11. 우리가 부패한 뼈들만 남는데도 그러하느뇨

مَرَاتًا لَمَّا عَظْمًا مَّخِرَةٌ ﴿١١﴾

12. 그리하면 그것이 실로 잃은 귀로가 되리라<sup>1)</sup> 말하더라

قَالُوا لَيْسَ لَكَ إِذَا كُنْتَ خَاسِرَةٌ ﴿١٢﴾

13. 그러나 그것은 단 한번이<sup>1)</sup> 될 것이라

وَأَنَّمَا هِيَ زَجْرَةٌ وَاحِدَةٌ ﴿١٣﴾

14. 그때 그들은 심판을 위하여 깨어나 있지 않느뇨

فَإِذَا هُمْ بِالسَّاهِرَةِ ﴿١٤﴾

15. 모세의 이야기가 그대에게 이르렀느뇨

هَلْ أَتَاكَ حَدِيثُ مُوسَى ﴿١٥﴾

16. 주님께서 성스러운 계곡 뚜와로<sup>1)</sup> 그를 불러

إِذْ نَادَاهُ رَبُّهُ بِالْوَادِ الْمُقَدَّسِ طُوًى ﴿١٦﴾

17. 파라오에게 가라 실로 그는 모든 영역을 벗어난 자이니

إِذْ هَبَّ إِلَى فِرْعَوْنَ إِنَّهُ طَغَى ﴿١٧﴾

18. 그에게 이르러 최악으로 부터 스스로를 청결케 하고자 하느뇨

فَقُلْ مَلِكُكَ إِلَى أَنْ تَرَكَى ﴿١٨﴾

8-1) 부활의 상황을 지켜 본 불신자들의 마음 상태가 묘사되고 있음.

10-1)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냐?

12-1) 부활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죽어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는 불지옥에 있게 되니 더욱 손실이 아닌가?

13-1) 무덤으로 부터 부활을 하는 것은 단 한번의 나팔소리 만으로 수행된다.

16-1) 시나이 산 아래에 있는 축복 받은 계곡 이름

08. 꿀루-분 야우마우딘 와-지파툰  
Qulūbun Yawma'iz̄in Wājifatun
09. 아브사-루하 카-쉬야툰  
'Aḅsāruha Khāshi'atun
10. 야꿀루-나 아 인나 라 마르두-두-나 필 하-피라티  
Yaqūlūna 'A 'Inna La Mardūdūna Fil Ḥāfirati
11. 아 이다 쿤나 이좌-만 나키라탄  
'A' Iza Kunna 'Izāman Nakhiratan
12. 깔-루 털카 이단 카르라툰 카-씨라툰  
Qālū Tilka 'Izan Karratun Khāshiratun
13. 파 인나마 히야 자즈라툰 와-히다툰  
Fa 'Innma Hiya Zajratun Wāhidatun
14. 파 이다 흙 빗 싸-히라티  
Fa 'Iza Hum Bi Sāhirati
15. 할 아타-카 하디-쑤 무-사  
Hal 'Atāka Hadīthu Mūsa
16. 이드 나-다-후 랍부후 빌 와-딜 무깁디씨 뚜완  
'Iz Nādāhu Rabbuhu Bil Wādil Muqaddasi Ṭuwan
17. 이드하브 일라 피르아우나 인나후 따가  
Izhab 'ila Fir'awna 'Innahu Ṭaga
18. 파 꿀 할 라카 일라 안 타작카  
Fa Qul Hal Laka 'ila 'An Tzakka
-

19.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리니 당신은 그 분만을 두려워 하라고 하라

وَأَهْدِيكَ إِلَى رَبِّكَ فَتَخْشَى ۝

20. 그래서 모세는 그에게 큰 예증을<sup>1)</sup> 보였더라

فَأَرَاهُ الْآيَةَ الْكُبْرَى ۝

21. 그러나 파라오는 그 진리를 거역하고 오만해 하였으며<sup>1)</sup>

فَكَذَّبَ وَعَصَى ۝

22. 등을 돌리고 서둘러 떠나<sup>1)</sup>

ثُمَّ أَدْبَرَ يَسْعَى ۝

23. 사람들을 불러 모아 소리쳐 말할길<sup>1)</sup>

فَحَشَرَ فَنَادَى ۝

24. 내가 가장 높이 있는 너희 주님이라 하였으니

فَقَالَ إِنَّا رَبُّكُمُ الْأَعْلَى ۝

25. 하나님은 그에게 내세와 현세의 벌을<sup>1)</sup> 내리셨느니라

فَأَخَذَهُ اللَّهُ نَكَالَ الْآخِرَةِ وَالْأُولَى ۝

26. 실로 이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한 교훈이 있노라

إِنَّ فِي ذَلِكَ لَعِبْرَةً لِمَن يَخْشَى ۝

27. 너희를 창조하는 것이 더 어렵느뇨 아니면 그분이 세우신 하늘이겠느뇨<sup>1)</sup>

مَا أَنْتُمْ أَشْدُقُ خَلْقًا أَوْ السَّمَاءَ بَيْنَهُمَا ۝

20-1) 모세가 오만한 파라오에게 찾아가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려 하였으나 파라오가 믿음을 거절하자 기적들로써 그 예증을 보였다. 그때 보였던 기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니 그 뱀이 기어갔던 기적이었다. 꾸르투비는 큰 예증을 기적들로 풀이하고 이브누 압바쓰는 지팡이의 기적이라고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투비 202/19). 모세의 기적들에 관해서는 제20장 22-23절, 제17장 101절, 제7장 133절 등 참조.

21-1)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진 분명한 기적들을 거역하였다.

22-1) 뱀을 본 그는 두려워 서둘러 떠났다.

23-1) 마술사들과 군대와 부하들을 불러 모아

25-1) 제20장, 78-79, 제7장, 125-137절 참조.

27-1) 불신자들에게 경고하는 절로써 하늘을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더 쉬운 것이며 하늘과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부활케 하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라. 그래도 너희 불신자들은 부활을 거역하느뇨?

19. 와 아흐디-카 일라 랍비카 파 타크샤  
 Wa 'Ahdika 'ila Rabbika Fa Takhsha
20. 파 아라-홀 아야탈 쿠브라  
 Fa 'Arāhul 'Ayatal Kubra
21. 파 캣자바 와 아샤  
 Fa Kazzaba Wa 'Aşa
22. 쑤마 아드바라 야쓰아  
Thumma 'Adbara Yas'a
23. 파 하샤라 파 나-다  
 Fa Ḥashara Fa Nāda
24. 파 깔-라 아나 랍부कु물 아올라  
 Fa Qāla 'Ana Rabbukumul 'A'la
25. 파 아카자홀라후 나칼-랄 아키라티 왈 올라  
 Fa 'AkhazahulLāhu Nakalal 'Akhirati Wal 'Ūla
26. 인나 피 달-리카 라 이브라탄 리만 야크샤  
 'Inna Fi Zālika La 'Ibaratan LiMan Yakhsha
27. 아 안툼 아샷두 칼칸 아밧 싸마-우 바나-하  
 'A 'Antum 'Ashaddu Khalqan 'Am Samā'u Banāha
-



28. 하나님은 하늘을 가장 높이  
두시고 거기에 질서와 온전함을  
두셨노라

رَفَعَ سَمَكَهَا فَتَوَهَّأَ ۝

29. 그분은 밤을 어둡게 두사 빛  
을 두셨노라<sup>1)</sup>

وَأَعْلَسَ لَيْلَهَا وَأَخْرَجَ ضُحَاهَا ۝

30. 대지를 두시되 넓다랗게 펼  
치시어<sup>1)</sup>

وَالْأَرْضَ بَعْدَ ذَلِكَ دَحَاهَا ۝

31. 그곳으로 부터 물과 초목을  
생산케 하셨으며

أَخْرَجَ مِنْهَا مَاءَهَا وَمَرْعَاهَا ۝

32. 산들을 두시되 온전하게 고  
정하셨으니

وَالْجِبَالَ أَرْسَاهَا ۝

33. 너희와 가축들에게 유용케  
하기 위해서라

مَتَاعًا لَكُمْ وَلِأَنْعَامِكُمْ ۝

34. 그러나 대 재앙이<sup>1)</sup> 다가올 때

وَإِذَا جَاءَتِ الطَّامَةُ الْكُبْرَى ۝

35. 그날은 인간이 행한 것들을  
회상하는 날이며

يَوْمَ يَمْدَدُ كُرْسِيُّ الْإِنْسَانِ مَا سَعَى ۝

36. 지옥이 보는 자 앞에 나타날  
때

وَبُرَّتِ الْجَحِيمُ لِمَنْ يَرَى ۝

37. 오만하며 불신하고

فَأَلْمَأَسَنَ طَغَى ۝

38. 현세의 삶만을 좋아했던 자  
들에게는

وَأَشْرَ الْحَيَاةِ الدُّنْيَا ۝

39. 거주지가 불지옥이 될 것이라

فَإِنَّ الْجَحِيمَ هِيَ الْمَأْوَى ۝

29-1) 밤은 어둡게 하고 낮은 빛을 두어 밝게 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4).

30-1) 하늘을 창조하신 후 대지를 넓다랗게 두어 휴식처인 거주지로 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4).

34-1) 부활의 날이 올때면

28. 라파아 싸므카하 파 싸우와하  
Rafa'a Samkaha Fa Sawwāha
29. 와 아그뜨샤 라일라하 와 아크라자 두하-하  
Wa 'Agtasha Laylaha Wa 'Akhraja Dhuḥaha
30. 왈 아르되 바오다 달-리카 다하-하  
Wal 'Ardha Ba'da Ḥālika Dahāha
31. 아크라자 민하 마-아하 와 마르아-하  
'Akhraja Minha Mā'aha Wa Mar'āha
32. 왈 지발-라 아르싸-하  
Wal Jibāla 'Arsāha
33. 마타-안 라쿰 왈리 안아-미쿰  
Matā'an Lakum Wali 'An'āmikum
34. 파 이다 자-아티 퍄-마툴 쿠브라  
Fa 'Iza Jā'ati Ṭāmmatul Kubra
35. 야우마 야타작카룰 인싸-누 마 싸아  
Yawma Yatazakkarul 'Insānu Mā Sa'a
36. 와 부르리자틸 자히-무 리만 야라  
Wa Burrijatil Jaḥīmu Liman Yara
37. 파 암마 만 꺾가  
Fa 'Amma Man Ṭaga
38. 와 아싸랄 하야와-타 둔야  
Wa 'Atharal Ḥayawāta Dunya
39. 파 인날 자히-마 히알 마으와  
Fa 'Innal Jaḥīma Hiyal Ma'wa
-

40. 그러나 주님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저속한 욕망들로부터 자신을 자제하였던 자들에게는

41. 거주지가 천국이 될 것이라

42. 그들은 그때가 언제 있을 것이냐고 그대에게 질문하나

43.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그대에게 관계되는 일이뇨<sup>1)</sup>

44. 종말은 그대 주님만 아시는 것으로

45. 그대는 그것을 두려워 하는 자에게 경고하는 경고자에 불과하니라

46. 그것을 보는 날 그들은 저녁이나 아침시간의 정도 머문 것 같이 느껴질 것이라<sup>1)</sup>

وَأَتَمَّنَّ خَافَ مَقَامَ رَبِّهِ وَنَعَى النَّفْسَ مِنَ الْهَوَىٰ ﴿٤٠﴾

فَأَنَّ الْجَنَّةَ هِيَ الْمَأْوَىٰ ﴿٤١﴾

يَسْأَلُونَكَ عَنِ السَّاعَةِ أَيَّانَ مُرْسِمُهَا ﴿٤٢﴾

فِيمَا أَنتَ مِنْ ذِكْرِهَا ﴿٤٣﴾

إِلَىٰ رَبِّكَ مُنْتَهِمُهَا ﴿٤٤﴾

إِنَّمَا أَنتَ مُنذِرٌ مَّنْ يَعْظِمُهَا ﴿٤٥﴾

كَأَنَّهُمْ يَوْمَ يَرَوْنَهَا لَمْ يَلْبَسُوا إِلَّا عَشِيَّةً أَوْ ضُحًى ﴿٤٦﴾

43-1) 부활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역이므로 그대 무함마드에게 부활에 관하여 묻는 것은 그대를 조롱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선지자를 위로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46-1) 부활의 날을 지켜 본 불신자들은 그들이 현세에서 체류했던 기간이 저녁이나 아침 정도의 한시간 밖엔 체류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처럼 현세의 무상한 인생은 그날 하루의 저녁이나 아침시간 정도밖엔 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이브누 까씨르르는 풀이하고 있다.

40. 와 암마 만 카-파 마까-마 랍비히 와 나한

Wa 'Amma Man Khāfa Maqāma Rabbihi Wa Nahan

낱싸 아닐 하와

Nafsa 'Anil Hawa

41. 파 인날 잔나타 히얄 마으와

Fa 'Innal Jannata Hiyal Ma'wa

42. 야쓰알루-나카 아닛 싸-아티 아이야-나 무르싸-하

Yas'alūnaka 'Ani Sā'ati 'Ayyāna Mursāha

43. 피-마 안타 민 지크라-하

Fīma 'Anta Min Zikrāha

44. 일라 랍비카 문타하-하

'ila Rabbika Muntahāha

45. 인나마 안타 문지루 만 야크샤-하

'Innama 'Anta Munziru Man Yakhshā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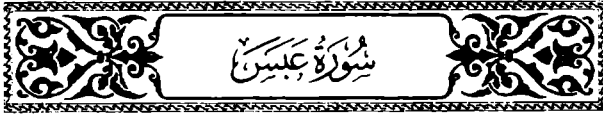
46. 카안나훔 야우마 야라우나하 람 알바쭈 일라

Ka'annahum Yawma Yarawnaha Lam Yalbathu 'ila

야쉬이야탄 아우 두하-하

'Ashiyyatan 'Aw Dhuḥāha





## 제80장 아 바 싸

메카에서 계시된 42절로 이슬람의 기본원리와 메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예증, 인간과 식물 등 모든 일용할 양식을 창조한 홀로 존재하신 유일신 및 부활과 그 양상을 주로 다루고 있다.

본 장은 장님 「압둘라 이븐 움무 마크툼」이 메카 꾸라이쉬 부족들을 이슬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설교중에 있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찾아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에게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본 장이 시작되고 있다.

주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오만과 불신,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능력에 대한 예증, 인간의 삶이 편안하도록 일용할 양식을 얻는 길을 쉽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이야기 한 후

부활과 부활의 양상, 이때 모든 인간은 부활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형제도 아내도 친척도 부모도 아랑곳 없다는 듯 도망가는 인간들을 묘사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1절의 “선지자께서 얼굴을 찌푸리시고(아바싸) 등을 돌리셨나니”에서 언급된 어휘 “아바싸”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제 80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선지자께서 눈살을 찌푸렸고  
등을 돌리셨나니<sup>1)</sup>

2. 장님이 그분께 다가와 방해하  
였기 때문이라<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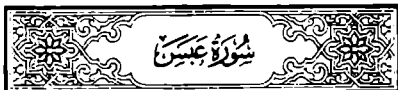
3. 그가<sup>1)</sup> 스스로를 순결케 하려  
하는지를 무엇이 그대로 하여금  
알게 하리요

4. 그가 교훈을 받고 그대의 교  
훈이 그를 유익하게 할런지도 모  
르니라

5. 스스로 충만하다 생각하는 자  
있나니<sup>1)</sup>

6. 그대여 그를 경계하라<sup>1)</sup>

7. 그가 스스로를 순결케 하지 아  
니한 것은 그대의 책임이 아니라<sup>1)</sup>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عَبَسَ وَتَوَلَّى ۝

أَنْ جَاءَهُ الْأَعْمَى ۝

وَمَا يَذُرُّكَ لَعْنَةُ رَبِّكَ ۝

أَوْ يَذُكُّكَ نَفْعَهُ الْذِكْرِ ۝

أَتَمَنَّاسْتَعْنَى ۝

فَأَنْتَ لَهُ تَصَدَّى ۝

وَمَا عَلَيْكَ الْأَمْرُ ۝

1-1) 한 장님이 선지자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영역인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을 때 얼굴을 찌푸리며 그로부터 등을 돌렸다. 그 당시 선지자 무함마드는 메카 꾸레이쉬 지도자들을 이슬람으로 인도하느라 분주하였다.

그때 장님 「압둘라 이븐 움무 마크툼」 이 선지자에게 와 말하길, “하나님의 선지자여! 하나님 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을 저에게 가르쳐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선지자께서 분주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질문을 반복하였다. 그래서 선지자 무함마드는 계속되는 그의 말을 자꾸 단절시키는 그에게 얼굴을 찌푸리며 등을 돌렸을 때 이 계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하-쉬야 알싸-위 292/4 및 타프씨르 알푸르투비 210/19).

2-1) 1절 해설 참조.

3-1) 장님

5-1) 그가 가진 재물만으로 충분하여 하나님과 믿음이 필요치 않다는 자들에게

6-1) 경계하고 대적하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7-1) 불신자들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여 순결케 하지 아니한 것은 그대의 책임이 아니며 또한 그대가 그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의무도 아니며 단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그대의 책임이라.

## 80. 쑤-라트 아바쓰 ( Sūrat 'Abas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âhi arRahmān arRahīm

01. 아바싸 와 타왈라

'Abasa Wa Tawalla

02. 안 자-아홀 아으마

'An Jā'ahul 'A'ma

03. 와마 유드리-카 라알라후 야작카

WaMā Yudrika La'allahu Yazkka

04. 아우 야작카루 파 탄파아우 지크라

'Aw Yazakkaru Fa Tanfa'ahu Zikra

05. 암마 만 이쓰타그나

'Amma Man Istagna

06. 파 안타 라후 타살다

Fa 'Anta Lahu Taşadda

07. 와마 알라이카 알라 야작카

WaMa 'Alayka 'ALā Yazakka



8. 그러나 진실로 열망하여 그대에게 다가오는 자와<sup>1)</sup>

وَأَمَّا مَنْ جَاءَكَ يَسْعًا ۝

9.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에게

وَهُوَ يَخْشَى ۝

10. 그대가 그를 소홀이 하였으매

فَأَنْتَ عَنْهُ تَلَهَّى ۝

11. 결코 그래서는 안되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이기 때문이라

كَلَّا إِنَّهَا تَذْكِرَةٌ ۝

12.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게 그로 하여금 교훈을 간직하도록 하라<sup>1)</sup>

فَمَنْ شَاءَ ذَكَّرْهُ ۝

13. 그것은 명예롭게 기록되어 있으며<sup>1)</sup>

فِي صُحُفٍ مُّكَرَّمَةٍ ۝

14. 순결하고 성스럽게 그리고 명예스럽게

مَرْفُوعَةٍ مُّطَهَّرَةٍ ۝

15. 서기들의 손들에 의해 기록되나니<sup>1)</sup>

بِأَيْدِي سَفَرَةٍ ۝

16. 영광스럽고 고귀한 것이라

كِرَامٍ بَرَرَةٍ ۝

17. 하나님을 불신한 인간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

قَبْلِ الْإِنْسَانِ مَا كَفَرَ ۝

18. 그 무엇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느냐<sup>1)</sup>

مِنْ أَى شَيْءٍ خَلَقَهُ ۝

8-1)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선을 추구하기 위해 그대에게 다가오는 자들에게는

12-1) 하나님의 종들 중에 원하는 자 있다면 꾸란으로 부터 교훈을 얻어 그것으로 지침서가 되도록 하게 하라

13-1) 하나님께 있는 영광스러운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으며

15-1) 하나님과 선지자들 사이를 오가며 일을 맡은 천사들에 의하여

18-1)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무엇으로 창조했기에 그들이 오만하고 거만해 하는가

08. 와 암마 만 자-아카 야쓰아  
Wa 'Amma Man Jā'aka Yas'a
09. 와 후와 야크샤  
Wa Huwa Yakhsha
10. 파 안타 안후 탈라흐하  
Fa 'Anta 'Anhu Talahha
11. 칼라 인나하 타즈키라툼  
Kallā 'Innaha Taḏkiratun
12. 파만 샤-아 자카라후  
FaMan Shā'a Ḍakarahu
13. 피 수흐핀 무카르라마틴  
Fi Ṣuhfin Mukarramatin
14. 마르푸-아틴 무뻘하하라틴  
Marfū'atin Muṭahharatin
15. 비 아이디 싸파라틴  
Bi 'Aydi Safaratin
16. 키라-민 바라라틴  
Kirāmin Bararatin
17. 꾸틸랄 인싸-누 마- 아크파라후  
Qutilal 'Insānu Mā 'Akfarahu
18. 민 아이이 샤이인 칼라까후  
Min 'Ayy Shay'in Khalqahu
-

19. 한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여 운명을 주었을 뿐이라<sup>1)</sup>

مِنْ لُطْفَةِ حَلَقَةٍ فَتَدْرَكَ ۝

20. 그런 후 인간이 출생하기에 순탄한 길을 두었으며<sup>1)</sup>

ثُمَّ السَّبِيلَ يَتْرَهُ ۝

21. 그런 다음에는 인간을 죽게 하여 무덤으로 향하도록 한 후

ثُمَّ أَمَاتَهُ فَأَقْبَرَهُ ۝

22. 하나님은 뜻이 있을 때<sup>1)</sup> 인간을 다시 부활하시니라

ثُمَّ إِذَا شَاءَ أَنشَرَهُ ۝

23. 실로 인간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을 수행치 않노라

كَلَّا لَمَّا بُدِئُوا بِأَمْرِهِ ۝

24. 인간으로 하여금 그가 먹는 음식을 숙고하여 보게 하라

فَلْيَنْظُرِ الْإِنْسَانُ إِلَى طَعَامِهِ ۝

25. 실로 하나님은 흠족한 비를 내리게 한 후

أَكَا صَبَبْنَا الْمَاءَ صَبًّا ۝

26. 대지를 펼쳐 그곳으로 부터 식물을 재배케 하여

ثُمَّ شَقَقْنَا الْأَرْضَ شَقًّا ۝

27. 그곳에서 곡식들을 성장케 하며

فَأَنْبَتْنَا فِيهَا حَبًّا ۝

28. 포도와 푸른 식물과

وَعِنَبًا وَقَضْبًا ۝

29. 올리브와 종려나무와

وَزَيْتُونًا وَنَخْلًا ۝

30. 울창한 정원과

وَحَدَائِقَ غُلْبًا ۝

19-1) 하찮은 한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한 후 그가 먹을 양식을 베풀어 그가 살아갈 기간과 그가 해야할 일들을 부여했다고 이브누 까씨르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600/3).

20-1) 태내에서 일정기간 인간으로 형성된 후 태내에서 세상으로 출산하는데 그 과정을 순탄하게 하였다. 「하싼 바쓰리」는, “두 줄기로부터 나온 인간이 어떻게 오만해하고 거만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푸르루비 216/19).

22-1)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죽은 자를 다시 부활하여 계산하고 보상한다(타프씨르 알카진 210/4).

19. 민 누뜨파틴 칼라까후 파 깔다라후  
Min Nutfatin Khalaqahu Fa Qaddarahu
20. 쏘마 싸빌-라 얏싸라후  
Thumma Sabīla Yassarahu
21. 쏘마 아마-타후 파 아끄바라후  
Thumma 'Amātahu Fa 'Aqbarahu
22. 쏘마 이다 샤-아 안샤라후  
Thumma 'Izā Shā'a 'Ansharahu
23. 칼라 램마 야끄디 마 아마라후  
Kallā Lamma Yaqdhi Mā 'Amrahu
24. 팔 안주릴 인싸-누 일라 썩아-미히  
Fal Yanzuril 'Insānu 'ila Ṭa'āmihi
25. 안나 사바브날 마-아 삽반  
'Anna Ṣababnal Mā'a Ṣabban
26. 쏘마 샤까끄날 아르되 샷칸  
Thumma Shaqaqnal 'Ardha Shaqqan
27. 파 안바트나 피-하 합반  
Fa' Anbatna Fīha Ḥabban
28. 와 이나반 와 까드반  
Wa 'Inaban Wa Qadhban
29. 와 자이투-난 와 나클란  
Wa Zaytūnan Wa Nakhlan
30. 와 하다-이까 굴반  
Wa Hāda'iqa Gulban
-

31. 과실과 목초가<sup>1)</sup> 있으니

قَالَهَا وَابَا ۝

32. 이 모든 것은 인간과 가축들을 위한 것이라

مَتَاعًا لَّكُمْ وَلِأَنْعَامِكُمْ ۝

33. 고막이 터질듯한 소리가 들릴 때면<sup>1)</sup>

فَإِذَا جَاءَتِ الصَّاعَةُ ۝

34. 그날 인간은 그의 형제들로부터 도주하나니

يَوْمَ يَفِرُّ الْمَرْءُ مِنْ أَخِيهِ ۝

35.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وَأُمِّهِ وَأَبِيهِ ۝

36. 그의 아내와 아이들로부터 도주하노라

وَصَاحِبَتِهِ وَبَنِيهِ ۝

37. 그날 그들 각자는 타인에게 무관심하며 스스로의 일에만 열중하노라

لِكُلِّ امْرُؤٍ مِنْهُمْ يَوْمَئِذٍ شَأْنٌ يُغْنِيهِ ۝

38. 그날 그들 중의 일부는 얼굴에 빛이 나며

وَجُودًا يُؤْمِنُهَا مُسْرَرًا ۝

39. 웃음짓고 기뻐 할 것이나

صَاحِبَةً مُسْتَبْشِرَةً ۝

40. 일부는 그날 그들의 얼굴이 먼지로 싸여지며

وَوَجُودًا يُؤْمِنُهَا عَلَيْهِمْ غَابِغَةً ۝

41. 어둠이 그를 감싸니라

تَرَاهُمْ قَانِقَرَةً ۝

42. 그러함이 오만한 불신자들에게 있을 것이라

أُولَئِكَ هُمُ الْكَافِرَةُ الْفَجْرَةُ ۝

31-1) 압브 : 짐승들이 먹는 풀이라고 꾸르투비는 해석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투비 220/19).

33-1) 부활을 알리는 소리

31. 와 파-키하탄 와 압반  
Wa Fākihatan Wa 'Abban
32. 마타-안 라쿰 왈리 안아-미쿰  
Matā'an Lakum WaLi 'An'āmikum
33. 파 이다 자-아티 샷-카투  
Fa'Izā Jā'ati Sākhkhatu
34. 야우마 야피르를 마르우 민 아키-히  
Yawma Yafirrul Mar'u Min 'Akhīhi
35. 와 움무히 와 아비-히  
Wa 'Ummihi Wa 'Abīhi
36. 와 사-히바티히 와 바니-히  
Wa Šāhibatihi Wa Banīhi
37. 리쿨리 이무리인 민훤 야우마이진 샷으논 유그니-히  
Likulli Imriy'in Minhum Yawma'izin Sha'nun Yugnīhi
38. 우주-훤 야우마이진 무쓰피라툼  
Wujūhun Yawma'izin Musfiratun
39. 되-히카툼 무쓰타브쉬라툼  
Dhāhikatun Mustabshiratun
40. 와 우주-훤 야우마이진 알라이하 가바라툼  
Wa Wujūhun Yawma'izin 'Alaiha Gabaratun
41. 타르하꾸하 까타라툼  
Tarhaquha Qataratun
42. 올라-이카 후물 카파라툼 파자라투  
'Ulā'ika Humul Kafaratul Fajaratu
-





## 제81장 타크위르

메카에서 계시된 29절로 부활의 실제와 계시 및 메세지의 실제 두 가지를 크게 다루고 있다.

본 장은 부활의 실제로써 태양과 별, 산들과 바다, 대지와 하늘, 가축과 야생동물 및 모든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변화를 제시하는 계시로써 시작하고 있다.

계시의 실제, 그 계시를 받은 선지자의 품성, 이 계시에 의하여 암흑에서 광명으로 불신자들을 구하려 했을 때 이들 불신자들의 양상을 묘사한 후, 꾸란을 불신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꾸란을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묘사하고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본장 1절의 “태양이 은폐(타크위르)되어 그의 빛이 사라지고…”라는 절에 언급된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 제 81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1. 태양이 은폐되어 그의 빛이 사라지고
2.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지며
3. 산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4. 새끼를 밴지 열달이 된 암낙타가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지며
5. 야생동물이 떼지어 모이고
6. 바다가 물이 불어 넘쳐흐르며
7. 영혼들이 유사하게 분리되고<sup>1)</sup>
8. 여아가 산채로 매장되어 질문을 받으니<sup>2)</sup>
9. 어떤 죄악으로 그녀가 살해되었느냐<sup>3)</sup>
10. 기록부들이 펼쳐지고<sup>4)</sup>
11. 하늘이 그의 베일을 벗을 때<sup>5)</sup>

إِذَا الشَّمْسُ كُوِّرَتْ ①  
 وَإِذَا النُّجُومُ انْكَدَرَتْ ②  
 وَإِذَا الْجِبَالُ سُيِّرَتْ ③  
 وَإِذَا الْعِشَارُ عُطِّلَتْ ④  
 وَإِذَا الْوُحُوشُ حُجِرَتْ ⑤  
 وَإِذَا الْبِحَارُ رُجِرَتْ ⑥  
 وَإِذَا الْبُغُورُ سُجِرَتْ ⑦  
 وَإِذَا النُّفُوسُ زُوِّجَتْ ⑧  
 وَإِذَا الْمَوْءِدَةُ عُبِّجَتْ ⑨  
 بِأَيِّ ذَنْبٍ قُتِلَتْ ⑩  
 وَإِذَا الصُّحُفُ نُفِجَتْ ⑪  
 وَإِذَا السَّمَاءُ كُشِطَتْ ⑫

7-1)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끼리 천국에서 함께하고 사악한 사람은 사악한 자들끼리 지옥에서 함께한다(사프와트 타피씨르, 제20권 p.23).

8-1) 산채로 매장된 여아에게 이렇게 된 그녀의 죄악이 무엇이뇨? 라고 질문을 받는다(제16장 58-59절 참조).

9-1) 마우다트 : 이슬람이전 무지의 시대에 아랍사회에서 있었던 일로 일부 아랍 사람들이 여아를 싫어한 나머지 생매장을 하여 죽인 경우가 있었다. 이에 관하여 부활의 날 그 생매장된 여아로부터 누가 그렇게 했는지 질문을 받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알타쓰힐 리울룸 181/4).

10-1) 인간의 업적이 기록된 기록부가 심판을 받기 위해 펼쳐질 때.

11-1) 양가죽이 벗겨지듯 하늘이 제자리를 벗어날 때.

## 81.쑤-라트 타크위-르 ( Sūrat Kakwir )

비스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āhi arRahmān arRahīm

01. 이다 쑤쑤 쿠우위라트  
‘Iḏā Shams̄h Kuwwirat
02. 와 이잔 누주-무 인카다라트  
Wa ‘Iḏan Nujūmu Inkadarat
03. 와 이달 지발-루 쑤이이라트  
Wa ‘Iḏal Jibālu Suyyirat
04. 와 이달 이샤-루 운떨라트  
Wa ‘Iḏal ‘Ishāru ‘Uṭṭilat
05. 와 이달 우후-슈 후쉬라트  
Wa ‘Iḏal Wuḥūshu Ḥushirat
06. 와 이달 비하-루 쑤지라트  
Wa ‘Iḏal Biḥāru Sujjirat
07. 와 이단 누푸-쑤 주우위자트  
Wa ‘Iḏan Nufūsu Zuwwijat
08. 와 이달 마우다투 쑤일라트  
Wa ‘Iḏal Maw’udat Su’ilat
09. 비 아이이 잔빈 꾸틸라트  
Bi ‘Ayyi Ḥanbin Qutilat
10. 와 이다 수후푸 누쉬라트  
Wa ‘Iḏā Ṣuḥūfu Nushirat
11. 와 이다 싸마-우 쿠쉬파트  
Wa ‘Iḏā Samā’u Kushīṭat

12. 타오르는 불지옥이 열을 세 차게 발산하며

وَاِذَا الْجَحِيْمُ سُورَتْ ﴿١٢﴾

13. 천국이 의로운 자들에게 가까이 오고

وَاِذَا الْجَنَّةُ اُنزِلَتْ ﴿١٣﴾

14. 그때 모든 영혼은 그가 행한 것들을 알게 되니라

عَلِمَتْ نَفْسٌ مَّا اَحْضَرَتْ ﴿١٤﴾

15. 실로 내가 지는 별들을 두고 맹세하사<sup>1)</sup>

فَلَا اَقِيْمُ بِاللَّيْلِ ﴿١٥﴾

16. 나타나고 지는 별들을 두고 맹세하며

اَلْجَوَارِ الْكُنَّسِ ﴿١٦﴾

17. 어둠을 맞이하는 밤을 두고 맹세하며<sup>1)</sup>

وَاللَّيْلِ اِذَا اَغْمَسَ ﴿١٧﴾

18. 빛을 맞이하는 아침을 두고 맹세하나니

وَالصُّبْحِ اِذَا تَنَفَّسَ ﴿١٨﴾

19. 실로 이것은 고귀한 사도가 전한 말씀이라<sup>1)</sup>

اِنَّهُ لَقَوْلُ رَسُوْلٍ كَرِيْمٍ ﴿١٩﴾

20. 그는<sup>1)</sup> 하나님 권좌 앞에 줄지어 서 있는 강한자로

ذِي قُوَّةٍ عِنْدَ ذِي الْعَرْشِ مَكِيْنٍ ﴿٢٠﴾

21. 순종하고 믿음직하노라

مُطَاعٍ ذَكَرًا مِّنْ ﴿٢١﴾

22. 그럼으로 너희의 동반자는 미친자가 아니며<sup>1)</sup>

وَمَا صَاحِبُكُمْ بِمَجْنُوْنٍ ﴿٢٢﴾

15-1) 낮에는 사라지고 밤에 나타나 빛을 밝히는 별들을 두고 맹세하사(타프씨르 알파브리 48/30)

17-1) 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24 참조.

19-1) 실로 이 꾸란은 하나님의 사도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24).

20-1) 가브리엘 천사

22-1) 꾸란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되었고 무함마드는 너희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미친자가 아니며 꾸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강조되고 있다(타프씨르 알파진, 215/4).

12. 와 이달 자히-무 쭈으이라트  
Wa 'Izal Jahīmu Su'irat
13. 와 이달 잔나투 우즐리파트  
Wa 'Izal Jannatu 'Uzlifat
14. 알리마트 낚쑤 마- 아흐되라트  
'Alimat Nafsun Mā 'Aḥḍharat
15. 팔라 우끄씨무 빌 쿤나씨  
Fala 'Uqsimu Bil Khunnasi
16. 알자와-릴 쿤나씨  
alJawāril Kunnasi
17. 왈 라일리 이다 아쓰아싸  
Wal Layili 'Izā 'As'asa
18. 와 수브히 이다 타낚파싸  
Wa Subhi 'Izā Tanaffasa
19. 인나후 라 까울루 라술-린 카림  
'Innahu La Qawlu Rasūlin Karīm
20. 디 꾸우와틴 예인다 덜 아르쉬 마킨  
Zi Quwwatin 'Inda Zil 'Arshi Makīn
21. 무뵤-인 쑤마 아민  
Mutā'in Thumma 'Amīn
22. 와 마- 사-히부쿰 비 마즈누-닌  
Wa Mā Ṣāhibukum Bi Majnūnin

23. 그는<sup>1)</sup> 칭명한 지평선에 있는 그를<sup>1)</sup> 보았으되<sup>2)</sup>

وَلَقَدْ رَآهُ بِالْأَفُقِ الْمُبِينِ ﴿٢٣﴾

24. 그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지식을 인색하게 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وَمَا هُوَ عَلَى الْغَيْبِ بِضَنِينٍ ﴿٢٤﴾

25. 이것은<sup>1)</sup> 저주받은 사탄의 말이 아니며

وَمَا هُوَ بِقَوْلِ شَيْطَانٍ رَجِيبٍ ﴿٢٥﴾

26. 너희는 어디로 가려하느냐<sup>1)</sup>

فَأَيْنَ تَذْهَبُونَ ﴿٢٦﴾

27. 실로 이것은 만인을 위한 메시지이며

إِنْ هُوَ إِلَّا ذِكْرٌ لِلْعَالَمِينَ ﴿٢٧﴾

28. 너희 가운데 그 진리를 원하는 자 그것을 따르도록 하려 함이라

لِمَنْ شَاءَ مِنْكُمْ أَنْ يَسْتَوْفِرَ ﴿٢٨﴾

29. 그러나 만유의 주님이신 주님의 뜻이 없이는 너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노라

وَمَا تَشَاءُونَ إِلَّا أَنْ يَشَاءَ اللَّهُ رَبُّ الْعَالَمِينَ ﴿٢٩﴾

23-1) 무함마드

2) 선지자 무함마드는 태양이 뜨는 동쪽 하늘 제일 높은 곳에 형체로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를 보았다. 선지자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를 본 것은 히라 동굴에서 계시를 내린 이후의 일로 하늘과 대지 사이에서 천사를 보았으며 그때의 형체는 600개의 날개를 갖고 있어 동쪽과 서쪽 사이를 막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뜨 434/8).

25-1) 이 꾸란 또는 너희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주받은 사탄의 말이 아니며

26-1) 무함마드의 말도 아니요, 사탄의 말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꾸란을 시키하고 또는 마술이라 욕되게 했던 너희들은 이제 어디로 가려 하느냐?

23. 와 라까드 라아-후 빌 우프킬 무비-니  
 Wa Laqad Ra'āhu Bil 'Ufuqil Mubīni
24. 와 마 후와 알랄 가이비 비 되니-넌  
 Wa Ma Huwa 'Alal Gaibi Bi Dhaninin
25. 와 마- 후와 비 까울리 샤이뜨-넌 라지-민  
 Wa Mā Huwa Bi Qawli Shaytānin Rajīmin
26. 파 아이나 타드하부-나  
 Fa 'Ayna Tazhabūna
27. 인나 후와 일라 디크룬 릴 알라-미-나  
 'In Huwa 'illa Zikrun Lil 'Alāmīna
28. 리만 샤-아 민쿰 안 야쓰타끼-마  
 Liman Shā'a Minkum 'An Yastaqīma
29. 와 마- 타샤-우-나 일라 안 야샤-알라후 랍불  
 Wa Mā Tashā'ūna 'illa 'An Yashā'alLāhu Rabbul  
 알-라미-나  
 'Ālamīna
-





## 제82장 인피따르

메카에서 계시된 19절로 “타크위르”장과 내용이 동일한 부활의 날에 있을 우주의 변화, 그날에 일어날 사건들 그리고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의 상태를 다루고 있다.

본 장은 우주의 변화로써 하늘이 갈라지고 별들이 흩어지며 바다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어 뒤엎어지며 계산되고 보상이 있다는 계시를 시작으로, 인간의 불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의 오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천사들을 보내어 인간의 모든 업적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인간은 두 부류로 분류되니 천국에 들어가 축복가운데서 거주할 의로운 자들과 지옥에 들어가 무서운 벌을 받을 사악한 자들에 대하여 언급한 후, 심판의 날에 있을 보상과 응벌 그리고 그날에는 아무도 유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이 있을 것이라는 계시를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하늘이 갈라지고”(인피따르)에서 언급된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제 82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늘이 갈라지고<sup>1)</sup>
2. 별들이 흩어지며
3. 바다가 열리어 하나가 되고<sup>1)</sup>
4. 모든 무덤이 열리어 뒤엎어지며<sup>1)</sup>
5. 그때 모든 인간은 앞서 있었던 것들과 미루었던 것들을 알게 되노라<sup>1)</sup>
6. 인간들이여 가장 은혜로우신 주님으로부터 무엇이 너희를 유혹했느냐
7. 그분께서 너희를 창조하고 형상을 만든 후 균형을 주시었고<sup>1)</sup>
8. 그분이 원하시는 형태로써<sup>1)</sup> 너희를 지으셨으나
9. 너희는 진리와 심판을 거역하며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یْمِ

اِذَا السَّمَاءُ انْفَطَرَتْ ۝

وَاِذَا الْكَوْكُبُ اِنْتَحَرَتْ ۝

وَاِذَا الْبِحَارُ فُجِّرَتْ ۝

وَاِذَا الْقُبُورُ بُعْثِرَتْ ۝

عَلِمْتَ نَفْسٌ مَّا قَدَّمَتْ وَاَخَّرَتْ ۝

يٰۤاَيُّهَا الْاِنْسَانُ مَآ غَرَّكَ بِرَبِّكَ الْكَرِیْمِ ۝

الَّذِیْ خَلَقَكَ فَسَوَّاكَ فَعَدَلَكَ ۝

فِیْ اٰیِ صُوْرَةٍ مَّا شَاءَ رُبَّكَ ۝

كَلَّا بَلْ تُكَدِّبُوْنَ بِالدِّیْنِ ۝

1-1)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이 갈라지면서 천사들이 내려온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27).  
 3-1) 모든 바다가 열리고 바닷물이 서로 혼합되어 하나의 바다가 되어 버리며(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27).  
 4-1) 무덤이 열리고 뒤엎어지니 무덤속에 있는 것이 무덤 밖으로 나오고 무덤밖에 있었던 것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며,  
 5-1) 이전에 행하였던 선과 악의 모든 행위의 결과와 미루었던 것으로 그 이후에 행한 것들(타파씨르 알파브리 54/30)  
 7-1) 무에서 유를 창조한 후 균형있는 감각기능을 부여하고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드셨다.  
 8-1) "실로 우리(하나님)가 인간을 창조하사 가장 좋은 형상으로 창조하였느니라"

82.쭈-라틀 인피뜨-르 ( Sūratul 'Infiṭāri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āhi arRahmān arRahīm

01. 이다 싸마-우 인파뜨라트

'Iza Samā'u Infatarat

02. 와 이달 카와-키부 인타싸라트

Wa 'Izal Kawākibu Intatharat

03. 와 이달 비하-루 풋지라트

Wa 'Izal Biḥāru Fujjirat

04. 와 이달 꾸부-루 부으씨라트

Wa 'Izal Qubūru Bu'thirat

05. 알리마트 낯쑤 마- 깔다마트 와 악카르트

'Alimat Nafsun Mā Qaddamat Wa 'Akhkharat

06. 야 아이유할 인싸-누 마 가르라카 비 람비칼 카리-미

Ya 'Ayyuhal 'Insānu Mā Garraka Bi Rabbikal Karimi

07. 알라지 칼라까카 파 싸우와-카 파 아달라카

Allazi Khalaqaka Fa sawwāka Fa 'Adalaka

08. 피 아이이 쭈-라틴 마 샤-아 락카바카

Fi 'Ayyi Sūratin Mā Shā'a Rakkabaka

09. 칼라 발 투캅디부-나 벌디-니

Kallā Bal Tukazzibūna BidDīni

10. 너희를 감시하는 자들을 두었노라<sup>1)</sup>

وَاِنَّ عَلَيْكُمْ لَحَافِظِينَ ۝١٠

11. 이들은 명예로운 기록자들이 때<sup>1)</sup>

كِرَامًا كَاتِبِينَ ۝١١

12. 그들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노라

يَعْلَمُونَ مَا تَعْمَلُونَ ۝١٢

13. 실로 의로운 자들은 축복속에 있게 되나

اِنَّ الْاَبْرَارَ لَفِي نَعِيمٍ ۝١٣

14. 사악한 자들은 불지옥에 있게 되나니

وَاِنَّ الْفٰجِرَ لَفِي جَهَنَّمَ ۝١٤

15. 그곳은 심판의 날 그들이 들어갈 곳으로

يَصَلُّونَهَا يَوْمَ الدِّينِ ۝١٥

16. 그때 그들은 그곳으로부터 결코 나갈 수 없노라

وَمَا هُمْ عَنْهَا بِغَائِبِينَ ۝١٦

17. 심판의 날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알려주리요

وَمَا اَدْرٰكَ مَا يَوْمَ الدِّينِ ۝١٧

18. 심판의 날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알려주리요

كُلَّمَا اَدْرٰكَ مَا يَوْمَ الدِّينِ ۝١٨

19. 그날은 누구도 타인에게 효용이 없는 날로 그날은 하나님의 명령만이 있을 뿐이라

يَوْمَ لَا تَمْلِكُ نَفْسٌ لِّنَفْسٍ شَيْئًا وَّالْاَمْرُ  
لِوَهِّبٍ بَلَدٍ ۝١٩

10-1)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천사들이 있다고 꾸르투비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시르 알꾸르투비 245/19).

11-1) 인간이 입으로 말하는 것. 몸으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려 기록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10. 와 인나 알라이쿰 라 하-피지-나  
Wa 'Inna 'Alaykum La Ḥāfizīna
11. 키라-만 카-티비-나  
Kirāman Kātibīna
12. 야을라무-나 마 타프알루-나  
Ya'lamūna Mā Taf'alūna
13. 인날 아브라-라 라피 나이-민  
'Innal 'Abrāra Lafi Na'imin
14. 와 인날 풋자-라 라피 자히-민  
Wa 'Innal Fujjāra Lafi Jahīmin
15. 야슬라우나하 야우마 디-니  
Yaṣlawnaḥa Yawma Dīni
16. 와 마 흠 안하 비 가-이비-나  
Wa Mā Hum 'Anḥa Bi Gā'ibīna
17. 와 마 아드라-카 마 야우마 디-니  
Wa Mā 'Adrāka Mā Yawma Dīni
18. 썸마 마- 아드라-카 마- 야우마 디-니  
Thumma Mā 'Adrārka Mā Yawma Dīni
19. 야우마 라- 타믈리쿠 낚쑤 리 낚쑤 샤흐안 왈  
Yawma Lā Tamliku Nafsun Li Nafsin Shay'an Wal  
아므루 야우마이딘 킬라히  
'Amru Yawma'izin LiLāhi
-





## 제83장 무따피핀

메카에서 계시된 36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과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불신자들에 대한 이슬람 선교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본 장은 공정하게 재판이 있을 내세를 두려워 하지 아니하고 무게와 저울의 눈금을 속이는 자들(무따피핀)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계시로 시작하고 있다.

내세에 있어서의 불신자들의 고통과 불행,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에서의 축복과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 한 후

불신자들은 현세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던 자들을 비웃고 조롱했으나 내세에서는 그 반대로 그들 불신자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방황하며 불행하게 살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무게와 눈금을 속이는 자들(무따피핀)에 대한 경고로써 본 장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이유에서 「무따피핀」장이라 불리워지게 된 것으로 본다.

### 제 83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저울을 속이는 자들에게 재앙  
이 있을것이라<sup>1)</sup>

2.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받을 때  
저울을 넘치게 하여 받으나

3. 그들이 사람들에게 줄 때는  
무게를 낮추어서 주노라

4. 그들은 그들이 부활되리라 생  
각지 않느뇨

5. 그날은 위대한 날로<sup>1)</sup>

6. 모든 인간이 만유의 주님앞에  
서는 날이며

7. 사악한 자들의 기록은 씨진<sup>1)</sup>  
에 보관되어 있노라

8. 씨진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  
에게 알려주리요

9. 그곳에 기록된 기록부가 있노  
라<sup>1)</sup>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وَيْلٌ لِّلْمُطَفِّفِينَ ۝١

الَّذِينَ إِذَا الْكُتَالُ عَلَى النَّاسِ يَتَوَفَّوْنَ ۝٢

وَإِذَا كَالُوهُمْ أَوَّزَوْا لَهُمْ يَخْرُجُونَ ۝٣

الَّذِينَ أُوتُوا مِنَّا مَبْعُوثُونَ ۝٤

يَوْمَ عَظِيمٍ ۝٥

يَوْمَ يَقُومُ النَّاسُ لِرَبِّ الْعَالَمِينَ ۝٦

كَلَّا إِنَّ كِتَابَ الْعَجْرَلِ لَفِي سِجِّينٍ ۝٧

وَمَا أَدْرَاكَ مَا سِجِّينٌ ۝٨

كِتَابٌ مَّرْجُومٌ ۝٩

1-1) 무따피핀: 무게와 눈금을 속여 가볍게 하는 자.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메디나에 왔을 때 무게와 저울을 속이는 사악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저울을 속이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지니..."라고 계시가 내려졌으며 그 이후로 무게를 제대로 달았다고 풀이되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613/3).

5-1) 부활의 날

7-1) 사악한 자들의 업적에 대한 기록이 보관되는 제일 밑에 있는 좁은 장소(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31).

9-1) 숫자가 쓰여지면 잊혀지지도 아니하고 지워지지도 아니한 기록부. 이브누 까씨르는 "잊진"은 씨진에서 파생된 단어로 아주 좁은 곳이라 풀이하고 사악한 자들의 귀착점은 지옥의 가장 낮은 곳이며 한번 숫자로 기록되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더할 수도 없으며 감소시킬 수도 없다고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파씨르 이브누 까씨르 614/3).

83.쑤-라틀 무똥피피-나 ( Sūratul Muṭaffifīna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āhi arRahmān arRahīm

01. 와일룬 릴 무똥피피-나

Wylun Lil Muṭaffifīna

02. 알라지-나 이다 이크탈-루 알란 나-씨 야쓰타우푸-나

Allazina 'Iḏā Iktālū 'Alan Nāsi Yastawfūna

03. 와 이다 칼-루훔 와우 와자누-훔 유크씨루-나

Wa 'Iḏā Kālūhum 'Aw Wazanūhum Yakhsirūna

04. 알라 야준누 울라-이카 안나훔 마브우-쑤나

'ALa Yazunnu 'Uwlā'ika 'Annahum Mab'ūthūna

05. 리 야우민 아지-민

Li Yawmin 'Azīmin

06. 야우마 야꾸-문 나-쑤 리 랍빌 알-라미-나

Yawma Yaqūmun Nāsu Li Rabbil 'Ālamīna

07. 칼라 인나 키타-발 풋자-리 라피 씨지-닌

Kallā 'Inna Kitābal Fujjāri LaFi Sijjīnin

08. 와 마 아드라-카 마 셋지-눈

Wā Ma 'Adrāka Mā Sijjīnun

09. 키타-분 마르꾸-문

Kitābun Marqūmun



10. 그날에는 불신한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요

وَلَيْلٌ يُؤْمِسُ الْمُكذِبِينَ ﴿١٠﴾

11. 심판의 날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도 재앙이 있을 것이라

الَّذِينَ يَكْتُمُونَ بِيَوْمِ الدِّينِ ﴿١١﴾

12.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정하지 아니하나 오만한 자들은 영역을 벗어난 죄인들이라

وَمَا يَكْتُمُ بِهِ إِلَّا كُلٌّ مُعْتَدٍ أَثِيمٌ ﴿١٢﴾

13.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낭송될 때 이것은 옛 선조들의 우화요 라고 말하더라

إِذْ أَتَى عَلَى اللَّهِ أُمَّتَنَا قَالِ اسَاطِيرُ الْأُولِينَ ﴿١٣﴾

14. 그렇지 않노라 그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노라

كَلَّا لَبِئْسَ مَا كَانُوا يَكْسِبُونَ ﴿١٤﴾

15. 실로 그날 그들은 베일로 가리워져 바라보지도 못하며<sup>1)</sup>

كَلَّا إِنَّهُمْ عَنْ رَبِّهِمْ يَوْمَئِذٍ لَمَحْجُورُونَ ﴿١٥﴾

16. 그들은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니

ثُمَّ إِنَّهُمْ لَصَالُوا الْجَحِيمِ ﴿١٦﴾

17. 이것은 너희가 거짓이라 거역했던 현실이라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

ثُمَّ يُقَالُ هَذَا الَّذِينَ كُنتُمْ بِهِ تَكذِّبُونَ ﴿١٧﴾

18.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기록은 일련에<sup>1)</sup> 보관되나니

كَلَّا إِنَّ كِتَابَ الْأَبْرَارِ لَفِي عِلِّيِّينَ ﴿١٨﴾

19. 일련이 무엇인가를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وَمَا آدْرَاكَ مَا عِلِّيُّونَ ﴿١٩﴾

20. 그곳에 기록된 기록부가 있노라

كِتَابٌ مَرْقُومٌ ﴿٢٠﴾

15-1) 불신자들은 내세에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한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고 사피는 말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시르, 제20권 p.32).

18-1) 일련 :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축복받은 곳

10. 와일룬 야우마이진 릴 무캇지비-나  
Waylun Yawma'izin Lil Mukazzibīna
11. 알라지 유캇지부-나 비 야우미 디-니  
Allazīna Yukazzibūna Bi Yawmi Dīni
12. 와 마 유캇지부 비히 일라 쿨루 무으타딘 아씨-민  
Wā Ma Yukazzibu Bihi 'illā Kullu Mu'tadin 'Athīmin
13. 이다 투틀라 알라이히 아-야투나 깔-라 아씨-띠-를  
'Izā Tutla 'Alayhi 'Ayātuna Qāla 'Asātīrul  
아우왈리-나  
'Awwalīna
14. 칼라 발 라-나 알라 꿀루-비힘 마 카-누 야크씨부-나  
Kallā Bal Rāna 'Ala Qulūbihim Mā Kānū Yaksibūna
15. 칼라 인나훔 안 랍비힘 야우마이딘 라 마흐주-부-나  
Kallā 'Innahum 'An Rabbihim Yawma'izin La Maḥjūbūna
16. 쏘마 인나훔 라 쌀-를 자히-미  
Thumma 'Innahum La Ṣālūl Jahīmi
17. 쏘마 유깁-루 하달 라지 쿤툼 비히 투캇지부-나  
Thumma Yuqālu Haḏal Laḏi Kuntum Bihi Tukazzibūna
18. 칼라 인나 키타-발 아브라-리 라피 일리이-나  
Kallā 'Inna Kitābal 'Abrāri LaFi 'illiyīna
19. 와 마 아드라-카 마 일리유-나  
Wa Mā 'Adrāka Mā 'illiyūna
20. 키타-분 마르꾸-문  
Kitābun Marqūmun

21.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그들이<sup>1)</sup> 그것을 증언할 것이니

يَشْهَدُهُ الْمُعَرَّفُونَ ﴿١١﴾

22. 의로운 자들은 축복속에 있게 될 것이며

إِنَّ الْأَبْرَارَ لَفِي نَعِيمٍ ﴿١٢﴾

23. 그들은 안락 의자에서 바라볼 것이라<sup>1)</sup>

عَلَى الْأَرَائِكِ يَنْظُرُونَ ﴿١٣﴾

24. 너희는 그들의 얼굴에서 밝은 축복의 빛을 인식할 것이며

تَعْرِفُ فِي وُجُوهِهِمْ نَضْرَةَ النَّعِيمِ ﴿١٤﴾

25. 봉인된<sup>1)</sup> 순수한 술로써 그들의 갈증을 식힐 것이며

يُسْقَوْنَ مِنْ رَحِيقٍ مَخْتُومٍ ﴿١٥﴾

26. 최후의 음료수는 미스크<sup>1)</sup>가 될 것이니 그것을<sup>2)</sup> 소망하는 자 갖게 하리라

خَمْرُهُمْ كَمِسْكِ فِي ذَلِكَ فَلَيَتَنَافَسِ الْمُسْتَفْسِمُونَ ﴿١٦﴾

27. 거기에 타쓰님이<sup>1)</sup> 혼입되어 지니

وَمَزَاجُهُ مِنْ تَسْنِيمٍ ﴿١٧﴾

28. 그것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마시는 샘물이라

عَيْنًا يَشْرَبُ بِهَا الْمُعَرَّفُونَ ﴿١٨﴾

29. 죄인들은 믿음을 가졌던 자들을 비롯어

إِنَّ الَّذِينَ أَجْرَمُوا كَانُوا مِنَ الَّذِينَ آمَنُوا يَضْحَكُونَ ﴿١٩﴾

30. 그들 옆을 지나갈 때면 눈짓으로 조롱하곤 하였고<sup>1)</sup>

وَإِذَا مَرُّوا بِهِمْ يَتَغَامَزُونَ ﴿٢٠﴾

21-1) 천사들

23-1) 하나님께서 약속한 천국에 있는 모든 종류의 은혜와 축복

25-1) 의로운자들과 외에는 열 수 없는 봉인된 술.

26-1) 미스크 : 좋은 향을 풍기는 것으로 제일 마지막에 마시는 음료수  
2) 서둘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27-1) 축복받은 높은 곳에 있는 우물로 천국의 백성들이 마시는 음료수

30-1) "아부 자흘"을 비롯한 그밖의 꾸라이쉬 불신자 지도자들에게 계시된 절로 "알리 빈 아비 딸림"과 믿음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지나갈 때 그들 불신자들은 비웃고 조롱하였다 (알타스힐 리울름 알탄질 186/4).

21. 야쉬하두홀 무까르라부-나  
Yashuhaduhul Muqarrabūna
22. 인날 아브라-라 라피 나이-민  
'Innal 'Abrāra LaFi Na'imin
23. 알랄 아라-이키 얀주루-나  
'Alal 'Arā'iki Yanzurūna
24. 타으리푸 피 우주-히힘 나드라탄 나이-미  
Ta'rifu Fi Wujūhihim Nadhratan Na'imi
25. 유쓰까우나 민 라히-긴 마크투-민  
Yusqawna Min Raḥiqin Makhtūmin
26. 키타-무후 미쓰쿤 와 피 달-리카 팔 야타나-파실  
Kitāmuhu Miskun Wa Fi Zālika Fal Yatanāfasil  
무타나-피쑈-나  
Mutanāfisūna
27. 와 미자-주후 민 타쓰니-민  
Wa Mizājuhu Min Tasnīmin
28. 아이난 야쉬라부 비할 무까르라부-나  
'Aynan Yashrabu Bihal Muqrrabūna
29. 인날 라지-나 아즈라무- 카-누 미날 라지나 아-마누  
'Innal Lazīna 'Ajramū Kānū Minal Lazīna 'Amanū  
야드하쿠-나  
Yadhḥakūna
30. 와 이자 마르루 비힘 야타가-마주-나  
Wa 'Izā Marrū Bihim Yatagāmazūna
-

31. 그들이 무리에게로 돌아왔을 때는 우쭐 댔노라

32. 믿는자를 볼 때면 보라 이들이 방황한 자들이라 하더라

33. 그러나 불신자들은 믿는자를 감시하기 위해 보내어진 자가 아니매

34. 오늘은<sup>1)</sup>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불신자들을 조롱하리라

35. 이들은 안락의자에 앉아 바라다 보리라<sup>1)</sup>

36. 불신자들은 그들이 행하였던 대로 보상을 되돌려 받지 않느뇨<sup>1)</sup>

وَإِذَا انْقَلَبُوا إِلَىٰ أَهْلِهِمْ انْقَلَبُوا فَكِهِينَ ﴿٣١﴾

وَإِذَا رَأَوْهُمْ قَالُوا إِنَّ هَٰؤُلَاءِ لَضَالُّونَ ﴿٣٢﴾

وَمَا أَرْسَلْنَا عَلَيْهِمْ حَفِظِينَ ﴿٣٣﴾

فَالْيَوْمَ الَّذِينَ آمَنُوا مِنَ الْكُفَّارِ يَضْحَكُونَ ﴿٣٤﴾

عَلَىٰ الْأَرَآئِكِ يَنْظُرُونَ ﴿٣٥﴾

هَلْ يُؤْتِي الْكُفَّارَ مَا كَانُوا يَعْمَلُونَ ﴿٣٦﴾

34-1) 부활의 날

35-1) 비웃고 조롱했던 불신자들을 쳐다보면서

36-1) 현세에서는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으나 내세에서는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34).

31. 와 이다 인갈라부- 일라 아흘리힘 인갈라부- 파키히-나  
 Wa 'Iḏā Inqalabū 'ila 'Ahlihim Inqalabū Fakihīna
32. 와 이다 라아우훙 깔-루 인나 하올라-이 라 딸-루-나  
 Wa 'Iḏā Ra'awhum Qālū 'Inna Ha'wlā'i La Dhālūna
33. 와 마 우르썰루 알라이힘 하-피지-나  
 Wa Mā 'Ursilū 'Alayhim Ḥāfīzīna
34. 팔 야우마 라지나 아-마누 미날 쿡파-리 야드하쿠-나  
 Fal Yawmal Laḏīna 'Āmanu Minal Kuffāri Yadhḥakuna
35. 알랄 아라-이키 양주루-나  
 'Alal 'Arā'iki Yanzurūna
36. 할 쉰우위발 쿡파-루 마 카-누 야프알루-나  
 Hal Thuwwibal Kuffāru Mā Kanu Yaf'alūna
-





## 제84장 인쉬까끄

메카에서 계시된 25절로 부활의 날에 있을 공포와 이슬람의 기본 원리를 다루고 있는데 다른 메카계시들과 같은 내용과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은 내세에 있을 상황의 일면을 묘사하면서 부활의 시각에 발생할 우주의 변화에 대한 계시를 시작으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과 그들이 현세에서 행한 선악의 결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꾸란을 부정한 불신자들에게 여러가지 상황의 응벌이 부활의 날에 있을 것이라는 교훈을 제시한 후 믿음을 거역한 불신자들은 불지옥에서 고통스러운 벌을 맛보게 되리라는 경고를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하늘이 산산히 갈라지니”에서 언급되고 있는 어휘 “인쉬까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제 84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یْمِ

- 1. 하늘이 산산히 갈라지고<sup>1)</sup>
- 2. 주님께 순종하며 의무를 다하도다<sup>1)</sup>
- 3. 대지가 편편하게 펼쳐지고<sup>1)</sup>
- 4. 그안의 모든 것이 내던져져어 텅비게 되매<sup>1)</sup>
- 5. 주님께 순종하며 의무를 다하도다
- 6. 인간들이여 실로 너희가 주님을 향해 노력하나니 너희는 그분을 만날 것이라<sup>1)</sup>
- 7. 그의 기록이 오른 손에 있는 자는<sup>1)</sup>
- 8. 그의 기록이 편안히 계산되니

اِذَا السَّمَاءُ انشَقَّتْ ۝١

وَاذِنْتَ لِرَبِّهَا وَحَقَّتْ ۝٢

وَإِذَا الْاَرْضُ مُدَّتْ ۝٣

وَاَلْقَتْ مَا فِيهَا وَتَخَلَّتْ ۝٤

وَاذِنْتَ لِرَبِّهَا وَحَقَّتْ ۝٥

يَا أَيُّهَا الْاِنْسَانُ اِنَّكَ كَادِرٌ اِلَى رَبِّكَ كَدًّا حَامِلٍ ۝٦

فَاَتَمَّنْ اَوْ تَى كِتَابًا بَيِّنٍ ۝٧

فَسَوْفَ يُحَاسِبُ حَسَابًا بَیِّنًا ۝٨

1-1) 부활의 상태와 양상을 설명하여 주는 절로써 하늘이 산산히 갈라진다는 것은 우주질서의 붕괴를 가르키며 동시에 부활의 날에 있을 공포를 예시하고 있다(후호 알마아니 78/30).

2-1)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부활의 공포로 말미암아 해야 할 하나님의 권리를 수행한다.

3-1) 산들도 그리고 건물들도 모두가 없어지며 편편하게 되는 상태

4-1) 땅속에 있던 죽은 자들과 모든 보석과 광물이 밖으로 던져지며 안에는 텅비게 된다. 꾸르푸비는 땅속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쫓겨나와 텅비게 되는 것은 마치 임신한 여성이 태안에 있던 것을 내보내는 것과 같으니 부활의 공포도 그렇다고 풀이하고 있다(타프스르 알꾸르푸비 268/19).

6-1) 아담의 자손 인간들이 행한 선과 악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이르러 선의 결과에 대한 보상은 선이요 악의 결과에 대한 보상은 악이 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7-1) 행복한 인간과 불행한 인간으로 분류되면서 그의 업적에 대한 기록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행복한 인간임을 암시하고 있다.

84.쑤-라틀 인쉬까-Ⅱ ( Sūratul Inshiqāqi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āhi arRahmān arRahīm

01. 이다 싸마-우 인샤까트

'Izā Samā'u Inshaqqat

02. 와 아지나트 리 랍비하 와 후까트

Wa 'Aẓinat Li Rabbiha Wa Huqqat

03. 와 이달 아르두 문다트

Wa 'Izal 'Ardhu Muddat

04. 와 알까트 마 피-하 와 타칼라트

Wa 'Alqat Mā Fīha Wa Takhlilat

05. 와 아지나트 리 랍비하 와 후까트

Wa 'Aẓinat Li Rabbiha Wa Huqqat

06. 야 아이유할 인싸-누 인나카 카-디훈 일라 랍비카

Yā 'Ayyuhal Insānu 'Innaka Kādihun 'ila Rabbika

카드한 파 물라-끼-히

Kadhan Fa Mulāqīhi

07. 파 암마 만 우-티야 키타-바후 비 야미-니히

Fa 'Amma Man 'Ūtiya Kitābahu Bi Yamīnihi

08. 파 싸우파 유하-싸부 히싸-반 야씨-란

Fa Sawfa Yuḥāsabu Ḥisāban Yasīran

9. 기뻐하며 그의 가족으로 돌아가노라<sup>1)</sup>

وَيَنْتَقِبُ إِلَىٰ أَهْلِهِ مَسْرُورًا ﴿٩﴾

10. 그러나 그의 기록이 뒤에 있는 자는

وَأَمَّا مَنْ أُوتِيَ كِتَابَهُ وَرَأَىٰ ظَهْرَهُ ﴿١٠﴾

11. 죽음을 향하여 소리칠 것이니

تَوَدَّ يَدْعُوا أَنفُسُهُمْ ﴿١١﴾

12. 그는 타오르는 불지옥으로 들어가니라

وَيَصِلُ سَعِيرًا ﴿١٢﴾

13. 실로 그는 그의 무리들과 즐거히 방황 했을 뿐<sup>1)</sup>

إِنَّكَ كَانَتْ فِي أَهْلِهِ مَسْرُورًا ﴿١٣﴾

14. 하나님에게로 귀의하리라 생각지 아니 했노라<sup>1)</sup>

إِنَّهُ ظَنَّ أَنْ لَنْ يَخُورَ ﴿١٤﴾

15. 그렇지 않노라 실로 주님께 서는 인간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بَلَىٰ إِنَّ رَبَّهُ كَانَ بِهِ بَصِيرًا ﴿١٥﴾

16. 해질 때의 황혼을<sup>1)</sup> 두고 맹세하사<sup>2)</sup>

فَلَا أَقْسِمُ بِاللُّغَمِيِّ ﴿١٦﴾

17. 밤과 모여든 모든 것을<sup>1)</sup> 두고 맹세하며

وَاللَّيْلِ وَمَا وَسَىٰ ﴿١٧﴾

18. 완전히 차오른 달을 두고 맹세하나니

وَالْقَمَرِ إِذَا اتَّسَقَ ﴿١٨﴾

9-1)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기쁨으로 천국에 사는 자들에게 돌아간다.

13-1) 현세에서 유희와 오락과 재물과 권력에만 몰두하고 탐닉했을 뿐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아니했으며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을 뿐이다.

14-1) 주님께로 귀의하지 아니하며 죽은 후에는 부활하지 아니함으로 계산도 보상도 없으니 현세에 만족하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오만한 생각이었다.

16-1) 샤파끄 : 해가 진 후 지평선에 나타난 황혼  
2) 라 : 맹세에 대한 강조

17-1) 마 와싸까 : 밤에는 대지위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휴식을 취하나 낮에는 모든 피조물이 제 할일을 찾아 흠어진다. 그래서 낮에 제 할일을 찾아 흠어진 모든 것을 모아 맹세하사 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37).

09. 와 안갈리부 일라 아흘리히 마쓰루-란  
 Wa Yanqalibu 'ila 'Ahlihi Masrūran
10. 와 암마 만 우-티야 키타-바후 와라-아 자흐리히  
 Wa 'Amma Man 'Ūtiya Kitābahu Wāra'a Zahrihi
11. 과 싸우과 야드우 쭈부-란  
 Fa Sawfa Yad'ū Thubūran
12. 와 야슬라 싸이-란  
 Wa Yaaşla Sa'īran
13. 인나후 카-나 피 아흘리히 마쓰루-란  
 'Innahu Kāna Fi 'Ahlihi Masrūran
14. 인나후 쥘나 안 란 야후-라  
 'Innahu Zanna 'An Lan Yaḥūra
15. 발라 인나 랍바후 카-나 비히 바쉬-란  
 Balla 'Inna Rabbahu Kāna Bihi Başīran
16. 팔라 우끄씨무 비 샤파끼  
 Falā 'Uqsimu Bi Shafaqi
17. 왈 라일리 와마 와싸까  
 Wal Layli WaMā Wasaqa
18. 왈 까마리 이다 일타싸까  
 Wal Qamari 'Izā Ittasqa
-

19. 실로 너희는 한 상황에서 다  
른 상황으로<sup>1)</sup> 옮겨 가니라

لَتَرْكَبُنَّ طَبَقًا عَن طَبَقٍ ۝١٩

20. 그럼에도 그들이 믿지 아니  
하려 한 것은 무슨 일이뇨

فَمَا لَهُمْ لَا يُؤْمِنُونَ ۝٢٠

21. 꾸란이 그들에게 낭송되나  
부복하여 경배하지 아니하며

وَإِذَا قُرِئَ عَلَيْهِمُ الْقُرْآنُ لَا يَسْجُدُونَ ۝٢١

22. 오히려 그것을<sup>1)</sup> 거짓이라 불  
신하더라

بَلِ الَّذِينَ كَفَرُوا يَكْتُمُونَ ۝٢٢

23.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심  
중에 감추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시  
나니

وَاللَّهُ أَعْلَمُ بِمَا يُكْتُمُونَ ۝٢٣

24.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라

فَبَشِّرْهُمْ بِعَذَابٍ أَلِيمٍ ۝٢٤

25.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  
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단절되지  
않는 영원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

إِلَّا الَّذِينَ آمَنُوا وَعَمِلُوا الصَّالِحَاتِ لَهُمْ  
أَجْرٌ غَيْرُ مَمْنُونٍ ۝٢٥

19-1) 죽은 후에 부활의 단계와 그 부활의 상황으로 옮겨 진다는 뜻(루흐 알마아니 82/30) 「알파  
브리」는 부활의 날 부활의 여러가지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는 뜻으로 보고 있다(타프씨르  
알 푸르투비 80/30).

22-1) 꾸란을

19. 라 타르칸분나 따바칸 안 따바킨

La Tarkabunna Ṭabaqan ‘An Ṭabaqin

20. 파마- 하흠 라- 유으미누-나

FāMa Lahum Lā Yu‘minūna

21. 와 이다 꾸리아 알라이히물 꾸르아-누 라-야쓰주두-나

Wa ‘Izā Quri‘a ‘Alayihimul Qur‘ānu Lā Yasjudūna

22. 발릴 라지-나 카파루- 유캇지부-나

Balil Lazīna Kafarū Yukazzibūna

23. 왈라후 아을라무 비마- 유-우-나

WalLāhu ‘A‘lamu Bimā Yu‘ūna

24. 파 밧쉬르흠 비 아자-빈 알리-민

Fa Bashshirhum Bi ‘Azābin ‘Alīmin

25. 일랄 라지나 아-마누 와 아밀루 살-리하-티 라흠

‘illāl Lazīna ‘Āmanū Wa ‘Amilū Ṣālihāti Lahum

아즈룬 가이루 마므눈

‘Ajrun Gayru Mamnūn





## 제85장 부루즈

메카에서 계시된 22절로 이슬람의 기본원리의 실재를 제시하면서 함정을 만든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본 원리와 믿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은 엄청난 별들의 궤도를 가진 하늘과, 부활의 날 증언할 자들을 두고 맹세하는 계시를 시작으로,

불신자들의 사악한 행위와 믿는 신도들에 대한 학대를 경고하면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벌이 엄청나다는 교훈을 제시한 후

오만하고 거만했던 파라오가 멸망했던 이야기를 교훈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별들의 궤도를 둔 하늘을 두고 맹세하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루즈」란 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제 85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1. 별들의 궤도를 둔 하늘을 두  
고 맹세하사

وَالسَّمَاءَ ذَاتِ الْبُرُوجِ ۝

2. 약속된<sup>1)</sup> 심판의 날을 두고 맹  
세하며

وَالْيَوْمَ الْمَوْعُودِ ۝

3. 증언하는 자들과<sup>1)</sup> 증언받는  
그들을<sup>2)</sup> 두고 맹세하며

وَشَاهِدٍ وَمَشْهُودٍ ۝

4. 함정을<sup>1)</sup> 만든 그들에게 저주  
가<sup>2)</sup> 있으리라<sup>3)</sup>

ثُمَّ لَأَصْحَابُ الْأَخْدُودِ ۝

5. 그들은 화염을 그곳에 던졌노  
라<sup>1)</sup>

النَّارِ ذَاتِ الْوُجُودِ ۝

6. 그들은 그 화염 옆에 앉아

إِذْ هُمْ عَلَيْهَا قُعُودٌ ۝

7. 그들이 믿는 신도들에게 저지  
를 모든 것을 증언하노라<sup>1)</sup>

وَهُمْ عَلَىٰ مَا يَفْعَلُونَ بِالْمُؤْمِنِينَ شُهُودٌ ۝

2-1) "하나님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분(하나님)께서 의심할 바 없는 부활의 날 너희들을 모  
이게 하리라"

3-1) 부활의 날 그들의 백성들에 관하여 증언할 선지자 무함마드 및 그밖의 모든 선지자들, "그때  
우리(하나님)가 어떻게 각 음마에 증인을 이르게 할 것인가. 우리(하나님)는 그대를 이들에게  
한 증인으로 이르게 하느니라"는 절에서 그대는 바로 무함마드 선지자를 가르킨다.

2) 증언을 받는 모든 공동체. 이 밖에도 "샤히드"와 마슈후드"에 관한 학자들 간에 많은 견해 차  
이를 보이고 있으나 "무함마드 알리 싸부니" 교수는 위에 언급한 대로 풀이하고 있다(사프와  
트 타파씨르, 제20권 p.40).

4-1) 우쿠두드 : 참호처럼 땅속에 길고 넓게 파 놓은 것이라고 꾸르투비는 말하고 있다.

2) 꾸틸라 : 저주하다. 꾸란에 나오는 꾸틸라의 의미는 모두가 저주한다는 뜻으로 이브누 압바  
쓰는 해석하고 있다(타파씨르 알꾸르투비 284/19).

3) 땅속에 참호를 만들고 그곳에 불을 던져 믿음을 가진 신도들을 괴롭혔던 그들에게 저주가 있  
으리라

5-1) 불신자들은 그들이 만든 참호속에 화염을 던져 믿음을 가진 신도들을 불태워 살해하려 하였  
다(타파씨르 아비 알싸우드 252/5 참조).

7-1) 불신자들이 참호를 파고 그 안에서 믿는 신도들을 불태우려 했던 그 사악한 그들의 행위를  
증언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40).

본 절은 메카 꾸라이쉬족의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로써 이들은 이슬람에 귀의하는 자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대하였다. 그래서 함정을 만든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 것으로 풀이된다.

85.쑤-라틀 부루-즈 ( Sūratul Burūj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āhi arRahmān arRahīm

01. 왓 싸마-이 다-틸 부루-즈

Wa Samā'i Zātil Burūji

02. 왓 야우밀 마우우-디

Wal Yawmil Maw'ūdi

03. 와 샨-히딘 와 마슈후-딘

Wa Shāhidin Wa Mashhūdin

04. 와 꾸틸라 아쓰하-불 우크두-디

Wa Qutilal 'Aṣḥābu 'Ukhdūdi

05. 안나-리 다-틸 와꾸-디

Annāri Zātil Waqūdi

06. 이드 훔 알라이하 꾸우-둔

'Iz Hum 'Alayha Qu'ūdun

07. 와 훔 알라 마 야프알루-나 빌 무으미니-나 슈후-둔

Wa Hum 'Ala Mā Yaf'alūna Bil Mu'minīna Shuhūdun

8. 그들은<sup>1)</sup> 그들이<sup>2)</sup> 권능과 찬미로 찬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학대하였노라

9. 하늘과 대지의 왕국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은 모든 것을 지켜 보고 계시니라

10. 실로 믿음을 가진 남성과 여성을 학대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지옥의 응벌이 있을 것이니 그들은 타오르는 불지옥의 응벌을 맛보리라

11.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강물이<sup>1)</sup> 흐르는 천국이 있나니 실로 그것이 위대한 승리라

12. 실로 그대 주님의 응벌은 엄하니라

13. 그분께서 창시하셨기에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노라<sup>1)</sup>

14. 그분은 관용과 사랑으로 충만하시

15. 영광의 권좌에 앉아 계시며

16. 뜻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니라<sup>1)</sup>

وَمَا تَقْتُمُوا مِنْهُمْ إِلَّا أَنْ يُؤْمِنُوا بِاللَّهِ الْعَزِيزِ الْحَمِيدِ ۝

الَّذِي لَهُ مُلْكُ السَّمَوَاتِ وَالْأَرْضِ وَاللَّهُ عَلَى كُلِّ شَيْءٍ شَهِيدٌ ۝

إِنَّ الَّذِينَ قَتَلُوا النَّوْمِيْنَ وَالْمُؤْمِنَاتِ لَكُمْ يُتُوبُوا فَاِنَّهُمْ عَدَابُ جَهَنَّمَ وَأَنَّ عَذَابَ الْحَرِيقِ ۝

إِنَّ الَّذِينَ آمَنُوا وَعَمِلُوا الصَّالِحَاتِ لَهُمْ جَنَّاتٌ تَجْرِي مِنْ تَحْتِهَا الْأَنْهَارُ ذَلِكَ الْفَوْزُ الْكَبِيرُ ۝

إِنَّ بَطْشَ رَبِّكَ لَشَدِيدٌ ۝

إِنَّهُ هُوَ يُبْدِي وَيُعِيدُ ۝

وَهُوَ الْعَفُوُّ الرَّؤُوفُ ۝

ذُو الْعَرْشِ الْمَجِيدُ ۝

فَعَلَّ لَمَّا يُرِيدُ ۝

8-1) 불신자들은

2) 메카 꾸라이쉬족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들

11-1) 깨끗하고 순수한 술과 우유와 꿀이 흐르는 강물이라고 따브리는 묘사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따브리 88/30).

13-1)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6-1) 원하는 것을 행하시니 그분(하나님)이 행하려 원하시는 것은 어느 것도 방해 될 수 없다고 꾸르투비는 해석하고 있다(타프씨르 알꾸르투비 295/19).

08. 와 마 나까무- 민흠 일라 안 유으미누- 빌라힐  
 Wa Mā Naqamū Minhum 'illā 'An Yu'minū BilLahil  
 아지-질 하미-디  
 'Azīzil Ḥamīdi
09. 알라지 라후 물쿠 싸마와-티 왈 아르디 왈라후 알라  
 Alazi Lahu Mulku Samawāti Wal 'Ardhi WalLāhu 'Ala  
 쿨리 샤이인 샤히-둔  
 Kulli Shay'in Shahīdun
10. 인날 라지-나 파타눌 무으미니-나 왈 무으미나-티  
 'Innal Laḡina Fatanūl Mu'minina Wal Mu'mināti  
 쏘마 램 야투-부 파 라흠 아자-부 자한나마  
 Thumma Lam Yatūbū Fa Lahum 'Aḡābu Jahannama  
 와 라흠 아자-불 하리-끼  
 Wa Lahum 'Aḡābul Ḥariqi
11. 인날 라지-나 아-마누 와 아밀루- 샬-리하-티 라흠  
 'Innal Raḡina 'Āmanū Wa 'Amilū Ṣāliḡāti Lahum  
 잔나-툼 타즈리 민 타흐티할 안하-루 달-리칼 파우줄  
 Jannātun Tajri Min Tahtihal 'Anhāru Ḷālikal Fawzul  
 카비-루  
 Kabīru
12. 인나 바뜨샤 랍비가 라 샤디-둔  
 'Inna Baṭsha Rabbika La Shadīdun
13. 인나후 후와 유브디우 와 유이-두  
 'Innahu Huwa Yubdi'u Wa Yu'īdu
14. 와 후왈 가푸-를 와두-두  
 Wa Huwal Ḡafūrul Wadūdu
15. 들 아르셀 마지-두  
 Ḷūl 'Arshil Majīdu
16. 파알-룬 리마- 유리-두  
 Fa' 'ālun Limā Yurīdu

17. 군대의 이야기가 그대에게 이르렀느냐

هَلْ أَتَاكَ حَدِيثُ الْجُنُودِ ۝

18. 파라오와 사무드 군대의 이야기라

فِرْعَوْنَ وَنَمُودٍ ۝

19. 그런데도 불신자들은 그 진리를 거역하고 있구나

بَلِ الَّذِينَ كَفَرُوا فِي تَكْذِيبٍ ۝

20. 하나님은 그들 뒤에서 그들을 포위하시니라

وَاللَّهُ مِنْ وَرَائِهِمْ مُحِيطٌ ۝

21. 실로 이것이 영광의 꾸란으로

بَلْ هُوَ قُرْآنٌ مَجِيدٌ ۝

22. 보호된 곳에<sup>1)</sup> 보관된 것이라

فِي لَوْحٍ مَحْمُودٍ ۝

‘아부 바크르 시디끼’가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의사가 진찰하였느냐?”라는 말이 아부 바크르에게 들려왔다. 그래서 아부 바크르는 “예”하고 대답하였더니, 다시, “너에게 무엇이 라고 말했느냐?”라는 말이 들려 왔을 때 “실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였다고 아부 바크르는 대답하였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까씨르 625/3).

22-1) 하늘에 있는 완전히 보호된 곳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꾸란의 한 획이라도 더하거나 감소 하지 못하며 삭제하거나 대체 할 수 없는 교훈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42).

17. 할 아타-카 하디-솔 주누-디  
Hal 'Atāka Ḥadīthul Junūdi
18. 피르아우-나 와 싸무-다  
Fir'awna Wa Thamūda
19. 발릴 라지-나 카파루- 피 타크디-빈  
Balil Lazīna Kafarū Fi Takzībin
20. 왈라후 민 와라-이힘 무히-똥  
WalLāhu Min Warā'ihim Muḥīṭun
21. 발 후와 꾸르아-눈 마지-똥  
Bal Huwa Qur'ānun Majīdun
22. 피 라우힌 마흐푸-진  
Fi Lawḥin Maḥfuzin
-





## 제86장 따 리 꼬

메카에서 계시된 17절로 이슬람 기본원리에 관계되는 일면을 다루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 하나님 능력에 대한 예증을 들어 죽은 자를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증하고 있다.

본 장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그것으로 어두운 육지와 바다에서 길을 찾도록 하여 주는 별들이 있는 하늘과 모든 인간을 감시하며 인간의 선과 악의 행위를 기록하는 천사들을 두고 맹세하는 계시로 시작하여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 인간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부활 할 수 있다는 여러가지 예증을 제시하고 마음속에 감추어진 모든 비밀이 부활의 날 밝혀질 것이며 그 때는 어떤 구원자도 있을 수 없다는 교훈을 제시한 후 꾸란과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한 이야기 및 불신자들을 위한 고통스러운 응벌에 관한 경고를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1절의 “하늘과 따리꼬를 두고 맹세하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어휘 “따리꼬”에서 기인된 것으로 본다.



제 86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 1. 하늘과 새벽을<sup>1)</sup> 두고 맹세하사
- 2. 새벽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  
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 3. 그것은 빛나는 별이라<sup>1)</sup>
- 4. 모든 인간에게는 그를 감시하  
는 자가 있나니<sup>1)</sup>
- 5. 그가 무엇으로부터 창조되었  
는지 생각해 하라
- 6. 떨어지는 한 방울의 정액으로  
창조되며
- 7. 그 정액은 등뼈와 늑골 사이  
에서<sup>1)</sup> 나오는 것이라
- 8. 이렇듯 하나님은 그 인간을  
부활케 하실 수 있으시며<sup>1)</sup>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وَالسَّمَاءِ وَالطَّارِقِ ۝

وَمَا أَدْرَاكَ مَا الطَّارِقُ ۝

النَّجْمُ الثَّاقِبُ ۝

إِنْ كُلُّ نَفْسٍ لَنَا عَلَيْهَا حَافِظٌ ۝

فَلْيَنْظُرِ الْإِنْسَانُ مِمَّ خُلِقَ ۝

خُلِقَ مِنْ مَّاءٍ دَافِقٍ ۝

يَخْرُجُ مِنْ بَيْنِ الصُّلْبِ وَالتَّرَائِبِ ۝

إِنَّهُ عَلَى رَجْعِهِ لَقَادِرٌ ۝

1-1) "따리끄"는 별들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밤에 나타났다가 낮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밤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따리끄"라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44).

3-1) 태양, 달, 별들과 그것들의 운행에 관하여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것들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강조하며 주기 위한 것으로 본다(루흐 알마아니 97/30).

4-1) 인간의 모든 선과 악의 행위의 결과물 기록하는 천사 모든 인간에게는 보내어져 인간을 감시하는 자가 있다고 이브누 까씨르의 덧붙이고 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629/3).

7-1) 등뼈와 늑골은 남자와 여자의 몸이 비유되어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꾸라어휘 해설, p.416).

8-1) 태초에 무에서 인간을 창조한 후 그 창조된 인간의 정액으로부터 인간을 창조하도록 하셨듯이 죽은 후에도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86.쑤-라트 따-리끄 ( Sūrat Ṭāriq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āhi arRahmān arRahīm

01. 왓 싸마-이 왓 따-리끼

Wa Samā'i Wa Ṭāriqi

02. 와 마 아드라-카 마 따-리꾸

Wa Mā 'Adrāka Mā Ṭāriqu

03. 안나즈무 싸-끼부

Annajmu Thāqibu

04. 인나 쿨루 낯썌 람마 알라이하 하-피준

'Inna Kullu Nafsin Lamma 'Alayha Ḥāfizun

05. 팔 얀주릴 인싸-누 mim마 쿨리카

Fal Yanzuril 'Insānu Mimma Khuliqa

06. 쿨리카 민 마-인 다-피긴

Khuliqa Min Mā'in Dāfiqin

07. 야크루주 민 바이낫 쏠비 와 타라-이비

Yakhruju Min Bayna Ṣulbi Wa Tarā'ibi

08. 인나후 알라 라즈이히 라 까-디룬

'Innahu 'Ala Raj'ihi La Qādirun

9. 숨겨진 모든 것들이<sup>1)</sup>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날

يَوْمَ تُبْلَى السَّرَائِرُ ﴿٩﴾

10. 인간은 아무런 힘도 그리고 구원자도 없노라

فَمَا لَهُ مِنْ قُوَّةٍ وَلَا نَاصِرٍ ﴿١٠﴾

11. 비를 보내는<sup>1)</sup> 하늘을 두고 맹세하사

وَالسَّمَاءِ ذَاتِ الرَّجْمِ ﴿١١﴾

12. 식물을 싹트게 하는 대지를 두고 맹세하나니<sup>1)</sup>

وَالْأَرْضِ ذَاتِ الصَّدَعِ ﴿١٢﴾

13. 실로 이것은<sup>1)</sup> 선악을 구별하는 말씀으로

إِنَّهُ لَقَوْلُ فَضْلٍ ﴿١٣﴾

14. 농담을 위한 것이 아니라

وَمَا هُوَ إِلَّا هُزْلٌ ﴿١٤﴾

15. 음모하는 그들에게

إِنَّمَا يَكِيدُونَ كَيْدًا ﴿١٥﴾

16. 내가 방책을 세워 두었으니

وَإَكِيدُ كَيْدًا ﴿١٦﴾

17. 잠시 불신자들을 그대로 두라 얼마후에 그들을 벌하리라

فَسَبِّحْ الْكَلْبَرِينَ أَمْهَلُهُمْ ذُرِّيَّةً ﴿١٧﴾

9-1)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비밀

11-1) 라즈오 : 하늘에서 대지로 계속해서 보내어지는 비(꾸란 어휘해설, p.416).

12-1) 비를 내리는 하늘과 그 비를 받아 모든 식물과 열매를 생산해 내는 대지를 비유하사 정액을 보내는 아버지와 그 정액을 받아 자손을 번성케 하는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다(사프와트 타 파씨르, 제20권 p.45).

13-1) 꾸란

09. 야우마 투블라 싸라-이루  
Yawma Tubla Sarā'iru
10. 파마 라후 민 꾸우와틴 알라 나-쉬린  
FaMā Lahu Min Qwwatin WaLā Nāṣirin
11. 왓 싸마-이 다-틸 라즈이  
Wa Samā'i Zātil Raj'i
12. 왈 아르디 다-티 쇠드이  
Wal' Ardhi Zāti Ṣad'i
13. 인나후 라 까울룬 파슬룬  
'Innahu La Qawlun Faṣlun
14. 와 마 후와 빌 hazli  
Wa Mā Huwa Bil Hazli
15. 인나훔 야키-두-나 카이단  
'Innahum Yakidūna Kaydan
16. 와 아키-두 카이단  
Wa 'Akīdu Kaydan
17. 파 마흐힐릴 카-피리-나 암힐훔 루와이다  
Fa Mahhilil Kāfirīna 'Amhilhum Ruwayda
-





## 제87장 아 을 라

메카에서 계시된 19절로 하나님 속성의 일면을 다루고 있다. 제일 위에 존재하시며 능력과 유일성에 대한 예증,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를 내리어 그것을 암송하기에 쉽게 하였으며, 꾸란의 교훈은 마음이 살아 있는 사람들이 유용하는 것으로 그들은 곧 행복과 믿음의 가족들이라는 것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본 장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여야 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사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어 주시고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언급하고 있다.

꾸란을 계시하여 주신 후 그것을 암기하기에 쉽도록 하였으며 꾸란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복이되고 빛이 되도록 하였다는 교훈을 제시한 후 모든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청결케 하고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이들에게는 위대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가장 위에 계시는 그대 주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에서 언급되고 있는 어휘 「아을라」에서 기인된 것으로 본다.

제 87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 1. 가장 위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라<sup>1)</sup>
- 2.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사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으셨으며
- 3. 모든 것에 특징을 두사 그것으로 유용케 하였으며<sup>1)</sup>
- 4. 그분은 목초를 생성케 하시고
- 5. 그것을 갈색의 마른 풀로 하 시도다
- 6.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을 계시하니 암기하여 잊지 말라
- 7.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제외라<sup>1)</sup> 실로 그분은 있는 것과 숨겨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 8. 하나님은 그것이 그대에게 쉽도록 하여 주었으니<sup>1)</sup>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یْمِ

سَبِّحْ اسْمَ رَبِّكَ الْأَعْلَى ۝

الَّذِي خَلَقَ قَتَوَى ۝

وَالَّذِي قَدَّرَ فَهَدَى ۝

وَالَّذِي أَحْرَجَ الْمَرْعَى ۝

فَجَعَلَهُ عُتْقَى ۝

سَتَرْنَاكَ فَلَئِمْنَا ۝

إِلَّا نَأْتِيَنَّكَ اللَّهُ إِنَّهُ بِعَمَلِ الْجَهْرِ وَمَا يَخْفَى ۝

وَنَبِّئُكَ لِلْيَمِينِ ۝

1-1) 본 절을 읽고 수브하나 랍비알 아올라(가장 위에 계신 나의 주님께 영광이 있으소서)를 말하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상기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디쓰는 전하고 있다.

3-1) 가축에는 가축의 기능을 주고, 식물에는 식물의 기능을 주며 광물에는 광물의 효용을 주어 인간으로 하여금 유용하게 하도록 하였다. 모든 피조물과 동물에게 각자가 해야할 일을 결정하고 그것들을 유용하도록 인도하였다는 뜻으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후호 알아니 104/30 및 알타스릴 리울롬 알탄질 193/4).

7-1) 이 절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한 기적으로 그는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문맹자이었으나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전하여 준 모든 것을 잊지 아니하고 암송하였다. 이것은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가 계시를 읽되 그것을 잊지 아니하니라"라고 약속을 하셨다(무크타사르 이브누 까씨르 630/3).

8-1) 가장 쉬운 하늘의 율법 즉 샤리아법으로 하여 주리니

87.쑤-라틀 아을라 ( Sūratul 'A'la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âhi arRahmān arRahīm

01. 썽비히 이쓰마 랍비칼 아을라

Sabbihi Isma Rabbikal 'A'la

02. 알라지 칼라까 파 싸우와

Alzi Khalaqa Fa Sawwa

03. 왈라지 깎다라 파 하다

WalLazi Qaddara Fa hada

04. 왈라지 아크라잘 마르아

WalLazi 'Akhrajal Mar'a

05. 파 자알라후 구싸-안 아흐와

Fa Ja'alahu Guthā'an 'Aḥwa

06. 싸 누끄리우카 팔라 탄싸

Sa Nuqri'uka FaLā Tansa

07. 일라 마 샤-알라후 인나후 야을라물 자흐라 와마

'illā Mā Shā'alLāhu 'Innahu Ya'lamul Jahra WaMā

야크파

Yakhfa

08. 와 누얏씨루카 릴 유쓰라

Wa Nuyassiruka Lil Yusra



<p>9. 그 교훈을 전달하여 듣는 자들에게 유익하도록 하라</p>	<p>فَذَكِّرْ اِنْ نَفَعَتِ الذِّكْرٰى ۝٩</p>
<p>10.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자들은 그 교훈을 받아들일 것이며</p>	<p>سَيَذَكِّرْ مَنْ يَّرْهٰى ۝١٠</p>
<p>11. 불행한 불신자들은 그것을 회피하니</p>	<p>وَيَجْتَنِبُهَا الْاٰسَفٰى ۝١١</p>
<p>12. 큰 불지옥으로 들어가<sup>1)</sup></p>	<p>الَّذِى يَصَلِّ الْكَافِرِ الْكَبِىْرِ ۝١٢</p>
<p>13. 그곳에서 죽지도 아니하고 살지도 못하리라<sup>1)</sup></p>	<p>لَمْ يَمُوتْ فِيْهَا وَلَا يَحْيٰى ۝١٣</p>
<p>14. 그러나 스스로를 청결케 한 자 변성하리니</p>	<p>فَاَذْكُرْ مَنْ تَزَكٰى ۝١٤</p>
<p>15.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기도하라</p>	<p>وَذَكَرْ اسْمَ رَبِّهِ تَصَلِّ ۝١٥</p>
<p>16. 그래도 너희가 현세의 삶을 좋아하니</p>	<p>بِئْسَ تُؤْمِرُوْنَ الْحَيٰوةَ الدُّنْيَا ۝١٦</p>
<p>17. 내세가 더 좋으며 영원하리라</p>	<p>وَالْآخِرَةُ خَيْرٌ مِّنْ اٰتٰى ۝١٧</p>
<p>18. 실로 이것은 옛 성서에도 계시되어 있으며</p>	<p>اِنَّ هٰذَا لَفِى الصُّحُفِ الْاُوْلٰى ۝١٨</p>
<p>19. 아브라함과 모세의 성서에도<sup>1)</sup> 그러하니라</p>	<p>صُحُفِ اِبْرٰهِيْمَ وَمُوْسٰى ۝١٩</p>

12-1) 큰불은 최후의 불지옥 즉 내세의 불지옥이며 작은 불은 현세의 불이라고 하싼은 말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드 459/8).

13-1) 죽지도 아니하니 쉬지도 못하며 끊임없이 요동스러운 용벌속에서 있게 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48).

19-1) 모세의 수호프는 구약성서(타우라)가 아니라 10편의 수호프로 모두가 이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아부 다르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질문하길, “모세의 수호프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것 모두는 이브리어로 되어 있다”라고 선지자께서 대답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48).

09. 파 작키르 인 나파아티 지크라  
Fa Zakkir 'In Nafa'ati Zikra
10. 싸 야작카루 만 야크샤  
Sa Yazakkaru Man Yakhsha
11. 와 야타잔나부할 아쉬까  
Wa Yatajannabuhāl 'Ashqa
12. 알라지 야슬란 나-칼 쿠브라  
Alzi Yaşlan Nāral Kubra
13. 쏘마 라 야무-투 피-하 왈라 야흐야  
Thumma La Yamūtu Fiha WaLa Yaḥya
14. 까드 아플라하 만 타작카  
Qad 'Aflaha Man Tazakka
15. 와 자카라 이쓰마 랍비히 파 썰라  
Wa Zakara Isma Rabbihi Fa Şalla
16. 발 투으씨루-날 하야-타 둔야  
Bal Tu'thirūnal Ḥayāta Dunya
17. 왈 아키라투 카이룬 와 아브까  
Wal' Akhīratu Khayrun Wa' Abqa
18. 인나 하-다 라피 수우필 울-라  
'Inna Hāza LaFi Şuḥufil 'Ūla
19. 수후피 이브라-히-마 와 무-사  
Şuḥufi 'Ibrāhīma Wa Musa
-





## 제88장 가쉬야

메카에서 계시된 26절로 부활의 양상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불신자들이 직면할 고통과 응벌 그리고 믿음으로 선을 실천한 의로운 자들이 만끽하게 될 행복과 축복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장은 부활의 날에 있을 재앙에 관한 소식을 시작으로 낙타와 하늘과 산들과 대지를 창조하시되 각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능에 따라 운행하니 만유의 주님으로써, 그리고 창조와 능력과 어느 무엇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귀의하여 그 인간이 행한 선악의 업적에 따라 계산을 받는다는 계시를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저항 할 수 없는 재앙의 소식이 그대에게 이르렀느냐? 에서 언급된 「가쉬야」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제 88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저항할 수 없는 재앙의 소식  
이 그대에게 이르렀느냐<sup>1)</sup>
2. 그날 굴욕을 맛볼 얼굴들이  
있나니
3. 심한 노동으로 지친 상태에서<sup>1)</sup>
4. 그들이 불지옥으로 들어가니<sup>1)</sup>
5. 끓고 있는 화염의 물을 마시  
게 되도다
6. 모진 가시 외에는 그들을 위  
한 음식도 없으니<sup>1)</sup>
7. 영양이 없어 굶주림에 무익할  
뿐이라
8. 그러나 그날 기쁨을 만끽할  
얼굴들이 있나니
9. 그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기뻐  
하며<sup>1)</sup>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هَلْ أَتَاكَ حَدِيثُ الْغَاشِيَةِ ۝١

وَجُودًا يُؤْمِدُ غَاشِيَةً ۝٢

عَابِلَةً نَّاصِبَةً ۝٣

تَضَلَّى نَارًا حَامِيَةً ۝٤

تُسْقَى مِنْ عَيْنٍ آبِيَةٍ ۝٥

لَيْسَ لَهُمْ طَعَامٌ إِلَّا مِنْ صَرِيمٍ ۝٦

لَا يَسْمِنُونَ وَلَا يُغْنِي عَنْهُمْ كُفْرُهُمْ ۝٧

وَجُودًا يُؤْمِدُ غَاشِيَةً ۝٨

لَسَعِيهَا رَاضِيَةً ۝٩

- 1-1) 가쉬야 : 공포와 재앙이 모든 인간을 에워싸는 부활, 공포와 재앙이 모든 피조물을 에워싼다는 뜻에서 가쉬야라 부르게 되었다고 해설가들은 말하고 있다.
- 3-1) 식사술을 끓고 불지옥으로 갈때의 고통과 노동
- 4-1) 우마르 이븐 카탐이 삼지에 왔을 때 나이가 많고 얼굴이 새까만 한 장로가 우마르에게 왔다. 그 사람을 본 우마르는 울어버렸다. 이때,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여! 무엇이 그대를 울리느냐? 그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들려왔다. 이때 우마르는, "심한 노동으로 지친상태에서 불지옥으로 들어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그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바라는 울었소"라고 대답하였다(무크타사르 이브누 까씨르 632/3).
- 6-1) 다리오 : 가시가 많은 식물로 꾸라이쉬 족은 그것을 "샤브리끄"라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불결하고 가장 불쾌한 음식을 가르킨다(무크타사르 이브누 까씨르 632/3). 불지옥에 들어가는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은 다리오, 자꿈 그리고 기셀린 등이 있을 뿐이다.
- 9-1) 현세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선을 실천하였던 의로운 이들

88.쑤-라틀 가-쉬야 ( Sūratul Gāshiya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āhi arRahmān arRahīm

01. 할 아타-카 하디-쑤 가-쉬야티  
Hal Atāka Ḥadithul Gāshiyati
  02. 우주-훈 야우마이딘 카-쉬야툼  
Wujūhun Yawma'izin Khāshi'atun
  03. 아-밀라툼 나-시바툼  
'Āmilatun Nāṣibatun
  04. 타슬라 나-란 하-미야탄  
Tasla Nāran Ḥāmiyatan
  05. 투쓰까 민 아이닌 아-니야틴  
Tusqa Min 'Aynin 'Āniyatin
  06. 라이싸 라훴 짜아-문 일라 민 짜리-인  
Laysa Lahum Ṭa'āmun 'illa Min Dharī'in
  07. 라 유쓰미누 왈라 유그니 민 주-인  
La Yusminu WaLa Yugni Min Jū'in
  08. 우주-훈 야우마이딘 나-이마툼  
Wujūhun Yawma'izin Nā'imatun
  09. 리 싸으이하 라-디야툼  
Li Sa'yiha Rādhiyatun
-

10. 높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매	فِي جَنَّةٍ عَالِيَةٍ ۝١٠
11. 그들은 무익한 말한마디 듣지 아니하며 <sup>11)</sup>	لَا تَسْمَعُ فِيهَا لَغْوَةً ۝١١
12. 그곳에는 흐르는 샘물이 있고	فِيهَا عَيْنٌ جَارِيَةٌ ۝١٢
13. 높은 곳에 있는 안락 의자에 앉으니 <sup>12)</sup>	فِيهَا سُرُورٌ مَّرْفُوعَةٌ ۝١٣
14. 이미 준비된 잔들이 있노라	وَالْكَؤُوبُ مَوْضُوعَةٌ ۝١٤
15. 안락한 베개들이 줄지어 있고	وَتَسَامِرٌ مَّقْفُوعَةٌ ۝١٥
16. 화려한 용단이 펼쳐져 있노라	وَدَّرَائِمٌ مَّبْنُوتَةٌ ۝١٦
17. 낙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들은 숙고하지 않느뇨	أَفَلَا يَنْظُرُونَ إِلَى الْإِبِلِ كَيْفَ خُلِقَتْ ۝١٧
18. 하늘은 어떻게 높이 올려졌으며	وَاللَّيْلِ السَّمَاءِ كَيْفَ رُفِعَتْ ۝١٨
19. 산들은 어떻게 고정되었고	وَدَالِ الْجِبَالِ كَيْفَ نُصِبَتْ ۝١٩
20. 대지는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숙고하지 않느뇨	وَاللَّيْلِ الْأَرْضِ كَيْفَ سُطِحَتْ ۝٢٠
21. 경고하라 실로 그대는 경고자일 뿐으로	فَذَكِّرْ إِنَّمَا أَنْتَ مُذَكِّرٌ ۝٢١
22. 인간을 감독하며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sup>13)</sup>	لَسْتَ عَلَيْهِمْ بِمُضَيِّطٍ ۝٢٢

11-1)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말이나 허황된 어떤 말도 듣지 아니한다고 이브누 압바쓰는 말하고 있다(타파씨르 알따브리 104/30).  
 13-1)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들이 그 의자에 앉으려 원할때는 그 의자는 그에게 순종한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633/3).  
 22-1) 인간을 감독 지휘하고 믿음을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되 믿음을 갖고 선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믿음을 불신한 죄인들에게는 불지옥의 용벌을 경고하는 경고자라는 것.

10. 피 잔나틴 알-리야툼  
Fi Jannatun 'Āliyatun
11. 라 타쓰마우 피-하 라-기야탄  
Lā Tasma'u Fīha Lāgiyatan
12. 피-하 아이눈 자-리야툼  
Fīha 'Aynun Jāriyatun
13. 피하 쑤루룬 마르푸-아툼  
Fiha Sururun Marfū'atun
14. 와 아크와-분 마우두-아툼  
Wa 'Akwābun Mawdhū'atun
15. 와 нама-리꾸 마스푸-파툼  
Wa Namāriqu Masfūfatun
16. 와 자라-비이유 마브쑤-싸툼  
Wa Zarābiyyu Mabthūthatun
17. 아팔라 얀주루-나 일랄 이빌리 카이파 쿨리카트  
'AFalā Yanzurūna 'ilal 'Ibili Kayfa Khuliqat
18. 와 일라 싸마-이 카이파 루피아트  
Wa 'ila Samā'i Kayfa Rufi'at
19. 와 일랄 지발-리 카이파 누시바트  
Wa 'ilal Jibāli Kayfa Nuṣibat
20. 와 일랄 아르디 카이파 쑤띠하트  
Wa 'ilal 'Ardhi Kayfa Sutihat
21. 파 작키르 인나마 안타 무작키룬  
Fa Zakkir 'Innama 'Anta Muḏakkirun
22. 라쓰타 알라이힘 비 무싸이띠린  
Lasta 'Alayhim Bi Muṣaytirin



23. 그러나 외면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자 있다면

إِلَّا مَنْ تَوَلَّى وَكَفَرَ ۝

24.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벌을  
내리실 것이요

فَيَعَذِّبُهُ اللَّهُ الْعَذَابَ الْأَكْبَرَ ۝

25.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하  
니

إِنَّ الْبَيْنَنَا إِيَّاهُمْ ۝

26. 그들을 불러 계산하리라

ثُمَّ إِنَّ عَلَيْنَا حِسَابَهُمْ ۝

23. 일라 만 타왈라 와 카파라  
 'illā Man Tawalla Wa Kafara
24. 파 유앗지부홀라-홀 아자-발 아크바라  
 Fa Yu'aẓẓibuhulLâhul 'Azābal 'Akbara
25. 인나 일라이나 이야-바흠  
 'Inna 'ilayna 'iyābahum
26. 쉼마 인나 알라이나 히싸-바흠  
 Thumma 'Inna 'Alayna Hisābahum
-





## 제89장 파즈르

메카에서 계시된 30절로 다음 세가지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역한 백성들—아드, 사무드 그리고 파라오 백성—에 관한 이야기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여러가지의 응벌을 내려 멸망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현세에 사는 인간들을 시험하사 때로는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감사하도록 시험하고 때로는 여러가지 시련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며 하나님께 구원하도록 시험하신다는 교훈을 제시한 후 내세와 그 양상, 부활의 날 행복할 인간과 불행하게 될 인간을 구별하는 계시를 마지막으로 본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1절의 “새벽의 여명기를 두고 맹세하사”에서 언급된 「파즈르」의 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제 89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1. 새벽의 여명기를 두고 맹세하  
사

وَالْفَجْرِ

2. 열흘 동안의 밤을 두고 맹세  
하며<sup>1)</sup>

وَاللَّيْلِ عَشْرٍ

3. 짝수와 홀수를 두고 맹세하며<sup>1)</sup>

وَالشَّمْعِ وَالْوَتْرِ

4. 사라지는 밤을 두고 맹세하니

وَأَكْبَلَ إِذَا بَلَغَ

5. 실로 그 안에는 이해하는 자  
들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مَنْ فِي ذَلِكَ قَسَمٌ لِذِي حَجْرِ

6. 주님께서 아드 백성에 행한  
이야기와<sup>1)</sup>

أَلَمْ تَرَ كَيْفَ فَعَلَ رَبُّكَ بِعَادٍ

7. 높은 빌딩을 소유한 이람의  
백성에 관한 얘기를 아느냐<sup>1)</sup>

إِرمَ دَاتِ الْعِمَادِ

8. 그와 같은 힘센 백성이 대지  
위에서 창조된 적이 없었노라<sup>1)</sup>

الَّتِي لَمْ يُخْلَقْ مِثْلُهَا فِي الْبِلَادِ

2-1) 하지달 1일부터 시작되는 10일간의 밤은 축복받은 밤으로 성지순례의 예식을 행하는 기간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55).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의로운 날 가운데 이날들이 있나니 하지 달 열흘이라(부카리)"

3-1) 홀로 있는 것과 자용으로 있는 것이 있나니 창조주와 피조물이라. 모든 피조물은 암컷과 수컷 그리고 음과 양의 짝으로 되어 있으나 창조주 하나님만을 홀로 존재하신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55).

6-1) 제7장 65절 참조

7-1) 오만과 하드라 마우트 사이에서 거주했던 백성

8-1) 메카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로써 그들 백성처럼 강했던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멸망케 되었는데 하물며 허약한 메카 불신자들을 멸망케 하기로 말할 필요도 없이 쉽다는 것이다. 아드 백성들에게 선지자 후드를 보냈으나 이들 백성들이 거역하여 오만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케 하여 후 세대를 위한 교훈으로 하였다.

89.쭈-라툴 파즈르 ( Sūratul Fazr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āhi arRahmān arRahīm

01. 왈 파즈리

Wal Fazri

02. 와 라얄-린 아쉬린

Wa Layālin ‘Ashrin

03. 와 샤프이 왈 와트리

Wa Shaf‘i Wal Watri

04. 왈 라일리 이다 야쓰리

Wal Layli ‘Izā Yasri

05. 할 피 달-리카 까싸문 리지 히즈린

Hal Fi Zālika Qasamun Lizi Hīzrin

06. 알람 타라 카이파 파알라 랍부카 비 아-딘

‘ALam Tara Kayfa Fa‘ala Rabbuka Bi‘ Ādin

07. 이라마 다-틸 이마-디

‘Irama Zātil ‘Imādi

08. 알라티 람 유클라끄 미슬루하 필 빌라-디

Alati Lam Yukhlaqu Mithluha Fil Bilādi

9. 산의 바위로 계곡에 집을 세운 사무드 백성의 이야기와<sup>1)</sup>

وَصَوْدَ الَّذِينَ جَابُوا الصَّخْرَةَ بِالْوَادِ ۝٩

10. 강한 군대를<sup>1)</sup> 가진 오만한 파라오의 이야기를 아느노

وَفِرْعَوْنَ ذِي الْأَوْتَادِ ۝١٠

11. 실로 이들 모두는<sup>1)</sup> 도읍에서 죄악을 낳고

الَّذِينَ طَعَفُوا فِي الْمَلَكِ ۝١١

12. 그곳에서 해악을 더해만 갔으니

فَأَكْثَرُوا فِيهَا الْفَسَادَ ۝١٢

13. 주님께서 그들 위에 여러가지의 응벌을<sup>1)</sup> 내렸노라

فَصَبَّ عَلَيْهِمْ رَبُّكَ سَوْطَ عَذَابٍ ۝١٣

14. 실로 그대 주님은 항상 감시하고 계시니라<sup>1)</sup>

إِنَّ رَبَّكَ لَيَاصْرِصُكَ ۝١٤

15. 주님께서 인간을 시험삼아 명예와 은혜를 베풀면 이것은 주께서 내게 영광을 주시었노라 하더라

فَأَمَّا الْإِنْسَانُ إِذَا مَا ابْتَلَاهُ رَبُّهُ فَأَكْرَمَهُ وَنَعَّمَهُ ۖ  
فَيَقُولُ رَبِّي أَكْرَمَنِ ۝١٥

16. 그분께서 일용할 양식을 감소하실 때면 주께서 나를 처량하게 만드시도다 말하고 있으나<sup>1)</sup>

وَأَمَّا إِذَا مَا ابْتَلَاهُ فَقَدَرَ عَلَيْهِ رِزْقَهُ ۖ فَيَقُولُ رَبِّي  
أَمَّانِي ۝١٦

9-1) 최초로 돌을 빚어 집을 지은 부족이 사무드 부족으로써 이들은 돌을 다듬어 그들의 집을 지었는데 1700개의 도읍을 모두 돌로써 그 고을 계곡에 지었다고 전하여 지고 있다(타파씨르 알꾸르투비 48/19, 알바흐르 알무히드 470/8).

10-1) 많은 군대와 필요한 군수품이 풍성하여 힘이 강한 것을 아우파드(기둥들)로 표현하고 있다고 아부 싸우드는 말하고 있다(타파씨르 아비 알싸우-드 262/5).

11-1) 아드, 사무드 및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

13-1) 아드 백성은 강한 폭풍으로써, 사무드 백성은 광음으로써, 파라오 백성은 그의 군대를 익사케 하여 멸망케 했다.

14-1) 미르씨드 : 관측하는 곳, 관측소란 언어적 뜻을 갖고 있으나 본질의 의미는 모든 인간의 행위와 업적을 감시하고 계심으로 메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경고이다(알타스릴 리울룸 알탄질 197/4).

16-1)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는 그들의 능력과 행운으로 얻은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들은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타파씨르 알꾸르투비 51/19).

09. 와 싸무-달 라지-나 자-부 사크라 빌 와-디  
 Wa Thamūdal Lazīna Jābū Ṣakhra Bil Wādi
10. 와 피르아우나 딜 아우타-디  
 Wa Fir'awna Zil 'Awtādi
11. 알리지-나 빠가우 필 빌라-디  
 Alazīna Ṭagaw Fil Bilādi
12. 파 아크싸루 피-할 파싸-다  
 Fa 'Aktharū Fīhal Fasāda
13. 파 삼바 알라이힘 랍부카 싸우따 아자-빈  
 Fa Ṣabba 'Alayhim Rabbuka Sawṭa 'Azābin
14. 인나 랍바카 라 빌 미르쇄-디  
 'Inna Rabbaka La Bil Mirṣādi
15. 파암말 인싸-누 이다 마 이브탈라-후 랍부후 파  
 Fa 'Ammal 'Insānu 'Izā Mā Ibtalāhu Rabbuhu Fa  
 아크라마후 와 나오아마후 파 야꿀-루 랍비 아크라마니  
 'Akramahu Wa Na' 'amahu Fa Yaqūlu Rabbi 'Akramani
16. 와 암마 이다 마 이브탈라-후 파 까다라 알라이히  
 Wa 'Amma 'Izā Mā Iftalāhu Fa Qadara 'Alayhi  
 리즈까후 파 야꿀-루 랍비 아하-나니  
 Rizqahu Fa Yaqūlu Rabbi 'Ahānani
-



17. 그렇지 아니함이라 너희는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했  
으며

كَلَّا بَلْ لَّا تَكْرُمُونَ الْيَتَامَىٰ ۝

18.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제  
공함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지  
아니하며

وَلَا تَحْضُونَ عَلَىٰ طَعَامِ الْمُسْكِينِ ۝

19. 오히려 너희는 욕심을 내어  
그들의 유산을 삼키고

وَتَأْكُلُونَ التَّرَاثِيَ أَكْلًا نَّكَا ۝

20. 오만하게 재물만을 사랑하였  
노라

وَتُحِبُّونَ الْمَالَ حُبًّا جَمًّا ۝

21. 그러나 대지가 산산조각이  
되고<sup>1)</sup>

كَلَّا إِذَا دَاخَتْ الْأَرْضُ دَاخًا دَاكًّا ۝

22. 주님이 임하시고 그분의 천  
사들이 줄지어 나올 때

وَجَاءَ رَبُّكَ وَالْمَلَكُ صَفًّا صَفًّا ۝

23. 그날은 지옥이 나타나니라  
그날 인간은 그의 업적을 상기하  
나 그의 회고가<sup>1)</sup> 어떻게 그를 유  
익하게 하겠느냐

وَجَاءَ يَوْمَئِذٍ يَوْمَئِذٍ بِجَهَنَّمَ يَوْمَئِذٍ يَتَذَكَّرُ الْإِنْسَانُ  
وَأَنَّىٰ لَهُ الذِّكْرَىٰ ۝

24. 그때야 인간은 내 미래의 생  
을 위하여 선행을 했어야 했는데  
라고 한탄하여 말하나

يَقُولُ يَلَيْتَنِي قَدَّمْتُ لِحَيَاتِي ۝

25. 그날은 어느 누구도 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벌만이 있을 것  
이라

يَوْمَئِذٍ لَا يُعَذِّبُ عَذَابَهُ أَحَدٌ ۝

26.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분의 속박이 있으리라

وَلَا يُؤْتِيهِمْ وَتَاقَةً أَحَدٌ ۝

27. 의로운 영혼들에게는 영혼들

يَأْتِيهَا النَّفْسُ النُّطْمِنَةُ ۝

21-1) 지진으로 모든 건물이 파괴되어 사라질 때(타프씨르 잘랄라인 318/4)

23-1) 현재에서 인간이 행하였던 그의 모든 업적을 회고하고 회개하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17. 칼라 발 라 투크리무-날 야티-마  
Kallā Bal Lā Tukrimūnal Yatīma
18. 왈라 타한-두-나 알라 따아-밀 미쓰키-니  
WaLa Taḥdhdhuna ‘Ala Ṭa‘āmil Miskīni
19. 와 타으쿨루-나 투라-싸 아클란 람만  
Wa Ta‘kulūna Turatha ‘Aklan Lamman
20. 와 투히부-날 말-라 흠반 잠만  
Wa Tuḥibbunal Māla Ḥubban Jamman
21. 칼라 이다 둑카틸 아르두 닥칸 닥칸  
Kallā ‘Izā Dukkatil ‘Ardhu Dakkan Dakkan
22. 와 자-아 랍부카 왈 말라쿠 샤흐판 샤흐판  
Wa Jā’a Rabbuka Wal Malaku Ṣaffan Ṣaffan
23. 와지아 야우마이딘 비자한나마 야우마이딘  
WaJiy’a Yawma’izin BiJahannama Yawma’izin  
야타작카를 인싸-누 와 만나 라후 디크라  
Yatazakkarul ‘Insānu Wa ‘Anna Lahu Zikra
24. 야꿀-루 야- 라이타니 깎담투 리 하야-티  
Yaqūlu Yā Laytani Qaddamtu Li Hayāti
25. 파 야우마우딘 라 유앗지부 아자-바후 아하둔  
Fa Yawma’izin La Yu‘aẓẓibu ‘Aẓābahu ‘Aḥadun
26. 왈라 유-씨꾸 와 싸-까후 아하둔  
WalLā Yūḥiqu Wa Ṭḥāqahu ‘Aḥadun
27. 야- 아이야투한 낚쓸 무뜨마inna투  
Yā ‘Ayyatuhan Nafsul Mutma’innatu

아 너희는 완전한 휴식과 기쁨속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과

28.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로 돌아가

29. 나와 함께 하는 자들 가운데 들어와

30. 나의 천국으로 들라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

ارْجِعِي إِلَىٰ رَبِّكِ رَاضِيَةً مَّرْضِيَةً ﴿٢٨﴾

فَادْخُلِي فِي عِبَادِي ﴿٢٩﴾

وَادْخُلِي جَنَّاتٍ ﴿٣٠﴾

28. 이르지이 일라 랍비카 라-디야탄 마르디-야탄  
Irji'i 'ila Rabbika Rādh<sup>h</sup>iyatan Mar<sup>h</sup>dhiyyatan
29. 파드쿨리 피 이바-디  
Fadkhuli Fi 'Ibādi
30. 와드쿨리 잔나티  
WaDkhuli Jannati
-





## 제90장 발 라 드

메카에서 계시된 20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과 같은 내용과 목적, 즉 이슬람의 기본 이념과 믿음의 근원 그리고 계산과 보상에 대한 믿음, 의로운 자들과 불신자들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다.

본 장은 메카를 두고 맹세하는 계시를 시작으로 그곳은 선지자의 주거지와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안전한 곳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선지자를 박해하는 불신자들을 경고하고 있다.

메카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진리를 거역하고 선지자 무함마드를 욕되게 하여 선지자에 대항하기 위해 재산을 탕진한 불신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바친 재물이 하나님의 응벌을 막아 줄 것이라 생각한 불신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음,

부활의 양상과 내세에 대한 믿음으로 실천한 선행 외에는 인간의 어떤 것도 수락되지 아니하니 부활의 날에는 믿는 자와 불신자 두 부류로 나누어지며 전자는 천국에 들어갈 행복한 자들이요 후자는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불행한 자들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이 도움을 두고 맹세하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발라드」 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제 90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 1. 이 도움을<sup>1)</sup> 두고 맹세하사
- 2. 그대는 이 도움의 자유로운  
거주인이라<sup>1)</sup>
- 3. 선조와 자손을 두고 맹세하사<sup>1)</sup>
- 4. 실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  
금 노력과 시련속에서 살도록 창  
조하였나니<sup>1)</sup>
- 5. 어느 누구도 불신자를 제압할  
수 없다고 생각 하느뇨<sup>1)</sup>
- 6. 실로 나는 많은 재산을 탕진  
하였습니다<sup>1)</sup> 라고 불신자는 말할  
것이라
- 7. 어느 누구도 그를 지켜보지  
아니한다고 불신자는 생각하느뇨<sup>1)</sup>

لَأَقْسِمُ بِهَذَا الْبَلَدِ

وَأَنْتَ حَلٌّ بِهَذَا الْبَلَدِ

وَالْأَيْدِي مَا وَكَدَ

لَقَدْ خَلَقْنَا الْإِنْسَانَ فِي كَبَدٍ

أَيَحْسَبُ أَنْ لَنْ يُعْجِزَهُ عَلَيْهِ وَاحِدٌ

يَقُولُ أَهْلَكْتُ مَا لَا بَدَأَ

أَيَحْسَبُ أَنْ لَمْ يَرَوْكَ أَحَدٌ

- 1-1) 성역인 메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요람지로 하여 두사 안전한 성역으로 하였으니 하늘과 대지를 창조한 이후부터라(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60).
- 2-1) 축복받은 메카의 성역에 거주하는 축복받은 그곳의 주민이라는 뜻으로 알바위와위는 풀이하고 있다(660/3).
- 3-1)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과 의로운 그의 자손들. 무자히드는 아담과 아담 이후 모든 후예들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640/3). 한편 카진은 아담과 그리고 아담의 후예 중 예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248/4).
- 4-1) 여러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노력하며 살도록 창조했으니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며 젖을 먹이는 일, 일상생활의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노동을 하는 일, 그리고 죽는 것 등(타프씨르 알카-진 248/4). 본 절은 메카 불신자들의 박해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던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절로 아부 싸우드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아비 알싸우드 265/5).
- 5-1) 그들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제압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뇨?
- 6-1)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항하여 많은 재산을 바쳤다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거만하게 말할 것이라
- 7-1)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항하여 그의 재산을 탕진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리라 생각하느뇨?

## 90.쑤-라툴 발라드 ( Sūratul Balad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āhi arRahmān arRahīm

01. 라 우끄씨무 비 하달 발라디  
Lā 'Uqsimu Bi Hazal Baladi
  02. 와 안타 힐룬 비 하달 발라디  
Wa 'Anta Ḥillun Bi Hazal Baladi
  03. 와 왈-리딘 와마 왈라다  
Wa Wālidin WaMā Walada
  04. 라까드 칼라끄날 인싸-나 피 카바딘  
Laqad Khalaqnal 'Insāna Fi Kabadin
  05. 아 야흐싸부 안 란 야끄디라 알라이히 아하둔  
'A Yaḥṣabu 'An Lan Yaqdira 'Alayhi 'Aḥadun
  06. 야꿀-루 아흘라크투 말-란 루바단  
Yaqūlu 'Ahlaktu Mālan Lubadan
  07. 아 야흐싸부 안 람 야라후 아하둔  
'A Yaḥṣabu 'An Lam Yarahu 'Aḥadun
-



8. 하나님이 그에게 두 눈을 주지 아니 했더뇨

أَلَمْ جَعَلْ لَهُ عَيْنَيْنِ ۝٨

9. 하나의 혀와 두 입술을<sup>1)</sup> 주지 아니 했더뇨

وَلِسَانًا وَشَفَتَيْنِ ۝٩

10. 하나님은 그에게 두 길을<sup>1)</sup> 설명하였노라

وَهَدَيْنَاهُ النَّجْدَيْنِ ۝١٠

11. 그는 힘든 길에서 수고하려 아니 하느뇨<sup>1)</sup>

فَلَا اقْتَحَمَ الْعَقَبَةَ ۝١١

12. 그 힘든 길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وَمَا أَدْرَاكَ مَا الْعَقَبَةُ ۝١٢

13. 그것은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일이요

فَكَرَّ رِجْلًا ۝١٣

14.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이며

أَوْ اطْعَمَ عُرْشًا يَوْمَ ذِي سَعْفَةِ ۝١٤

15. 친척의 고아들과

يَتِيمًا ذَا مَعْرَبَةٍ ۝١٥

16. 먼지 투성이가 된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라

أَوْ سَكَّنَا إِذَا مَتَّيْتَهُ ۝١٦

17. 그런 후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인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فَمَنْ كَانَ مِنَ الَّذِينَ آمَنُوا وَتَوَاصَوْا بِالْحَبْرِ وَتَوَاصَوْا بِالْمَرْحَمَةِ ۝١٧

18. 이들만이 우편에 있는 동료들이라<sup>1)</sup>

أُولَئِكَ أَصْحَابُ الْمَيْمَنَةِ ۝١٨

9-1)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며 또한 소리를 내는데 유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에 감사하도록 한 것이다(타프씨르 알카-진 249/4).

10-1) 선과 악의 길, 인도와 방황의 길, 행복과 불행의 길

11-1) 그는 선과 의로운 일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아니하려는가?(꾸란 어휘해설, p.422)

18-1) 천국에 들어갈 의로운 자들

08. 알람 나즈알 라후 아이나이니  
 'ALām Naj'al Lahu 'Aynayni
09. 와 리싸-난 와 샤파타이니  
 Wa Lisanan Wa Shafatayni
10. 와 하다이나-훈 나즈다이니  
 Wa Hadaynāhun Najdayni
11. 팔라 이끄타하말 아까바타  
 FaLā Iqtaḥamal 'Aqabata
12. 와 마 아드라-카 말 아까바투  
 Wa Mā 'Adrāka Māl 'Aqabatu
13. 팔쿠 라까바틴  
 Fakku Raqabatin
14. 아우 이뜨아-문 피 야우민 디 마쓰가바틴  
 'Aw 'It'āmu Fi Yawmin Ḍi Masgabatin
15. 야티-만 다- 마끄라바틴  
 Yatīman Zā Maqrabatin
16. 아우 미쓰키-난 다- 마트라바틴  
 'Aw Miskīnan Ḍā Matrabin
17. 쏘마 카-나 미날 라지-나 아-마누 와 타와-싸우  
 Thumma Kāna Minal Laḏīna 'Amanū Wa Tawāṣaw  
 빗싸브리 와 타와-싸우 빌 마르하마티  
 BiṢabri Wa Tawāṣaw Bil Marḥamati
18. 올라-이카 아스하-불 마이마나티  
 'Uwlā'ika 'Aṣḥābul Maymanati

19.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좌편에 있는 동료들로

20. 그들 위에는 닫혀진 불지옥만이 있을 뿐이라

وَالَّذِينَ كَفَرُوا بِآيَاتِنَا هُمْ أَصْحَابُ الشِّمَّةِ ١٩

عَلَيْهِمْ نَارُ الْمُؤَصَّدَاتِ ٢٠

19. 알라지-나 카파루- 비 아야-티나 훔 아스하-불  
Wal Laḏīna Kafarū Bi 'Ayātina Hum 'Aṣḥābul  
마쉬아마티  
Mash'amati
20. 알라이힘 나-룬 무으사다툼  
'Alayhim Nārun Mu'ṣadatun
-





## 제91장 삼 쓰

메카에서 계시된 15절로 선과 악, 복음과 방황으로써 인간을 시험하는 것과 예언자 살레가 경고로서 암낙타를 살해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를 거역하여 그들이 멸망했던 이야기로써 진리를 거역한 불신자들에게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 가운데서 일곱가지를 들어 맹세하고 있다. 태양과 그것의 빛, 달, 밤, 낮, 하늘, 대지 그리고 인간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외에는 어느 신도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승리한 자요 거역한 자는 실패한 자라는 것을 시작으로 예언자 살레를 거역한 사무드 백성에 관한 이야기로써 하나님께서 예언자 살레로 하여금 기적을 낳게 하여 암낙타를 만들어 불신자들을 위한 하나의 예증이 되도록 하였으나 불신자들은 그 예증을 거역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멸망케 하였다는 교훈을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태양과 그 빛을 두고 맹세하사”에서 언급된 「삼쓰」란 어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 제 91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태양과 그 빛을 두고 맹세하사
2. 그 뒤를 이은 달을 두고 맹세하며<sup>1)</sup>
3. 태양의 영광을 보여주는 낮을 두고 맹세하며
4. 그것을 숨기는 밤을 두고 맹세하며
5. 하늘과 그것을 세운 주님을<sup>1)</sup> 두고 맹세하사
6. 대지와 그것을 펼쳐 놓으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며
7. 인간과 그것을 창조한 주님을 두고 맹세하사
8.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하셨나니<sup>1)</sup>
9. 스스로를 순결하게 하는 자가<sup>1)</sup> 승리자이며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وَالشَّمْسِ وَضُحَاهَا ①

وَالْقَمَرِ إِذَا تَلَّهَا ①

وَالنَّهَارِ إِذَا جَدَّهَا ①

وَاللَّيْلِ إِذَا يَغْشَاهَا ①

وَالسَّمَاءِ وَمَا بَنَاهَا ①

وَالْأَرْضِ وَمَا طَعَاهَا ①

وَنَفْسٍ وَمَا سَوَّاهَا ①

فَأَلَّهَمَّهَا بُجُورَهَا وَتَقْوَاهَا ①

فَذَلَّلْنَاهَا مِنْ رِذْلَاهَا ①

2-1) 빛과 열을 발산하는 태양과 그 빛을 반사하는 달을 두어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크게 유용케 하였다(하쉬야 알싸위 알라 알잘랄라인 323/4).

5-1) 마(Ma) : 관계 대명사로써 만(Man)을 의미한다. 즉 하늘과 그 하늘을 기둥도 없이 세우신 만유의 주 하나님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고 있다(사프와프 타파씨르, 제20권 p64).

8-1) 1절에서 17절까지 언급된 태양, 달, 밤, 낮, 하늘, 대지 그리고 인간 등 일곱가지 요소는 곧 하나님의 능력과 홀로 존재하심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9-1)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스스로의 영혼을 정화하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스스로를 청결케 하는 자

91.쑤-라트 썸쓰 ( Sūrat Shamsh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āhi arRahmān arRahīm

01. 와 썸씨 와 두하-하

Wa Shamshi Wa Dhuḥāha

02. 왈 까마리 이다 탈라-하

Wal Qamari 'Iza Talāha

03. 완 나하-리 이다 잘라-하

Wan Nahāri 'Iḏā Jallāha

04. 왈 라일리 이다 야그와-하

Wal Layli 'Iḏā Yagshāha

05. 왓 싸마-이 와마 바나-하

Wa Samā'i WaMā Banāha

06. 왈 아르디 와마 따하-하

Wal 'Ardhi WaMā Ṭahāha

07. 와 낯썌 와마 싸우와-하

Wa Nafsin WAMā Sawwāha

08. 파 알하마하 푸주-라하 와 타끄와-하

Fa 'Alhamaha Fujūraha Wa Taqwāha

09. 까드 아플라하 만 작카-하

Qad 'Aflaha Man Zakkāha



10. 스스로를 불결하게 하는 자  
실패한 자라

وَقَدَّحَابَ مَنْ دَسَّهَا ⑩

11. 사무드 백성은 그들의 오만  
으로 예언자를 거역하였으매

كَذَّبَتْ شُعْرٌ يُطْقُونَهَا ⑪

12. 그들 중 가장 사악한 자가  
일어섰을 때<sup>1)</sup>

إِذَا بُعِثَ أَشْقَاهَا ⑫

13. 선지자가<sup>1)</sup> 그들에게 말하길  
그것은 하나님의 압낙타이니 그것  
이 물을 마시매 방해하지 말라 하  
였으나

فَقَالَ لَهُمْ رَسُولُ اللَّهِ نَاقَةَ اللَّهِ وَسُقْيَاهَا ⑬

14. 그들은 그를<sup>1)</sup> 거역한 후 그  
압낙타를 살해하였으니 그 최악으  
로 인하여 주님은 그들을 멸망케  
하사 구별없이 완전 멸망케 하셨  
노라

فَلَذَّيْبَةٌ لَعَنَتْهَا قَوْمُهُمَا لِيَمْلِكُنَّ عَلَيْهَا فَذَبُّوا عَنْهَا  
فَسَوَّاهَا ⑭

15. 실로 그분은 그 결과에 대하  
여 조금도 염려하지 아니 하시니라

وَلَا يَخَافُ عُقْبَاهَا ⑮

12-1) 예언자 살라는 하나의 예증 내지는 상징 또는 하나의 시험으로써 압낙타를 만들어, "하나님의 이 압낙타가 너희를 위한 하나의 예증이라. 그러므로 그 낙타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지 위에서 풀을 뜯어 먹은 후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무서운 벌을 받으리라!(제17장 73절 참조)고 말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압낙타를 살해하려 음모를 꾸며 그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자 '까다르 이븐 샨리프'를 보내어 사악한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91).

13-1) 예언자 살레

14-1) 살레

10. 와 까드 카-바 만 닷싸-하  
 Wa Qad Khaba Man Dassāha
11. 캣자바트 싸무-두 비 따그와-하  
 Kazzabat Thamūdu Bi Ṭagwāha
12. 이디 인바아싸 아쉬까-하  
 ‘Izi Inba‘atha ‘Ashqāha
13. 파 깔-라 라흠 라술-롤라-히 나-까탈라-히 와 쑤끄야-하  
 Fa Qāla Lahum RasūlLāhi NāqatalLāhi Wa Suqyāha
14. 파 캣자부-후 파 아까루-하 파 담담다마 알라이힘  
 Fa Kazzabūhu Fa ‘Aqarūha Fa Damdama ‘Alayhim  
 략부흠 비 단비힘 파 싸우와-하  
 Rabbuhum Bi Ṭanbihim Fa Sawwāha
15. 왈라 야카-푸 우끄바-하  
 WalLa Yakhāfu ‘Uqbaha
-





## 제92장 라 일

메카에서 계시된 21절로 인간의 노력에 의한 인생 그리고 최후에는 축복받은 천국이거나 아니면 저주받은 지옥이 최후의 삶이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본 장은 어두워지는 밤과 빛을 비추이는 낮과 그리고 남녀를 창조하고 모든 것에 자웅을 두어 창조하신 주님께 대한 맹세를 시작으로, 행복의 길과 불행의 길, 의로운 것과 불신, 천국의 백성들과 지옥의 백성들에 관하여 이야기 한 후 재물을 사용하되 하나님께 거역하여 사용하는 사용하는 재물은 부활의 날 그에게는 아무런 유용함도 주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후 메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벌과 응벌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선지자를 거역한 자에게는 타오르는 불지옥의 응벌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 한 후

믿는 사람들의 모범 즉 재산을 사용하되 선을 위하여 사용하며 스스로를 정화하는 이 모범은 하나님의 벌에서 제외된다는 교훈을 제시 하면서 종이었던 「빌랄」을 해방시켜준 「아부 바크르 시디끼」의 모범을 예로 들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어두어지는 밤을 두고 맹세하사”에서 언급된 「라일」의 어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제 92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 1. 어두워지는 밤을 두고 맹세하사
- 2. 빛을 비추이는 낮을 두고 맹세하며
- 3. 남녀를 창조하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나니
- 4. 실로 너희들의 행위는 여러가지라
- 5. 자선을 베풀고 두려워 하며<sup>1)</sup>
- 6. 진리를 증언하는 자를 위해<sup>1)</sup>
- 7. 하나님은 그가 축복으로 가는 길을 쉽게 하여 주시노라
- 8. 그러나 인색하고 자기자신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며
- 9. 진리를 거역하는자<sup>1)</sup>
- 10. 하나님은 그가 불행으로 가는 길을 쉽게 하리니
- 11. 그가 지옥으로 향할 때는 그의 재산이 그를 유익하게 못하니라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یْمِ

وَاللَّیْلِ اِذَا غَشَى ۝۱

وَالنَّهَارِ اِذَا تَجَلَّى ۝۲

وَمَا خَلَقَ الذَّكَرَ وَالْاُنثٰی ۝۳

اِنَّ سَعٰیكُمْ لَشَقِیٌّ ۝۴

فَاَمَّا مَنْ اَعْطٰی وَاَنْتَفٰی ۝۵

وَصَدَّقَ بِالْحُسْنٰی ۝۶

فَسَنَنَسِرُهُۥ لِّلْیُسْرِی ۝۷

وَاَمَّا مَنْ بَخِلَ وَاَسْتَفْتٰی ۝۸

وَكَذَّبَ بِالْحُسْنٰی ۝۹

فَسَنَنَسِرُهُۥ لِّلْعُسْرِی ۝۱۰

وَمَا یُعِیْنُ عَنْهُ مَالُهٗ اِذَا تَرَدَّدٰی ۝۱۱

5-1) 하나님께서 자선을 베풀라 명령한 대로 자선을 베풀며 모든 일 하나 하나에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것(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646/3).

6-1)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한 천국을 확증하는 것.

9-1) 천국을 거역하는 자

## 92.쭈-라틀 라일 ( Sūratul Layl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âhi arRahmān arRahīm

01. 왈 라일리 이다 야그샤  
Wal Layli 'Izā Yagsha
  02. 완 나하-리 이다 타잘라  
Wan Nahāri 'Izā Tajalla
  03. 와 마 칼라까 자카라 왈 운싸  
Wa Mā Khalaqa Zakara Wal 'Untha
  04. 인나 싸으야쿰 라 샬타  
'Inna Sa'yakum La Shatta
  05. 파 암마 만 아으뜨 와 일타까  
Fa 'Ammā Man 'A'ta Wa Ittaqa
  06. 와 살다까 빌 후쓰나  
Wa Ṣaddaqa Bil Husna
  07. 파 싸 누얏씨루후 릴 유쓰라  
Fa Sa Nuyassiruhu Lil Yusra
  08. 와 암마 만 바킬라 와쓰타그나  
Wa 'Ammā Man Bakhila Wastagna
  09. 와 캣자바 빌 후쓰나  
Wa Kazzaba Bil Husna
  10. 파 싸 누얏씨루후 릴 우쓰라  
Fa Sa Nuyassiruhu Lil 'Usra
  11. 와마 유그니 안후 말-루후 이다 타랄다  
WaMā Yugni 'Anhu Malūhu 'Izā Taradda
-

12.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إِنَّ عَلَيْنَا لَلْهُدَىٰ ۝١٢

13. 내세와 현세도 그분께 있노라

وَأَنَّ لَنَا لِلْآخِرَةِ وَالْأُولَىٰ ۝١٣

14. 그러므로 내가<sup>1)</sup> 너희에게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지옥을 경고하나니

فَأَذِّنْ لَكُمْ نَارًا تَكْفَلُ ۝١٤

15. 가장 불행한 자들만이 그곳에 이르게 되니라

لَا يَصْلُهَا إِلَّا الْأَشْقَى ۝١٥

16. 그는 바로 진리를 거역하고 외면하는 자라

الَّذِي كَذَّبَ وَتَوَلَّى ۝١٦

17.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그곳으로부터 제외 되거늘

وَسَيَجْعَلُهَا لِلَّذِينَ لَا يُغْنِي عَنْهُمْ كَثْرَتُهُمْ مِنْ شَيْءٍ وَلَا يَحْتَضِرُونَ ۝١٧

18. 이들은 그들의 재산을 바치며 스스로를 순결케 하사

الَّذِي يُؤْتِي مَالَهُ يَتَزَكَّىٰ ۝١٨

19. 그가 베푸는 은혜에 대한 보상을 그의 마음속에 갖지 아니하고<sup>1)</sup>

وَمَا لِأَحَدٍ عِنْدَهُ مِنْ نِعْمَةٍ تُجْزَىٰ ۝١٩

20. 오직 가장 위에 계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로

إِلَّا الْبَتَّةَ وَجِبَّةَ رَبِّهِ الْأَعْلَىٰ ۝٢٠

21. 이들은 곧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وَلَسَوْفَ يَرْضَىٰ ۝٢١

14-1) 하나님

19-1) 이 절은 아부 바크르 시디끼에 관하여 계시된 절로 전하여지고 있다. 「빌랄」은 「움미야 이븐 칼라프」의 노예였다. 그런데 빌랄이 이슬람에 귀의하였다고 하여 주인은 빌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는데 가장 뜨거운 대낮에 밖으로 쫓아내어 메카 바드하 지역에서 동물 땅에 대고 얼굴은 하늘로 향하게 하여 뜨거운 열사에 시달리게 하는가 하면 큰 바위를 가슴에 놓고서 "이러한 벌을 내가 죽을때까지 아니면 무함마드를 불신할 때까지 계속되리라"하였다. 이러한 상태에 있던 빌랄은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라고 말을 하였다. 이때 아부 바크르 시디끼가 그 열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불신자들은 그때까지도 그에게 그러한 박해를 하고 있었다. 이때 아부 바크르는 주인 우미야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오?"라고 하자 그는 "당신이 보다시피 당신이 그로 하여금 나에게 피해를 주도록 하였소"라고 하자 아부 바크르는 빌랄을 사서 그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에 불신자들이 말하길, "실로 아부 바크르가 빌랄을 취방시킨 것은 그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하자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하쉬야 알싸위 알라 알잘랄라인 326/4 또는 타프써르 알카-진 256/4).

12. 인나 알라이나 랄 후다  
 'Inna 'Alayna Lal Huda
13. 와 인나 라나 랄 아키라타 왈 울-라  
 Wa 'Inna Lana Lal' Akhirata Wal 'Ūla
14. 파 안자르투쿰 나-란 탈랏좌  
 Fa 'Anzartukum Naran Talazza
15. 라 야슬라-하 일랄 아쉬까  
 La Yaslāha 'illāl 'Ashqa
16. 알라지 캣자바 와 타왈라  
 Alazi Kazzaba Wa Tawalla
17. 와 싸 유잔나부할 아트까  
 Wa Sa Yujannabuhal 'Atqa
18. 알라지 유으티 말-라후 야타작카  
 Alazi Yu'ti Mālahu Yatazakka
19. 와마 리 아하딘 ऐindahu 민 니으마틴 투즈자  
 WaMā Li' Aḥadin 'Indahu Min Ni'umatin Tuza
20. 일라 이브티가-아 와즈히 랍비힐 아을라  
 'ila Ibtigā'a Wajhi Rabbihil 'A'la
21. 왈라 싸우파 야르되  
 WaLa Saufa Yardha
-







## 제93장 두 하

메카에서 계시된 11절로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현세와 내세에서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은 아침과 저녁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제시하는 계시로 시작하여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베푼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 고아였던 그에게 보호자를 두어 살피게 하고, 가난했던 그를 부유하게 하였으며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어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 한 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고아들을 사랑하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교훈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아침을 두고 맹세하고...”에서 언급된 「두 하」란 어휘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본다.

제 93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 1. 아침을 두고 맹세하고
- 2. 어둠이 짙어지는 밤을 두고 맹세하사<sup>1)</sup>
- 3. 주님께서 그대를 버리지 아니했으며 미워하지도 않으시니라
- 4. 실로 그대에게는 내세가 현재보다 나으리니
- 5. 주님께서 그대에게 은혜를 베풀것이며 그대는 이로하여 기뻐하라
- 6. 그분은 고아인 그대를 발견하여 그대를 보호하지 아니 했더뇨<sup>1)</sup>
- 7. 그분은 방황하는 그대를 발견하여 그대를 인도하지 아니 했더뇨
- 8. 그분은 가난했던 그대를 부유하게 하여 주지 아니 했더뇨
- 9. 그러므로 고아들을 거칠게 대하지말며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وَالضُّحَىٰ ۝

وَاللَّيْلِ إِذَا سَجَىٰ ۝

مَا وَدَّعَكَ رَبُّكَ وَمَا قَلَىٰ ۝

وَلَلْآخِرَةُ خَيْرٌ لَّكَ مِنَ الْأُولَىٰ ۝

وَلَسَوْفَ يُعْطِيكَ رَبُّكَ فَتَرْضَىٰ ۝

أَلَمْ يَجِدْكَ يَتِيمًا فَآوَىٰ ۝

وَوَجَدَكَ ضَالًّا فَهَدَىٰ ۝

وَوَجَدَكَ عَائِلًا فَأَغْنَىٰ ۝

فَأَنذَرْتُكَ الْيَتِيمَ فَلَا تَقْهَرْ ۝

2-1) 아침과 저녁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동이 트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과 그날의 노동을 마치고 어둠이 찾아들어 휴식을 취하는 밤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649/3).

6-1) 어머니 태내에 있을 때 아버지를 잃고 태어나 여섯 달이 되면서 어머니를 잃어 완전한 고아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할아버지 압둘 무탈립으로 하여금 무함마드를 보살피도록 하였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무함마드 나이 8세에 세상을 떠나자 삼촌인 아부 탈립으로 하여금 무함마드를 보살피도록 하였다.

93.쑤-라트 두하 ( Sūrat Dhuḥa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āhi arRahmān arRahīm

01. 왈 두하

Wa Dhuḥa

02. 왈 라일리 이다 싸자

Wal Layli 'Izā Saja

03. 마 왈다야카 랍부카 와마 갈라

Mā Wadda'aka Rabbuka WaMa Qāla

04. 왈 아키라투 카이룬 미날 올라

Wal 'Aḫhiratu Khairun Minal 'Ūla

05. 왈라 싸우파 유으띠-카 랍부카 파 타르되

WaLa Saufa Yu'tīka Rabbuka Fa Tardha

06. 알람 야지드카 야티-만 파 아-와

'ALam Yajidk a Yaṭīman Fa 'Āwa

07. 와 와자다카 왈-란 파 하다

Wa Wajadaka Dhālan Fa Hada

08. 와 와자다카 아-일란 파 아그나

Wa Wajadaka 'Ā'ilan Fa'Agna

09. 파 암말 야티-마 팔라 타끄하르

Fa'Ammal Yatīma FaLā Taqhar

10.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  
고

وَأَمَّا الْكَايِلُ فَلَا تَمْرُقْ ۝

11.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이야  
기 하라<sup>1)</sup>

وَأَتَا بِنِعْمَةِ رَبِّكَ فَحَدِّثْ ۝

11-1) 고아이며 가난하였고 하나님의 법(샤리아)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그대에게 보호자를 두어 보호하게 하였고 가난했던 그대를 부유하게 하였으며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여 행복의 길로 인도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하는 자에게 인색하지 말며 주님께서 그대를 인도하였듯이 인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타파씨르 알울루씨 164/30).

10. 와 암마 싸-일라 팔라 탄하르

Wa 'Ammā Sā'ila FaLā Tanhar

11. 와 암마 비 니으마티 랍비카 파 할디쓰

Wa 'Ammā Bi Ni'mati Rabbika Fa Ḥaddith

---





## 제94장 샤 르 흐

메카에서 계시된 8절로 선지자 무함마드의 위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푼 여러가지 은혜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가슴을 펼쳐 믿음을 넣어주고 지혜로써 마음을 빛나게 하였으며 모든 죄악으로부터 순결케 하고 있다. 이 모든 은혜는 불신자들의 박해를 받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세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선지자 무함마드의 위치를 높이 두었으니 무함마드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비유하였으며, 선지자 무함마드와 믿는 신도들의 선교에 대한 불신자들의 박해에 대하여 고난이 있으되 승리하리라는 계시가 있는 후 그날 일과를 마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에 전념해야 한다는 의무를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하나님이 그대의 마음을 펼치사”에서 언급된 「샤르흐」 어휘로 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 제 94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یْمِ

1. 하나님께서 그대의 마음을 펼치  
사<sup>1)</sup>

اَلَمْ نَشْرَحْ لَكَ صَدْرَكَ ۙ

2. 그대의 무거운 짐을 덜어 주  
었으며<sup>1)</sup>

وَوَضَعْنَا عَنْكَ وِزْرَكَ ۙ

3. 그대의 등에 있는 그 짐은 무  
거운 것 이었노라

الَّذِيْ اَنْقَضَ ظَهْرَكَ ۙ

4. 하나님께서 그대의 위치를 높이  
두었으며

وَرَفَعْنَا لَكَ ذِكْرَكَ ۙ

5. 고난이 있으되 구원을 받을  
것이라<sup>1)</sup>

فَاِنَّ مَعَ الْعُسْرِ يُسْرًا ۙ

6. 실로 고난이 있으되 구원을  
받을 것이라

اِنَّ مَعَ الْعُسْرِ يُسْرًا ۙ

7. 그러므로 쉬지 말고 노력하며

فَاِذَا رَعَيْتَ فَانصَبْ ۙ

8. 주님께 강구하라<sup>1)</sup>

وَالِى رَبِّكَ فَانصَبْ ۙ

1-1) 무함마드의 마음을 열고 믿음과 복음과 꾸란의 빛을 넣어 주었다. 아부 하이얀은 지혜로써 가슴에 빛을 비추고 가슴을 열어 계시를 받도록 하였다고 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브누 압바쓰는 가브리엘 천사가 선지자 무함마드가 어렸을 때 가슴을 넓혔다고 전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바호르 알무히트 487/8).

2-1) 위즈르 : 모든 죄악에 대하여 싸워야 할 무거운 짐과 선지자로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직면하게 될 여러가지 고난

5-1) 메카 불신자들이 선지자와 믿는 신도들에 박해를 가함으로써 선지자와 그분의 추종자들은 어려운 곤경에 있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으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다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75).

8-1) 일상생활의 일이나 업무를 마쳤을 때 주님을 경배하는 진실된 의도와 소망으로써 신앙 생활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브누 카씨르는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씨르 이브누 카씨르 653/3).

94.쭈-라투 샤르흐 ( Sūrat Sharh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âhi arRahmān arRahīm

01. 알람 나쉬라흐 라카 사드라카  
‘ALam Nashrah Laka Sadraka
  02. 와 와되아나 안카 위즈라카  
Wa Wadhā‘na ‘Anka Wizraka
  03. 알라지 안까되 자흐라카  
Alazi ‘Anqadhā Zahraka
  04. 와 라파으나 라카 디크라카  
Wa Rafa‘na Laka Zikraka
  05. 파 인나 마알 우쓰리 유쓰라  
Fa‘Inna Ma‘al ‘Usri Yusra
  06. 인나 마알 우쓰리 유쓰라  
‘Inna Ma‘al ‘Usri Yusra
  07. 파 이다 파라그타 판사브  
Fa ‘Izā Faragta Fanṣab
  08. 와 일라 랍비카 파르가브  
Wa ‘ila Rabbika Fargab
-





## 제95장 틴

메카에서 계시된 8절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푼 은혜와 계산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본 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를 내린 안전하고 성스러운 곳 예루살렘과 시나이산 및 메카를 두고 맹세하는 계시로 시작하여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후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때 가장 비천한 인간이 된다는 교훈을 제시한 후,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모든 예증을 보였으나 이를 거역하고 부활을 조롱한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와,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보상과 불신자들에 대한 응벌을 마지막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무화과와 올리브를 두고 맹세하사”에서 언급된 「틴」이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제 95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무화과와 올리브를 두고 맹세  
하사<sup>1)</sup>

2. 시나이 산을 두고 맹세하며<sup>1)</sup>

3. 안전한 이 도읍을 두고 맹세  
하나니<sup>1)</sup>

4. 하나님은 인간을 제일 아름다  
운 형상으로 빚으신 후

5. 그의 위치를 가장 낮게 하였  
노라<sup>1)</sup>

6.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들은 제외되어 그들에게  
는 끊임없는 보상이 있노라

7. 다가를 심판의 날에 관하여  
그대를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뇨

8. 가장 훌륭한 심판자는 하나님  
이 아니더뇨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والتين والزيتون ①

وطور سينين ②

وهذا البلد الأمين ③

لقد خلقنا الإنسان في أحسن تقويم ④

ثم رددناه أسفل سافلين ⑤

إلا الذين آمنوا وعملوا الصالحات فلهم أجر غير ممنون ⑥

فما يكذبك بعد بالدين ⑦

ليس الله بأحكم الحاكمين ⑧

1-1)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일용할 양식중 2가지에 관하여 이브누 압바쓰는 그 유용성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 그것은 너희들이 먹을 무화과요 올리브는 그것으로 너희가 기름을 만드는 것이라(타프씨르 알꾸르투비 110/19). 아크라마는 무화과와 올리브의 생산지를 두고 맹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무화과는 디마스그에서 그리고 올리브는 예루살렘에서 많이 생산되기 때문이다(알바흐르 알무히뜨 489/8).

2-1)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축복받은 산, 나무와 열매가 많은 모든 산들을 썬년 그리고 썬나이 라고 부른다고 카진은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카-진 266/4).

3-1) 성스러운 메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매 예루살렘으로 보냈고 모세를 보내매 시나이 산으로 보냈으며 무함마드를 보내매 가장 안전하고 성스러운 메카의 도읍으로 보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77).

5-1) 소년시절과 왕성한 청년시절을 거쳐 아주 허약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고 다하크는 풀이하고(타프씨르 알꾸르투비 115/19), 알울루씨는 불신자가 부활의 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가르킨다고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울루-씨 176/30).

95.쭈-라투 틴 ( Sūrat Tīn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liLāhi arRahmān arRahīm

01. 왈 티-니 왈 자이투-니

Wa Tīni Wa Zaytūni

02. 와 뚜-리 씨-니-나

Wa Ṭūri Sīnīna

03. 와 하달 발라딜 아민

Wa Hāzal Baladil 'Amin

04. 라카드 칼라끄날 인싸-나 피 아흐싸니 타끄웁

Laqad Khalaqnal 'Insāna Fi 'Aḥsani Taqwīmīn

05. 쏘마 라다드나-후 아쓰팔라 싸-필리-나

Thumma Radadnāhu 'Asfala Sāfilīna

06. 일랄 라지-나 아-마누 와 아밀루 살-리하-티 파 라흠

'illāl Laḏīna 'Amanu Wa 'Amilū Ṣāliḥāti Fa Lahum  
아즈룬 가이루 마므누-닌

'Ajrun Gayru Mamnūnin

07. 파마 유캇지부카 바으다 비 디-니

FaMā Yukazẓibuka Ba'da Bi Dīni

08. 아 라이쌀라후 비 아흐카밀 하-키미-나

'A LaysalLahu Bi 'Aḥkamil Ḥākīmīna





## 제96장 알라끄

메카에서 계시된 19절로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말씀이 계시되기 시작한 것과 인간이 재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려는 행위, 그리고 선지자 무함마드의 기도생활을 방해하고 금지시키려 했던 아부 자흐의 이야기가 본장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본 장은 선지자 무함마드가 히라 동굴에서 명상에 잠겨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계시된 영원한 기적 꾸란의 메세지가 내려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가진 재물에 만족하고 재물로서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려는 오만하고 거만한 인간이 최후의 목적지인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들이 계산에 의하여 받게 될 보상과 응벌에 관하여 이야기 한 후 오만하고 거만함이 파라오 폭군과 다름없었던 아부 자흐에 대한 이야기로써 이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협하고 그의 기도를 금지하며 우상숭배를 강조한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신앙생활에 더욱 충실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즉 본 장은 읽기와 교육에 대한 촉구를 시작으로 지식과 일을 접근시키기 위해서 기도생활과 신앙생활에 충실할 것을 끝으로 촉구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2절의 “하나님은 한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노라”에서 언급된 「알라끄」란 어휘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본다. 또한 제1절의 “만물을 창조한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읽어라”에서 언급된 「이끄라」란 어휘로부터 기인되어 “이끄라”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79).



제 96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  
으로 읽으라<sup>1)</sup>

2. 그분은 한방울의 정액으로 인  
간을 창조하셨노라

3. 읽으라 주님은 가장 은혜로운  
분으로

4. 연필로 쓰는 것을 가르쳐 주  
셨으며

5.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도 가  
르쳐 주셨노라<sup>1)</sup>

6. 그러나 인간은 오만하여 범주  
를 넘어서

7. 스스로 충만하다 생각하도다<sup>1)</sup>

8. 실로 모든 인간은 주님께로  
귀의하노라

9. 기도를 금지한 자를 보았노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إِنشَاءً بِاسْمِ رَبِّكَ الَّذِي خَلَقَ ۝

خَلَقَ الْإِنسَانَ مِنْ عَلَقٍ ۝

إِنشَاءً أَوْ رَبِّكَ الْأَكْرَمِ ۝

الَّذِي عَلَّمَ بِالْقَلَمِ ۝

عَلَّمَ الْإِنسَانَ مَا لَمْ يَعْلَم ۝

كَلَّا إِنَّ الْإِنسَانَ لِكَفٍ ۝

أَن رَّآه اسْتَفْتَى ۝

إِنَّ إِلَىٰ رَبِّكَ الرُّجُوعُ ۝

أَرَأَيْتَ الَّذِي يَنْهَىٰ ۝

1-1)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지향한 최초의 말씀으로 읽는 것과 쓰는 것 그리고 지식으로 인도하고 있다. 무함마드여! 모든 만물을 창조한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이 꾸란을 읽으라.

5-1) 1-5절까지가 꾸란 전체 가운데서 제일 먼저 계시된 절로 선지자 무함마드가 히라 동굴에서 명상중에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 "읽어라"라고 말하자 "저는 읽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자 또 천사가 말하길, "읽어라..."라고 계시가 내리기 시작하였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81).

7-1) 많은 재물을 소유했던 아부 자흘이 그 재물로써 선지자 무함마드를 박해하며 그 재물로써 이슬람의 가르침을 방해하였으며 특히 선지자 무함마드가 카오바 신전에 나가 신앙생활에 충실하려 했던 것을 방해하였다. 그의 오만과 자만은 계속되었으나 바드르 전투에서 벌을 받아 죽음을 맛보게 된 후 그의 오만과 자만은 끝났다.

96.쑤-라틀 알라끄 ( Sūratul ‘Alaq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āhi arRahmān arRahīm

01. 이끄라 비쓰미 랍비칼 라지 칼라카  
Iqra’ BiSmi Rabbikal Lazi Khalaqa
  02. 칼라칼 인싸-나 민 알라긴  
Khalaqal ‘Insāna Min ‘Alaqin
  03. 이끄라 와 랍부칼 아크라무  
Iqra Wa Rabbukal ‘Akramu
  04. 알라지 알라마 빌 깔람  
Alazi ‘Allama Bil Qalami
  05. 알라말 인싸-나 말람 야을람  
‘Allamal ‘Insāna MaLam Ya‘lam
  06. 칼라 인날 인싸-나 라 야뜨가  
Kallā ‘Innal ‘Insāna La Yaṭga
  07. 안 라아-후 이쓰타그나  
‘An Ra’āhu Istagna
  08. 인나 일라 랍비카 루즈아  
‘Inna ‘ila Rabbika Ruj‘a
  09. 아 라아이탈 라지 얀하  
‘A Ra’aytal Lazi Yanha
-

10. 그는<sup>1)</sup>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  
의 종을<sup>2)</sup> 방해하였노라

عَبْدًا إِذْ أَصَلَّى ﴿١٠﴾

11. 그가 복음의 길 위에 있었다  
생각하느뇨

أَرَأَيْتَ إِنْ كَانَ عَلَى الْهُدَىٰ ﴿١١﴾

12. 아니면 신앙에 경건하라 명  
령을 받았다 생각하느뇨

أَوْ أَمَرَ بِالْتَّقْوَىٰ ﴿١٢﴾

13. 그가 진리를 거역하고 외면  
하였다 생각하느뇨

أَرَأَيْتَ إِنْ كَذَّبَ وَتَوَلَّىٰ ﴿١٣﴾

14. 하나님께서 지켜 보심을 그  
는 알지 못하느뇨

أَلَمْ يَعْلَم بِأَنَّ اللَّهَ يَرَىٰ ﴿١٤﴾

15. 그로 하여금 알게 하리니 그  
가 단념하지 않는다면 그의 앞머  
리를 끌어가리라<sup>1)</sup>

كَلَّا لَئِنْ لَمْ يَنْتَهِ لَنَسْفَعْنَا بِالنَّاصِيَةِ ﴿١٥﴾

16. 그 머리는 거짓과 죄악의 머  
리라

نَاصِيَةٍ كَاذِبَةٍ خَاطِئَةٍ ﴿١٦﴾

17. 그런 후 그로 하여금 그를  
도울 동료들을 불러 모이게 하고

فَلْيَنْدُرُوا نَادِيَهُ ﴿١٧﴾

18.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웅벌  
의 천사들을 부르리라

سَنَدْعُ الزَّبَانِيَةَ ﴿١٨﴾

19. 그러므로 그를 따르지 말라  
부복하여 경배하고 하나님께 가까  
이 하라<sup>1)</sup>

كَلَّا لَا تَطِعَهُمْ وَأَسْجُدْ وَاقْتَرِبْ ﴿١٩﴾

10-1) 아부 자흐

2) 선지자 무함마드

15-1) 제9장 56절 참조

19-1)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복하여 경배하는 것이라고 하디쓰는 전하고 있다 (무슬림).

10. 압단 일라 살라  
‘Abdan ‘Iḏā Ṣalla
  11. 아 라아이타 인 카-나 알랄 후다  
‘A Ra’ayta ‘In Kāna ‘Alal Huda
  12. 아우 아마라 빌 타끄와  
‘Aw ‘Amara Bi Taqwa
  13. 아 라아이타 인 캣자바 와 타왈라  
‘A Ra’ayta ‘In Kaḏḏaba Wa Tawalla
  14. 알람 야을람 비 안날라하 야라  
‘ALam Ya‘lam Bi ‘AnnalLāha Yara
  15. 칼라 라인 람 얀타히 라 나쓰파아 빈 나-시야티  
Kallā La’in Lam Yantahi La Nasfa‘a Bin Nāṣiyati
  16. 나-시야틴 카-지바틴 카-띠아틴  
Nāsiyatin Kāḏibatin Khāṭi’atin
  17. 팔 야드우 나-디야후  
Fal Yad‘u Nādiyahu
  18. 싸 나드우 자바-니야타  
Sa Nad‘u Zabāniyata
  19. 칼라 라 투띠으후 와쓰주드 와끄타리브  
Kallā La Tuṭi‘hu WaSjud Waqtarib
-





## 제97장 까 드 르

메카에서 계시된 제5절로 영원한 기적 꾸란의 계시와 어느 날 어느 달 보다 은혜와 축복이 많이 내린 거룩한 밤과, 천사들과 가브리엘 천사가 이 밤에 강림하여 새벽 동녘까지 머무르며 믿음을 가진 모든 신앙인들에게 평안하기를 인사하는 성스럽고 위대한 이 거룩한 밤이야말로 천개월 보다 더 훌륭하고 축복받은 밤이라는 것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실로 하나님은 거룩한 밤에 이 계시를 내리나니”에서 언급된 「까다르」란 어휘에서 기인된 것으로 본다.

제 97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 1. 선실로 하나님은 거룩한 밤에<sup>1)</sup>  
이 계시를 내리나니<sup>2)</sup>
- 2. 거룩한 밤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 3. 거룩한 이 밤은 천개월보다  
더 훌륭한 밤으로<sup>1)</sup>
- 4. 이 밤에 천사들과 가브리엘  
천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 강림  
하여
- 5. 아침 동녘까지 머무르며 평안  
하소서 라고 인사하더라<sup>1)</sup>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إِنَّا أَنْزَلْنَاهُ فِي لَيْلَةِ الْقَدْرِ ۝

وَمَا أَدْرَاكَ مَا لَيْلَةُ الْقَدْرِ ۝

لَيْلَةُ الْقَدْرِ خَيْرٌ مِنْ أَلْفِ شَهْرٍ ۝

تَنْزِيلُ الْمَلَكَةِ وَالرُّوحِ فِيهَا بِإِذْنِ رَبِّهِمْ مِنْ كُلِّ أَمْرٍ ۝

سَلَامٌ شَمِئًا حَتَّىٰ مَطَلَعِ الْفَجْرِ ۝

1-1) 능력의 밤, 훌륭한 밤 또는 성스러운 밤 또는 위대한 밤 등의 여러가지 뉴앙스를 함축하고 있다.

2)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늘에 보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기 시작하여 23년간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를 전달하였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659/3 또는 타파셀 알꾸르투비 130/19).

3-1) 이 거룩한 밤에 행하는 의로운 일은 이 거룩한 밤이 아닌 천개월 동안의 밤에 행하는 어떤 일보다 훌륭한 것이라고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84). 또한 무자히드는 말하길, "이 거룩한 밤에 행하는 선행과 금식과 기도생활은 천개월의 밤 동안에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659/3).

5-1) 이 축복받은 거룩한 밤에 천사들이 내려와 믿는 신도들에게 항상 평안과 행복이 잇기를 기원하며 인사한다는 뜻.

97.쑤-라틀 까드르 ( Sūratul Qadr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âhi arRahmān arRahīm

01. 인나 안잘르나-후 피 라일라틸 까드리

‘Inna ‘Anzalnāhu Fi Laylatil Qadri

02. 와마 아드라-카 마 라일라틀 까드리

WaMā ‘Adrāka Ma Laylatul Qadri

03. 라이라틀 까드리 카이룬 민 알피 샤흐린

Laylatul Qadri Khayrun Min ‘Alfi Shahrin

04. 타낫잘룰 말라-이카투 와르루-후 피-하 비이드니 랍비힘

Tanazzalul Malā’ikatu WarRūhu Fīha Bi’Iḏni Rabbihim

민 쿠리 아므린

Min Kulli ‘Amrin

05. 쌀라-문 히야 할타 마플라일 파즈리

Salamun Ḥiya Hatta Maṭla‘il Fajri







## 제98장 바이이나

메카에서 계시된 8절로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해서 계시된 메시지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진실한 신앙, 내세에서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의 운명 등을 다루고 있다.

본 장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 무함마드의 메시지에 대한 성서의 백성들이 보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최후의 선지자가 온다는 소식이 그들의 성서에 묘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메시지와 더불어 최후의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이를 불신한 이야기를 다루고,

신앙의 근본은 진실한 경배로 말과 행동과 모든 품행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있을 때라는 교훈을 제시하면서 가장 사악한 자는 진리를 부정한 성서의 백성들과 불신자들로 이들의 최후 운명은 불지옥이나, 믿음으로 선을 실천하는 의로운 자들은 천국이 그들을 위한 영원한 주거지가 된다는 복음을 마지막으로 본 장은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이이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며 또한 본 장의 명칭이 「람 야쿰」장이라 불리워 지기도 한다 (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83).

제 98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성서의 백성들<sup>1)</sup> 가운데 진리를 거역한 자들과 불신자들은<sup>2)</sup> 분명한 예증이<sup>3)</sup> 그들에게 이를 때까지 그들은 길을 떠나려 하지 아니 하였노라

2. 이 예증은 성스러운 말씀을 낭송할<sup>1)</sup> 하나님의 선지자로

3. 그 안에는 올바른 율법이 있노라

4. 성서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분명한 예증이 이를 때까지 의견을 달리하지 아니 했으니<sup>1)</sup>

5.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sup>1)</sup>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실한<sup>2)</sup> 믿음이 되도록 그분께 헌신하며 기도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는 것들이 참된 신앙이라<sup>3)</sup>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لَعَلَّكَ الَّذِينَ كَفَرُوا مِنْ أَهْلِ الْكِتَابِ وَالشُّرَكَاءِ سُنَّاتِنَ  
حَتَّى تَأْتِيَهُمُ الْبَيِّنَةُ ۝

رَسُولٍ مِّنَ اللَّهِ يَتْلُو صُفْهَاتٍ مُّطَهَّرَةٍ ۝

فِيهَا كُتِبَ قِيمَةٌ ۝

وَمَا تَفْتَرَى الَّذِينَ أُذُنُوا الْكِتَابِ إِلَّا مِنْ بَعْدِ مَا جَاءَتْهُمْ  
الْبَيِّنَةُ ۝

وَمَا أُمِرُوا إِلَّا لِيَعْبُدُوا اللَّهَ مُخْلِصِينَ لَهُ الدِّينَ لَحَقَّةً  
وَيُعِيمُوا الصَّلَاةَ وَيُؤْتُوا الزَّكَاةَ وَذَلِكَ دِينُ الْقِيمَةِ ۝

1-1) 유대인 및 기독교인

2)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거역하고 불신하며 우상을 숭배한 자들

3) 선지자 무함마드

2-1) 암기하여 낭송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선지자 무함마드는 읽는 것과 쓰는 것을 알지 못한 문맹자였기 때문이었다(타프씨르 알꾸르투비 147/29).

4-1) 분명한 예증이 이르기 전에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무함마드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지 아니하다가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의견을 달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서에 무함마드가 선지자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알타스힐 리울룸 알란질 212/4).

5-1)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은 하나님 한분 만을 경배하며 그분에게 헌신하라 명령받았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최초 말씀을 변경하고 대체하여 하나님 아닌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들의 종교들을 믿게 되었다.

2) 하니프 아브라함이 지켜왔던 유일신을 믿는 종교로써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에 계시되어 완성된 최후의 종교 이슬람을 가르킴(제2장 135절참조).

3) 본절에서는 3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헌신하며, 둘째 기도를 드리고 셋째 이슬람세를 바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기본요소를 말해주고 있다.

98.쑤-라틀 바이이나 ( Sūratul Bayyinat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āhi arRahmān arRahīm

01. 람 야쿠닐 라지-나 카파루 민 아흘리 키타-비 왈  
Lam Yakunil Lazīna Kafarū Min ‘Ahlil Kitābi Wal  
무쉬리키-나 문팍키-나 하타 타으티야후물 바이이나투  
Mushrikīna Munfakkīna Hatta Ta’tiyahumul Bayyinatū
02. 라술-룬 미날라히 야틀루 수후판 무뜨흐하라탄  
Rasūlun MināLahi Yatlū Ṣuhufan Muṭahharatan
03. 피-하 쿠투분 까이이마툼  
Fīha Kutubun Qayyimatun
04. 와마 타파르라갈 라지-나 우-틀 키타-바 일라 민 바으디  
WaMā Tafarraḡal Lazīna ‘Ūtūl Kitāba ‘illā Min Ba’d  
마 자-아트후물 바이이나투  
Ma Jā’athumul Bayyinatū
05. 와마 우미루 일라 리 야으부들라하 무클리시-나  
WaMā ‘Umirū ‘illā Li Ya‘budūlLāha Mukhliṣīna  
라후 디-나 후나파-아 와 유끼-무 쌀라와-타 와 유으투  
Lahu Dīna Ḥunāfa’a Wa Yuqīmū Ṣalawāta Wa Yu’tū  
자카와-타 와 달-리카 디-눌 까이이마티  
Zakawāta Wa Ṣalika Dinul Qayyimati
-

6. 실로 성서의 백성들 중에 진리를 거역한 자들과 불신자들은 불지옥에 있게 되리니 그들은 그 안에서 영주하며 가장 사악한 무리들이라

7.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실천하는 자들은 가장 의로운 자들로

8. 그들을 위해 주님의 보상이 있나니 밀으로 강물이 흐르는 영생활 에덴의 천국이라 하나님은 그들로 기뻐하시고 그들은 그분으로 기뻐하리니 그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 대한 보상이라

إِنَّ الَّذِينَ كَفَرُوا مِنْ أَهْلِ الْكِتَابِ وَالْمُشْرِكِينَ فِي تَارِيحِهِمْ  
خُلْدًا فِيهَا أُولَئِكَ هُمْ شَرُّ الْبَرِيَّةِ ۝

إِنَّ الَّذِينَ آمَنُوا وَعَمِلُوا الصَّالِحَاتِ أُولَئِكَ هُمْ خَيْرُ الْبَرِيَّةِ ۝

جَزَاءُ وَهُمْ عِنْدَ رَبِّهِمْ جَنَّاتُ عَدْنٍ يَجْرِي مِنْ تَحْتِهَا الْأَنْهَارُ خَالِدِينَ  
فِيهَا أَبَدًا بِإِذْنِ اللَّهِ عَزَّ وَجَلَّ لَهُمْ فِيهَا رِزْقٌ غَيْرُ كَيْفٍ رِزْقِ رَبِّهِ ۝

06. 인날 라지-나 카파루 민 아홀릴 키타-비 왈 무쉬리키-나  
 'Innal Lazīna Kafarū Min 'Ahlil Kitābi Wal Mushrikīna  
 피 나-리 자한나마 칼-리다-나 피-하 올라-이카 흙  
 Fi Nāri Jahannama Khālīdīna Fiha 'Uwā'ika Hum  
 샤르를 바리이야티  
 Sharrul Bariyyati
07. 인날 라지-나 아-마누 와 아밀루 살리하-티 올라-이카  
 'Innal Lazīna 'Āmanu Wa 'Amilū Ṣāliḥāti 'Uwā'ika  
 흙 카이를 바르리이야티  
 Hum Khayrul Baryyati
08. 자자-우흙 예인다 랍비힘 잔나-투 아드닌 타즈리 민  
 Jazā'uhum 'Inda Rabbihim Jannātu 'Adnin Tajri Min  
 타흐티할 안하-루 칼-리다-나 피-하 아바단 라디알라후  
 Tahtiḥal 'Anhāru Khālīdīna Fiha 'Abadan RadhiyalLāhu  
 안흙 와 라두 안후 달-리카 리만 카식야  
 'Anhum Wa Radhū 'Anhu Zālīka Liman Khashiya  
 랍바후  
 Rabbahu
-





## 제99장 질 질

메카에서 계시된 8절로 다른 메카 계시들과 동일한 내용과 목적, 부활과 그의 양상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부활의 날 대지가 크게 진동하니 그 안에 있던 모든 시체와 보물들이 밖으로 나와 심판을 받아 그가 현세에서 행하였던 업적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흩어져 들어가게 된다. 대지가 크게 흔들리는 부활의 날에 있을 계산에서 인간이 행한 어떠한 미아의 선행이나 악행도 숨겨질 수 없으며 그가 행한 그대로 보상과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 “대지가 심하게 진동을 하며”에서 언급된 「질 질」이란 어휘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본다.



제 99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대지가 심하게 진동을 하며<sup>1)</sup>
2. 대지가 그속에 있는 것들을 밀어내도다<sup>1)</sup>
3. 인간은 비탄하고 고통치며 어찌된 일이뇨
4. 그날 대지는 그의 소식을 얘기하리니<sup>1)</sup>
5. 실로 주님은 그에 관해 계시하였노라
6. 그날 사람들은 여기 저기 무덤에서 떼지어 나와 그들의 업적들을 보이노라<sup>1)</sup>
7. 티끌만한 선이라도 실천한 자는 그것이 복이 됨을 알 것이며
8. 티끌만한 악이라도 저지른 자는 그것이 악이 됨을 알리라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إِذَا زُلْزِلَتِ الْأَرْضُ زِلْزَالَهَا ۝

وَأُخْرِجَتِ الْأَرْضُ أَثْقَالَهَا ۝

وَقَالَ الْإِنْسَانُ مَا لَهَا ۝

يَوْمَئِذٍ تُخْبِتُ أَخْبَارَهَا ۝

يَا أَيُّ رَبِّكَ أَوْسَىٰ لَهَا ۝

يَوْمَئِذٍ يَصْدُرُ النَّاسُ أَشْتَاتًا لِيُرَوْا أَعْمَالَهُمْ ۝

فَمَنْ يَعْمَلْ مِثْقَالَ ذَرَّةٍ خَيْرًا يَرَهُ ۝

وَمَنْ يَعْمَلْ مِثْقَالَ ذَرَّةٍ شَرًّا يَرَهُ ۝

- 1-1) 첫번째 나팔이 울릴 때 대지가 크게 진동하니 이때가 바로 부활의 시작이다.
- 2-1) 땅속에 있는 모든 시체와 보물들이 땅밖으로 나온다고 문지르 이브누 싸이드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씨르 알울루씨 209/30).
- 4-1) 부활의 날 대지는 대지위에서 행하여졌던 선과 악의 모든 소식을 알려 주리니... 즉 모든 인간에게 그가 지상에 있을 때 행하였던 모든 것을 증언 할 것이라고 아부 후라이이라는 전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90).
- 6-1) 무덤에서 나와 심판을 받기 위해 다같이 모여 그들이 행했던 업적에 따라 계산된 후 천국과 지옥으로 흩어져 가게 된다(꾸란 어휘해설, p.431).

99.쑤-라트 잘랄라트( Sūrat Zalalat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āhi arRahmān arRahim

- 01. 이다 줄질라틸 아르두 질잘-라하  
'Iza Zulzilatil 'Ardhu Zilzalāha
  - 02. 와 아크라자틸 아르두 아쓰갈-라하  
Wa 'Akhrajatil 'Ardhu 'Athqalāha
  - 03. 와 갈-랄 인싸-누 마 라하  
Wa Qālal 'Insānu Mā Laha
  - 04. 야우마인딘 투한디쑤 아크바-라하  
Yawma'izin Tuḥaddithu 'Akhbāraha
  - 05. 비안나 랍바카 아우하 라하  
Bi'Anna Rabbaka 'Awḥa Laha
  - 06. 야우마이딘 야스두룬 나-쑤 아쉬타-탄 리유라우  
Yawma'izin Yaṣḍurun Nāsu 'Ashtātan LiYuraw  
아으말-라흠  
'A'mālahum
  - 07. 파만 야으말 미쓰갈라 다르라틴 카이란 야라후  
FaMan Ya'mal Mithqāla Ḥarratin Khayran Yarahū
  - 08. 와만 야으말 미쓰갈-라 다르라틴 샤르란 야라후  
WaMan Ya'mal Mithqāla Ḥarratin Sharran Yarahū
-





## 제100장 아디아트

메카에서 계시된 11절로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적을 향해 돌진하는 말, 질주하며 불꽃을 튀기는 말, 새벽에 공격하는 말 그리고 언지를 일으키며 적 깊숙이 돌진하는 말을 두고 맹세하는 계시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만하며 거만을 피우며 재물에 탐닉한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 모든 피조물은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귀의하며 이때 인간이 탐닉했던 모든 재물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선을 행한 의로운 일 밖에는 유용한 것이 없다는 교훈이 제시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질주하는 말을 두고 맹세하사”에서 언급된 「아디아트란」 어휘에서 기인된 것으로 본다.

제 100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یْمِ

- 1. 질주하는 말을 두고 맹세하사<sup>1)</sup>
- 2. 불꽃을<sup>1)</sup> 튀기는 말을 두고 맹세하며
- 3. 새벽에 공격하는 말을 두고 맹세하나니
- 4. 먼지를 일으키며
- 5. 적 깊숙이 돌진하는 말을 두고 맹세하사<sup>1)</sup>
- 6. 실로 인간은 주님께 감사할 줄 모르더라<sup>1)</sup>
- 7. 인간은 그가 행한 것을 증언할 것이매
- 8. 재물에 탐의하는데만 열중하노라
- 9. 무덤속에 있는 것들이<sup>1)</sup> 밖으로 나와 산산히 흩어지고
- 10. 그의 심중에 있는 것들이 밝혀지며

وَالْعِدْبِیَّتِ صَبَا ۝

فَالْمُؤَبِّبِ قَدْحًا ۝

فَالْمُعِزِّ صَبَا ۝

فَأَثَرَن بِهِ نَقْعًا ۝

فَوَسَطْنَ بِهِ جَمْعًا ۝

إِنَّ الْإِنْسَانَ لِرَبِّهِ لَكَنُودٌ ۝

وَأَنَّهُ عَلَىٰ ذٰلِكَ لَشَهِيدٌ ۝

وَأَنَّهُ لَئِبَّ الْغَيْبِ لَشَدِيدٌ ۝

أَفَلَا يَعْلَمُونَ إِذَا بُعْثِرَ مَا فِي الْقُبُورِ ۝

وَحُصِّلَ مَا فِي الصُّدُورِ ۝

1-1) 하나님의 적을 향하여 소리치며 돌진하는 말을 두고 맹세하사(아부 알싸우드 280/5)  
 2-1) 세차게 질주할 때 말굽과 땅에 있는 돌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꽃  
 5-1)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적을 향해 돌진하는 말, 질주하면서 불꽃을 튀기는 말, 공격의 시각을 새벽으로 바꾼 말로써 하나님은 맹세를 하고 있다.  
 6-1) 인간은 주님이 베푼 은혜를 망각하고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 내린 시련만을 생각한다고 이브누 알바쓰는 풀이하고 있다(타프시르 알꾸르투비 160/20).  
 9-1) 무덤속에 있는 시체들

100.쭈-라틀 아-디야-트 ( Sūratul 'Ādidyāt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āhi arRahmān arRahīm )

01. 왈 아-디야-티 되브한  
Wal 'Ādiyāti Dhabhan
  02. 팔 무-리-야-티 까드한  
Fal Mūriyāti Qadhan
  03. 팔 무기-라-티 수브한  
Fal Mugirāti Şubhan
  04. 파 아싸르나 비히 나끄안  
Fa' Atharna Bihi Naq'an
  05. 파 와싸뜨나 비히 자므안  
Fa Wasatna Bihi Jam'an
  06. 인날 인싸-나 리 랍비히 라 카누-둔  
'Innal 'Insana Li Rabbihi La Kanūdon
  07. 와 인나후 알라 달-리카 라 샤히-둔  
Wa 'Innahu 'Ala Zālika La Shahīdon
  08. 와 인나후 리 हुब빌 카이리 라 샤디-둔  
Wa 'Innahu Li Ḥubbil Khayri La Shadīdon
  09. 아팔라 야을라무 이다 부으씨라 마 필 꾸부-리  
'AFalā Ya'lamu 'Izā Bu'thira Mā Fil Qubūri
  10. 와 हुष실라 마 피 수두-리  
Wa Huşşila Mā Fi Şudūri
-

11. 그날<sup>11)</sup> 주님께서 그것들을 아  
심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인간은 알  
지 못하느뇨

إِنَّ رَبَّهُمْ بِهِمْ يَوْمَئِذٍ عَلِيمٌ ⑪

11-1) 부활의 날

11. 인나 랍바훴 비힘 야우마이딘 라 카비-룬  
'Inna Rabbahum Bihim Yawma'izin La Khabirun

---







## 제101장 까리 아

메카에서 계시된 11절로 부활과 그 양상, 내세와 그 양상, 그날에 있을 무서운 재앙들로 무덤속에 묻혀 있던 인간들이 밖으로 나와 나방처럼 여기 저기 흩어지며,

산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양털처럼 되는 부활의 날에 인간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는가를 암시하면서 믿음으로 선을 실천한 의로운 자들은 천국에 사는 행복한 가족이 될 것이나 믿음을 부정하고 사악한 행위를 한 자들은 불지옥에 사는 불행한 자들이 된다는 교훈을 마지막으로 본 장을 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부활의 날, 즉 「까리아」란 어휘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본다.

제 101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 1. 부활의 날<sup>1)</sup>
- 2. 부활의 날이 무엇이뇨
- 3. 부활의 날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리요
- 4. 그날은 인간이 나방처럼 흩어  
지는 날이며
- 5. 산들은 가지런한 양털처럼 되  
는 날로
- 6. 그날 그의 선행이 무거운 자  
는
- 7. 안락한 삶을 영위할 것이나
- 8. 그의 선행이 가벼운 자는
- 9. 불지옥의 함정에 있게 되리라<sup>1)</sup>
- 10. 불지옥의 함정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려 주리요
- 11. 그것은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지옥이라

الْقَارِعَةُ ۝  
 مَا الْقَارِعَةُ ۝  
 وَمَا أَدْرَاكَ مَا الْقَارِعَةُ ۝  
 يَوْمَ يَكُونُ النَّاسُ كَالْفَرَاشِ الْمَبْتُوتِ ۝  
 وَتَكُونُ الْجِبَالُ كَالْعِهْنِ الْمَنْفُوشِ ۝  
 فَأَمَّا مَنْ ثَقُلَتْ مَوَازِينُهُ ۝  
 فَهُوَ فِي عِيشَةٍ رَاضِيَةٍ ۝  
 وَأَمَّا مَنْ خَفَّتْ مَوَازِينُهُ ۝  
 فَأُمُّهُ هَارِيَةٌ ۝  
 وَمَا أَدْرَاكَ مَا هِيَ ۝  
 نَارُ حَامِيَةٍ ۝

1-1) 가리아 : 부활의 여러 명칭 가운데 하나로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가장 무서운 재앙(사프와 트 타파씨르, 제20권 p.94).

9-1) 하위야 : 불지옥의 이름 가운데 하나

## 101. 쑤-라툴 까-리아트 ( Sūratul Qāri'at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āhi arRahmān arRahīm

01. 알까-리아투

alQāri'atu

02. 말 까-리아투

Māl Qāri'atu

03. 와마 아드라-카 말 까-리아투

WaMā 'Adrāka Māl Qāri'atu

04. 야우마 야쿠-눈 나-쑤 칼 파라-쉴 마브슈-씨

Yawma Yakūnun Nāsu Kal Farāshil Mabthūthi

05. 와 타구-눌 지발-루 칼이흐닐 만푸-쉬

Wa Takūnul Jibālu Kal 'Ihnil Manfūshi

06. 파 안마 만 싸꼴라트 마와-지-누후

Fa' Amma Man Thaqulat Mawāzīnuhu

07. 파 후와 피 이-샤툼 라-디아툼

Fa Huwa Fi 'Īshatin Rādhiyatin

08. 와 암마 만 캄파트 마와-지-누후

Wa 'Amma Man Khaffat Mawāzīnuhu

09. 파 움무후 하-위야툼

Fa' Ummuhu Hāwiyatun

10. 와마 아드라-카 마-히야

WaMā 'Adrāka Māhiyah

11. 나-룬 하-미야툼

Naṛun Ḥāmiyatun





## 제102장 타카수르

메카에서 계시된 8절로 인간이 죽어 무덤에 묻힐 때까지 재물과 자손과 권력에 탐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세를 준비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경고로써 이들은 부활의 날 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분명한 응벌 즉 불지옥을 스스로 목격하게 되며 이날 그들 모두는 그들이 현세에서 탐닉했던 모든 것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계산되어 그에 따른 보상과 응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축적한 것들이 너희를 벗어나게 하리니 에서 언급된 「타카수르」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제 102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축적한 것들이 너희를 벗어나  
게 하리니<sup>1)</sup>
2. 너희가 무덤으로 갈 때 까지  
오만하려 하느뇨<sup>1)</sup>
3. 그러나 너희는 곧 알게 되리  
라
4. 실로 너희는 곧 알게 되리라
5. 너희가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너희는 알게 되리니
6. 너희는 지옥의 불을 볼 것이  
라
7. 실로 너희는 분명히 눈으로서  
목격할 것이라
8. 그런 후 너희는 너희가 탐닉  
했던 향락에 관하여 힐문을 받을  
것이라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أَلْهَكُمُ التَّكْوِيْنُ ۝١

حَتَّىٰ ذُرْتُمُ الْمَقَابِرَ ۝٢

كَلَّا سَوْفَ تَعْلَمُونَ ۝٣

ثُمَّ كَلَّا سَوْفَ تَعْلَمُونَ ۝٤

كَلَّا لَوْ تَعْلَمُونَ عِلْمَ الْبَاقِيْنَ ۝٥

لَتَرَوُنَّ الْجَحِيْمَ ۝٦

ثُمَّ لَتَرَوُنَّهَا عَيْنَ الْبَاقِيْنَ ۝٧

ثُمَّ لَتَسْأَلُنَّ يَوْمَئِذٍ عَنِ النَّعِيْمِ ۝٨

1-1) 일하 : 향락과 오락으로 인하여 아주 중요한 것으로부터 외면하는 것이 언어적인 의미로, 본  
질의 교훈은 재물과 자손들과 군대로 거만하고 오만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내세를 위한 준비  
를 외면한 인간들에 대한 경고로 본다.

2-1) 죽어 무덤에 묻힐 때 까지 재물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내세를 부정하려  
하는가?(타프씨르 알푸르투비)

## 102.쑤-라트 타카-쑤르 ( Sūrat Takāthur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āhi arRahmān arRahīm

01. 알하-쿠무 타카-쑤루  
‘Alhākumu Takāthuru
  02. 할타 주르투물 마까-비라  
Ḥatta Zurtumul Maqābira
  03. 칼라 싸우파 타을라무-나  
Kallā Saufa Ta‘lamūna
  04. 쑤마 칼라 싸우파 타을라무-나  
Thumma Kallā Sawfa Ta‘lamūna
  05. 칼라 라우 타을라무-나 일말 야끼-니  
Kallā Law Ta‘lamūna ‘ilmal Yaqīni
  06. 라 타라운날 자히-마  
La Tarawunnal Jahīma
  07. 쑤마 라 타라운나하 아이날 야끼-니  
Thumma La Tarawunnaha ‘Aynal Yaqīni
  08. 쑤마 라 투쓰알룬나 야우마이딘 아닌 나이-미  
Thumma La Tus'alunna Yawma'izin ‘Anin Na'īmi
-







## 제103장 아 스 르

메카에서 계시된 3절로 인간 행복의 근원과 불행의 이유 그리고 현세에서의 성공과 멸망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본 장은 인간의 일생을 좌우하는 세월을 두고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예증을 제시하고 있다. 믿음과 의로운 일, 진리를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고 권고하는 것, 인내가 신앙의 기본요소로 이 4가지 기본요소를 지키지 아니한 인간들은 내세에서 모두 멸망한다는 교훈을 제시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 제 103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세월을 두고 맹세하사<sup>1)</sup>
2. 실로 모든 인간은 멸망케 되  
나라
3. 그러나 믿음으로 의로운 일을  
실천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를  
권고하며 인내하는 자들은 제외라<sup>1)</sup>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وَالْعَصْرِ ۝

إِنَّ الْإِنْسَانَ لِرَبِّهِ خَيْرٌ ۝

إِلَّا الَّذِينَ آمَنُوا وَعَمِلُوا الصَّالِحَاتِ وَتَوَّصَوْا بِالْحَقِّ ۝  
وَتَوَّصَوْا بِالصَّبْرِ ۝

1-1) 아스르 : 인간의 나이를 좌우하는 세월이라고 풀이된다. 한편 이브누 압바쓰는 모든 시대를 포괄하는 시간으로 해석하고, 까타다는 낮 동안의 마지막 시각의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00), 꾸란어휘 해설에서는 선지자의 시대라고 풀이하고 있다 (꾸란어휘해설 p.434). 또한 아스르는 아스르 기도시간으로 풀이되기도 한다(타프씨르 알푸 르투비 179/20).

3-1) 믿음과 선행, 진리의 권고 그리고 인내 이 4가지 요소를 실천한 자들이 승리가 될 것이라는 교훈을 암시하고 있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추종자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날 때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아스르”장을 읽지 않고서는 헤어지지 아니했으며, 이 아스르장을 읽은 후 서로가 인사한 다음 헤어지곤 하였다고 하디쓰가 전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00).

103.쭈-라틀 아스르 ( Sūratul 'Asr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āhi arRahmān arRahīm

01. 왈 아스리

Wal 'Asri

02. 인날 인싸-나 라피 쿠쓰린

'Innal 'Insāna LaFi Khusrin

03. 일랄 라지-나 아-마누 와 아밀루 살리하-티 와 타와-사우

'illal Laẓīna 'Āmanū Wa 'Amilū Ṣāliḥāti Wa Tawāṣaw

빌 ḥაკ키 와 타와-싸우 빗 싸브리

Bil Ḥaqqi Wa Tawāṣaw Bi Ṣabri

---





## 제104장 후 마 자

메카에서 계시된 9절로 사람들을 비방하고 중상 모략하는 자들과 재물만을 탐닉한 나머지 재물을 축적하여 그것으로 영원히 살리라 생각하는 자들에 관하여 언급한 후,

이들에 대한 무서운 벌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불지옥으로 그 지옥의 뜨거움이 가슴을 에워싸고 바람이 들어가지도 그리고 나오지도 못하도록 문을 잠구어버리며 기둥들로 빗장을 치는 지옥이 있다는 경고로써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자에게 재앙이 있을 지니라는 절에서 언급된 「후마자」란 어휘에서 기인된 것으로 본다.

제 104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자에게 재앙이 있을지니<sup>1)</sup>
2. 그는 재산을 모아 계산에 열중하며<sup>1)</sup>
3. 그 재산이 현세에서 그를 영원케 하리라 생각하도다<sup>1)</sup>
4.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지옥에 던져지리라
5. 그 지옥이 무엇이든 무엇이든 그대에게 알려주리요
6.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타는 불지옥이거늘
7. 그 뜨거움이 가슴을 에워싸고
8. 그들에게 문이 잠겨져 버리며
9. 기둥들로 빗장이 내려지노라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وَيْلٌ لِّلَّذِينَ هُمْرُوا لَمَنزَرَةً ۗ

إِذْ هُمْ يَجْمَعُونَ مَالًا زَوَّجَدَدَهُ ۗ

يَحْسَبُونَ أَنَّ مَالَهُمْ أَخْلَدَهُ ۗ

كَلَّا لَيُنزَلَنَّ فِي الْخَطْمَةِ ۗ

وَمَا أَدْرَاكَ مَا الْخَطْمَةُ ۗ

تَأْرَاثِمُ الْغَوَّاتِ ۗ

الَّتِي تَنْظُرُهُ عَلَى الْآفَاقِ ۗ

إِنَّمَا عَلَيْهِمْ مُّوَصَدَةٌ ۗ

فِي عَمَدٍ مُمَدَّدَةٍ ۗ

1-1) 본 절은 중상모략과 모사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과 사건을 일으키게 했던 「아크나쓰 이븐 샤리프」에 관하여 제시된 절로 해설가들은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권 p.100).

2-1) 재물만을 모아 계산하여 축적할 뿐 하나님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적만 하는 것 (타프씨르 알파브리 189/30).

3-1) 돈과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며 내세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현세만을 생각하도다.

## 104.쑤-라틀 후마자티 ( Sūratul Humazati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âhi arRahmān arRahīm

01. 와일룬 리쿨리 후마자틴 루마자틴  
Waylun LiKulli Humazatin Lumazatin
  02. 알라지 자마아 말-란 와 알다다후  
Alaẓi Jama'a Mālan Wa 'Addadahu
  03. 야흐싸부 안나 말-라후 아클라다후  
Yaḥsabu 'Anna Mālahu 'Akhladahu
  04. 칼라 라 윤바단나 필 후파마티  
Kallā La Yunbadanna Fil Ḥuṭamati
  05. 와마 아드라-카 말 후파마투  
WaMā 'Adrāka Māl Ḥuṭamatu
  06. 나-룰라힐 무-까다투  
NārulLâhil Mūqadatu
  07. 알라티 타ṭṭالي'우 알랄 아프이다티  
Alati Taṭṭali'u 'Alal 'Af'idati
  08. 인나훔 알라이힘 무우사다툼  
'Innahum 'Alayhim Mu'ṣadatun
  09. 피 아마딘 무맘다다틴  
Fi 'Amadin Mumaddadatin
-







## 제105장 필

메카에서 계시된 5절로 카우바 신전을 파괴하기 위해 예멘의 왕 아브라하가 코끼리를 탄 군대를 메카로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부리와 양다리에 새개씩의 돌을 가진 새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려 한 적들을 멸망시킨 이야기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그 해 서력 570년에 무함마드가 태어난 해였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그대 주님께서 코끼리의 무리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소식이 이르지 아니했느뇨 에서 언급된 「필」이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제 105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주님께서 코끼리의 무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소식이 이르지 아니 했느냐<sup>1)</sup>
2. 그들의 음모를 파멸시켜 버리지 아니 했더뇨
3.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떼를 보내어
4. 모래와 흙으로 된 돌맹이들을 던지셨나니
5. 그들은 다 갇아 먹어버린 마른 잎과도 같았더라<sup>1)</sup>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یْمِ

أَمْ تَرْكِبْتَ قَعْلَ رَبِّكَ يَا صَاحِبَ الْفَيْلِ ۝۱

أَمْ يَجْعَلُ كَيْدَهُمْ فِي تَضَلُّلٍ ۝۲

وَأَرْسَلَ عَلَيْهِمْ طَيْرًا أَبَابِيلَ ۝۳

تَرْمِيهِمْ بِحِجَارٍ مِّن سِجِّيلٍ ۝۴

فَجَعَلْنَاهُمْ كَصَفِّ نَخْلٍ ۝۵

1-1) 그대 무함마드여! 하나님의 집 하람사원을 침범한 적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코끼리 무리로 적들을 물리친 그 소식이 그대에게 이르지 아니했느냐? : 예멘의 왕 「아브라하 알아쉬람」은 사나이에 교회 하나를 짓고 그곳으로 성지순례객들을 유치하려 하였다. 이때 가니나에서 한 남자가 그곳에 이르러 밤에 대변을 보고 또 벽에다 그 대변으로 더럽혀 그를 저주하였다. 그리하여 예멘의 왕 아브라하는 화가나 카오바 신전을 파괴하려 결심하고 코끼리들과 군대를 인솔하고 메카로 왔다. 이들 군대가 메카 가까이 왔을 때 메카 주민들은 군대와 코끼리들에 놀라 두려운 나머지 산으로 피하여 갔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하 군대에게 새들을 보냈고 각각의 새들의 입과 양 발에 3개의 돌을 가지고 와, 아브라하 군대와 코끼리들을 멸망시켜버렸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96/13 및 타프씨르 알푸르푸비 187/20). 이러한 사건은 바로 선지자 무함마드가 태어난 그해였다고 전하여지고 있다(아부 싸우드 285/5).

5-1) 본 장의 모든 절은 카오바 신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메카 꾸라이쉬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해가 선지자 무함마드가 태어날 곳이였고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다(알바흐르 알무히트 512/8).

105.쭈-라틀 필 ( Sūratul Fīl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āhi arRahmān arRahīm

01. 알람 타라 카이파 파알라 랍부카 비 아스하-빌 필  
‘ALam Tara Kayfa Fa‘ala Rabbuk Bi ‘Aṣḥābil Fīl
  02. 알람 야즈알 카이다훔 피 타드릴  
‘ALam Yaj‘al Kaydahum Fi Tadhīlin
  03. 와 아르쌀라 알라이힘 따이란 아바-빌  
Wa ‘Arsala ‘Alayhim Ṭayran ‘Abābīla
  04. 타르미-힘 비 히자-라틴 민 싯질  
Tarmihim Bi Hijāratin Min Sijjīl
  05. 파 자알라훔 카아스핀 마으쿨린  
Fa Ja‘alahum Ka‘asfin Ma‘kululin
-





## 제106장 꾸라이쉬

메카에서 계시된 4절로 메카 꾸라이쉬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꾸레이쉬 대상들은 겨울철에는 예멘으로 여름철에는 삼 지역으로 상거래를 하기 위해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들 꾸라이쉬 대상들 위에 두가지 큰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는 안전과 평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상들로 하여금 좋은 상거래를 하도록 하여 부유한 부족이 되도록 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꾸레이쉬족의 보호를 위하여 에서 언급된 「꾸라이쉬」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 제 106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꾸레이쉬 족의 보호를 위하여
2. 대상으로 하여금 겨울과 여름에 안전하게 여행케 하였노라<sup>1)</sup>
3. 그러므로 이 집의<sup>1)</sup> 주님을 그들로 하여금 경배토록 하라
4. 그분은 그들을 기아로부터 배불려 주셨고 공포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셨노라<sup>1)</sup>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لَا إِلَهَ إِلَّا اللَّهُ ①

الَّذِي أَعْطَى رِحْلَةَ الشِّتَاءِ وَالصَّيْفِ ①

فَلْيَعْبُدُوا رَبَّ هَذَا الْبَيْتِ ②

الَّذِي أَطْعَمَهُمْ مِنْ جُوعٍ وَآمَنَهُمْ مِنْ خَوْفٍ ③

2-1) 겨울철에는 예멘으로, 여름철에는 삼지역으로 무역거래를 위해 대상을 하는데, 거래에서나 여행에서나 꾸라이쉬 대상들이 하나님의 집 카오바 신전 바로 이웃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라 하여 그 대상들은 존경을 받아가며 안전하게 상거래를 하게 되었다.

3-1) 카오바 신전

4-1) 꾸라이쉬 대상들의 여행과 거래를 안전하게 하여줌으로써 이들 대상들은 많은 이익을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메카 꾸라이쉬족들은 번성하게 되었다.

106.쑈-라투 꾸라이쉬 ( Suratū Qurayshin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āhi arRahmān arRahīm

01. 리 일라-피 꾸라이쉬

Li 'ilāfi Qurayshin

02. 일라-피힘 리흘라타 쉬타-이 왓 싸이피

'ilāfihim Riḥlata Shitā'i Wa Ṣayfi

03. 팔야으부두 랍바 하달 바이티

FalYa'budū Rabba Hāzal Bayti

04. 알라지 아뜨아마흠 민 주-인 와 아-마나흠

Alāzi 'Aṭ'amahum Min Jū'in Wa 'Āmanahum

민 카우핀

Min Khawfin

---







## 제107장 마 운

메카에서 계시된 7절로 두가지 인간형을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오만하고 거만을 피우며 부활의 날에 있을 계산과 보상을 부정하는 자들과, 사람들 앞에서만 신앙인인 척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위선자들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전자의 불신자들은 고아들을 학대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자선을 베풀지 아니한 자들이며, 후자의 위선자들은 제시간에 기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척 내보이는 이들 두 무리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는 교훈을 제시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7절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인색한 자들이라 에서 언급된 「마운」이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제 107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 1. 내세를<sup>1)</sup> 부정하는 자를 그대는 알았느냐
- 2. 그는 고아를 학대하고
- 3. 불쌍한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이니<sup>2)</sup>
- 4. 위선적인 기도를 행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
- 5. 이들은 그들의 기도생활을 태만히 하면서
- 6. 남에게 보이기 위해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자들로
- 7.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인식한 자들이라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أَرَأَيْتَ الَّذِي يُكَذِّبُ بِالذِّكْرِ ۝١

فَذَلِكَ الَّذِي يَدُعُّ الْيَتِيمَ ۝٢

وَلَا يَعْصُ عَلَىٰ طَعَامِ الْيَسِيرِ ۝٣

قَوْلِ الْبَلَّغِينَ ۝٤

الَّذِينَ هُمْ عَنْ صَلَاتِهِمْ سَاهُونَ ۝٥

الَّذِينَ هُمْ يُرْءَاوُونَ ۝٦

وَيَسْتَعِينُ الْمَاعُونَ ۝٧

1-1) 단 : 종교, 심판의 날, 또는 내세 등의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3-1) 랫드 : 촉구하다는 뜻으로 본질의 언어적인 의미는 불쌍한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도록 촉구하지 아니한 자라는 뜻이나 음식을 제공하지도 아니하고 또 음식을 제공하도록 촉구하지도 않는다는 2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80).

107.쑤-라틀 마-운 ( Suratul Ma'un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âhi arRahmān arRahīm

01. 아 라아이탈 라지 유캇지부 빈 딘  
'A Ra'aytal Lazi Yakazzibu Bi Dīni
02. 파 달-리칼 라지 야두울 야티-마  
Fa Zālikal Lazi Yadu'ul Yatīma
03. 왈라 야혼두 알라 짜아-밀 미쓰킨  
WaLā Yahudhdhū 'Ala Ṭa'āmil Miskīni
04. 팔 와일룬 릴 무살리-나  
Fa Waylun Lil Muṣallīna
05. 알라지-나 흠 안 살라-티힘 싸-후-나  
Alaḏīna Hum 'An Ṣalāatihim Sāhūna
06. 알라지-나 흠 유라-우-나  
Alaḏīna Hum Yurā'ūna
07. 와 야므나우-말 마-우-나  
Wa Yamna'ūnal Mā'una
-





## 제108장 카우싸르

메카에서 계시된 3절로 현세와 내세에서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베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기도하고 제물을 바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한 후

선지자의 적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모든 희망이 단절된 자들임을 제시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하나님이 그대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나니 에서 언급된 「카우싸르」 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 제 108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나님이 그대에게 풍성한 은혜를<sup>1)</sup> 베풀었나니

2. 주님께 기도하고 제물을<sup>1)</sup> 바치라

3. 실로 그대의 적은 모든 희망으로부터 단절된 자들이라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إِنَّا أَنْعَمْنَا عَلَى الْكَافِرِينَ ۝

فَصَلِّ لِرَبِّكَ وَأَنْصِرْ ۝

إِنَّ شَأْنَكُمْ هُوَ الْآخِرُ ۝

1-1) 카우싸르 : 풍성한 은혜, 양과 숫자적으로 많은 것을 "카우싸르"라 아랍인들은 부르고 있다. 본 절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현세와 내세에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소식이다.

2-1) 낙타를 잡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108.쑤-라틀 가우싸르 ( Sūratul Kawthar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āhi arRahmān arRahīm

01. 인나 아으뜨이나-칼 카우싸라  
‘Inna ‘A‘ṭaynākal Kawthara
  02. 파 살리 리 랍비카 완하르  
Fa Ṣalli Li Rabbika Wanḥar
  03. 인나 샤-니아카 후왈 아브타루  
‘Inna Shāni’aka Huwal ‘Abtara
-







## 제109장 카 피 룬

메카에서 계시된 6절로 불신과 방황을 배제하는 유일신 사상의 절로써 불신자들이 선지자 무함마드로 하여금 그들이 숭배한 우상들을 1년간 숭배하면 그들 불신자들도 무함마드가 경배한 신을 1년간 경배하겠다고 유혹했을 때 이 불신자들의 유혹을 근절하는 절이 계시됨으로써 진실한 믿음의 백성과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들의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에서 언급된 「카피룬」이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제 109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 1. 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되<sup>1)</sup>
- 2. 너희가 숭배하는 것을 내가 숭배하지 아니하며<sup>1)</sup>
- 3. 내가 경배하는 분을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고
- 4. 너희가 숭배했던 것들을 내가 숭배하지 아니할 것이며
- 5. 내가 경배한 그분을 너희가 경배하지 않을 것이니
- 6. 너희에게는 너희의 종교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종교가 있을 뿐 이라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قُلْ يَا أَيُّهَا الْكَافِرُونَ ١

لَا أَعْبُدُ مَا تَعْبُدُونَ ٢

وَلَا أَنْتُمْ عِبُدُونَ مَا أَعْبُدُ ٣

وَلَا أَنَا عَابِدٌ مِمَّا عَبَدْتُمْ ٤

وَلَا أَنْتُمْ عِبُدُونَ مَا أَعْبُدُ ٥

لَكُمْ دِينُكُمْ وَلِيَ دِينِ ٦

1-1) 우상을 숭배하라고 유혹한 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2-1) 너희 불신자들이 숭배한 우상들을 결코 내가 숭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우상들은 유익함도 그리고 해악을 끼치지도 못하는 무용한 것이다. 꾸라이쉬 부족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그들이 숭배한 우상을 1년간 숭배한다면 그들 불신자들도 무함마드가 경배한 신을 1년간 경배하겠다고 말하자 본질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

109.쑤-라틀 카-피룬 ( Sūratul Kafirūn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āhi arRahmān arRahīm

01. 꿀 야 야이유할 카-피루-나  
Qul Yā 'Ayyuhal Kāfirūna
  02. 라 아으부두 마 타으부두-나  
Lā 'A'budu Ma Ta'budūna
  03. 왈라 안툼 아-비두-나 마 아으부두  
WaLā 'Antum 'Ābidūna Mā 'A'budu
  04. 왈라 아나 아-비둔 마 아받툼  
WaLā 'Ana 'Ābidun Mā 'Abadtum
  05. 왈라 안툼 아-비두-나 마 아으부두  
WaLā 'Antum 'Ābidūna Mā 'A'budu
  06. 라쿰 디-누쿰 왈리야 딘  
Lakum Dīnukum WaLiya Dīni
-





## 제110장 나스르

메카에서 계시된 3절로 무슬림의 영광이요. 아랍 반도에 이슬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메카 정복에 대한 승리와 이 승리로 인하여 전쟁과 싸움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떴지어 하나님의 종교에 귀의하게 됨으로써 이슬람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우상을 숭배한 불신자들이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하나님의 원조로 승리하는 그때에 에서 언급된 「나스르」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한편 고별의 순례시 미나에서 본 절이 계시되었다 하여 「타우디우」장이라 불리우기도 한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15).

제 110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그때에<sup>1)</sup>

2. 떤지어 하나님의 종교로 귀의  
하는 백성들을 그대는 보리니<sup>1)</sup>

3.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관용  
을 구하라 실로 그분은 관용으로  
충만하시니라<sup>1)</sup>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إِذَا جَاءَ نَصْرُ اللَّهِ وَالْفَتْحُ ﴿١﴾

وَرَأَيْتَ النَّاسَ يَدْخُلُونَ فِي دِينِ اللَّهِ أَفْوَاجًا ﴿٢﴾

فَسَبِّحْ بِحَمْدِ رَبِّكَ وَاسْتَغْفِرْ لَهُ إِنَّهُ كَانَ تَوَّابًا ﴿٣﴾

1-1) 그대 무함마드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와 메카를 정복하는 승리를 가져다 줄 때,

2-1) 단체로 이슬람에 귀의하는 백성들을 보리라.

3-1) 그러므로 적에 대하여 승리토록 하여 주고, 메카를 정복하여 많은 사람들이 떤지어 이슬람에 귀의하도록 하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110.쑤-라툐 나스르 ( Sūratun Naṣr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āhi arRahmān arRahīm

01. 이다 자-아 나스룰라히 왈 파트후

‘Iḏā Jā’a NaṣrulLāhi Wal Faṭḥu

02. 와 라아이탄 나-싸 야드쿨루-나 피 디닐라히 아프와-잔

Wa Ra’aytan Nāsa Yadkhūlna Fi DīnilLāhi ‘Afwājan

03. 파 샵비흐 비함디 랍비카 와쓰타그피르후 인나후

Fa Sabbiḥ BiḤamdi Rabbika Wastagfirhu ‘Innahu

카-나 타우와-바

Kāna Tawwāba

---







## 제111장 마싸드

메카에서 계시된 5절로 하나님의 적이요 선지자의 적이었던 아부라합의 멸망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다. 아부라합은 가장 사악한 자 중의 한 사람으로 그의 모든 일상생활을 버려두고서 선지자 무함마드의 뒤를 쫓아다니며 무함마드의 선교를 방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에 그의 아내도 남편과 더불어 사악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니 그녀의 목은 동아줄에 묶여 타오르는 불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교훈을 제시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5절에 그녀의 목에는 단단한 동아줄이 감기리라에서 언급된 「마싸드」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며, 또한 「아부라합」 또는 「탑바트」 장이라고도 불리운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16).

제 111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 1. 아부라합의 손이 멸망하고 파멸 할 것이며<sup>1)</sup>
- 2. 그의 재물과 그가 얻은 것이<sup>1)</sup> 그에게 유익하지 못하니
- 3. 그는 곧 타오르는 불지옥에 이르게 될 것이라
- 4. 그의 아내는<sup>1)</sup> 연료를 운반할 것이요
- 5. 그녀의 목에는 단단히 꼬인 동아줄이 감기리라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تَبَّتْ يَدَا أَبِي لَهَبٍ وَتَبَّ ۝

مَا أَغْنَىٰ عَنْهُ مَالُهُ وَمَا كَسَبَ ۝

سَمِصْلًا نَارًا ذَاتَ لَهَبٍ ۝

وَأَمْرَأَةً حَمَّالَةَ الْحَطَبِ ۝

فِي جِيدِهَا حَبْلٌ مِّن مَّسَدٍ ۝

- 1-1) 아부라합 : 화염의 아버지란 뜻을 가진 선지자 무함마드 삼촌의 별명이며 그의 본명은 압둘 옷자 이븐 압둘 무탈립이었다. 그는 너무나 성격이 급하고 신경질적인 기질로 초기이슬람적 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자였다.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꾸라이쉬 부족과 그의 가족 그리고 친척들을 모아 포교를 하며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경고했을 때 화염의 아버지 아부라합은 화를 내며 선지자를 저주하고 선지자가 멸망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아부라합의 선지자에 대한 저주는 아무런 효용이 없었으며 그의 힘 그리고 재산도 무익하였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슬람은 매일 더욱 번성하여 갔을 뿐이다. 아부라합은 바드르 전투 이후 바로 일주일만에 사망하였는데 그의 분노와 불길같은 그의 기질을 참지 못하여 죽었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본 절에 계시된 동기도 아부라합이 무함마드를 저주하여 멸망하기를 원했을 때 계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루흐 말마아니 260/30).
- 2-1) 이브누 압바스는 아부라합의 자손들이라 풀이하고 있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려 하였을 때 아부라합은 말하길 "나의 조카(무함마드)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나의 자손으로 그 벌을 면제 받으리라"고 말하자 본 절이 계시되었다(무크타싸르 이브누 까씨르 690/3). 아부라합에게는 3명의 아들 우뜨바 무오마브, 우테이바가 있었는데 두 아들은 메카 정복의 날 이슬람에 귀의한 후 후네이나와 다이프 전투에 참가하였고 우테이바는 이슬람에 귀의하지 아니했다고 알울루씨는 풀이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18).
- 4-1) 아부라합의 아내는 아비 수피안의 여동생 움무자일로 그의 남편과 더불어 선지자 무함마드를 박해하였다. 무함마드가 가는 길마다 가시덤불을 갖다 놓아 상처를 입히곤 하였으며 사람들 사이에 모사와 증상모략을 꾸민 대표적 여성이라고 알울루씨는 말하고 있다(알울루씨 263/30). 또 어느날 본 장의 말씀이 그녀의 남편 아부라합에게 전해졌을 때 그녀는 들을 주어 카오바 신전에 아부 바크르와 함께 앉아있던 선지자 무함마드에게로 와 돌로써 선지자를 때리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선지자를 볼 수 있는 시력을 빼앗아 버렸다고 전하여 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17).

111.쑤-라틀 마싸드 ( Suratul Masad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âhi arRahman arRahim

01. 탐바트 야다 아비 라하빈 와 탐바  
Tabbat Yada 'Abi Lahabin Wa Tabba
  02. 마 아그나 안후 말-루후 와마 카싸바  
Ma 'Aghna 'Anhu Maluhu WaMa Kasaba
  03. 싸야슬라 나-란 다-타 라하빈  
SaYaşla Nāran Zāta Lahabin
  04. 와 이므라아투후 함말-라탈 하뜨비  
Wa Imra'tuhu Ḥammālatal Ḥaṭabi
  05. 피 지-디하 하블룬 민 마싸딘  
Fi Jīdiha Ḥablun Min Masadin
-





## 제112장 이클라쓰

메카에서 계시된 4절로 하나님의 속성, 특히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신은 오로지 하나님 한분 밖에 없으며,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유대인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자손이 있다는 것과 기독교인의 삼위일체설 그리고 일부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에게 딸이 있다는 이 모든 욕된 불신을 배제하고 있다. 특히 본 장은 하나님의 유일신론을 총괄하고 있어 짧은 장이면서도 꾸란 전 내용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리만큼 가장 많은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장이라 풀이되고 있다.

제 112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یْمِ

1. 일러가로되 하나님은 단 한분  
이시고<sup>1)</sup>

قُلْ هُوَ اللّٰهُ اَحَدٌ ۝۱

2. 하나님은 영원하시며<sup>1)</sup>

اللّٰهُ الصَّمَدُ ۝۲

3. 성자와 성부도 두지 않으셨으  
며<sup>1)</sup>

لَمْ يَلِدْ ؕ وَلَمْ يُولَدْ ۝۳

4. 그분과 대등한 것 세상에 없  
노라<sup>1)</sup>

وَلَمْ يَكُنْ لَهٗ كُفُوًا اَحَدٌ ۝۴

1-1) 일부 불신자들이 선지자에게 와서 말하길, “무함마드여! 그대 주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오. 그대 주님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은, 아니면 자바르자다(귀 감리석), 아니면 루비로 되어 있습니까?” 말했을 때, “일러 가로되...”라고 계시되었다고 풀이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17). 불신자들이 믿는 우상도 아니며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삼위일체(성부=성자=성신)의 신도 아닌 오직 한분밖에 없는 하나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2-1)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이 귀착하는 곳은 곧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뿐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3-1) 유대인들은 아지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며 불신자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딸들이라 묘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정으로써 본절이 계시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20).

4-1) 이클라쓰장을 읽는 자는 꾸란 전체의 1/3을 읽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디쓰는 전하고 있다. 꾸란의 내용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면 유일신 사상과 규범 및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이클라쓰장은 유일신 사상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맘 아흐말 및 이싸이가 전함). 그래서 이 장을 읽을 때의 보상도 꾸란 전체의 1/3을 읽었을 때의 보상과 다름이 없다고 전하여 지고 있다(사프와트 타파씨르, 제20권 p.121).

112.쑤-라툼 이클라-쓰 ( Sūratul 'Ikh̄lās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āhi arRahmān arRahīm

01. 꿀 후왈라후 아하둔  
Qul HuwalLāhu 'Aḥadun

02. 알라후 사마드  
Allāhu Ṣamad

03. 램 알리드 왈람 율-라드  
La Yalid WaLam Yūlad

04. 왈람 야쿰 라후 쿠프완 아하둔  
WaLam Yakun Lahu Kufuwan 'Aḥadun

---







## 제113장 팔라끄

메카에서 계시된 5절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초기에 계시된 장으로 미신타파와 자연현상으로 부터 오는 두려움과 공포, 사악한 음모와 모사, 시기와 질투에서오는 모든 종류의 재앙으로 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일러가로되, 나는 동녘의 주님께 보호를 구하며 에서 언급된 「팔라끄」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제 113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일러가로되 동녘의 주님께 보  
호를 구하며<sup>1)</sup>

2. 창조된 사악한 것들의 재앙으  
로부터 보호를 구하며<sup>1)</sup>

3. 어둠이 짙어지는 밤의 재앙으  
로부터 보호를 구하며

4. 매듭으로 마술을 부리는 자들  
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며<sup>1)</sup>

5. 시기하는 자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노라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قُلْ أَعُوذُ بِرَبِّ الْفَاتِحِ ۝

مِنْ شَرِّ مَا خَلَقَ ۝

وَمِنْ شَرِّ غَاسِقٍ إِذَا وَقَبَ ۝

وَمِنْ شَرِّ النَّفَّاثَاتِ فِي الْعُقَدِ ۝

وَمِنْ شَرِّ حَاسِدٍ إِذَا حَسَدَ ۝

1-1) 팔라끄 : 아침, 새벽, 여명기 즉 밤의 어둠을 깨고 하루가 시작하는 시각

2-1) 인간을 시험하기 위하여 창조된 사악한 모든 것

4-1) 실로 매듭을 만들어 그 안에 바람을 불어 마술을 부리는 행위로 이 요술로써 믿음을 가진 자  
들을 괴롭혔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혼케 하기도 하였다.

113.쑤-라틀 팔라끄 ( Suratul Falaq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âhi arRahmān arRahīm

01. 꿀 아우-주 비 랍빌 팔라끄

Qul 'A'ūzu Bi Rabbil Falaqi

02. 민 샤흐리 마 칼라까

Min Sharri Mā Khalaqa

03. 와 민 샤흐리 가-씨긴 이다 와까바

Wa Min Sharri Gāsiqin 'Izā Waqaba

04. 와 민 샤흐린 나파-샤-티 필 우까드

Wa Min Sharrin Nafathati Fil 'Uqadi

05. 와 민 샤흐리 하-씨딘 이다 하싸다

Wa Min Sharr Hāsidiin 'Izā Hasada

---





## 제114장 나 쓰

메카에서 계시된 6절로 외적 현상에서 오는 유혹과 두려움 그리고 내적 요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유혹과 두려움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일러가로되, 나는 인류의 주님께 보호를 구하고 에서 언급된 「나쓰」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 제 114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일러가로되 인류의 주님께 보  
호를 구하고<sup>1)</sup>
2. 인류의 왕이며
3. 인류의 신에게<sup>1)</sup>
4. 인간의 흉중에 도사리는 사탄  
의 재앙을
5. 인간의 가슴속에서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6. 영마와 인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나이다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قُلْ أَتُحَدِّثُكَ النَّاسُ

مَلِكِ النَّاسِ

إِلَهُ النَّاسِ

مِنْ شَرِّ الْوَسْوَاسِ الْخَنَّاسِ

الَّذِي يُوَسْوِسُ فِي صُدُورِ النَّاسِ

مِنَ الْجِنَّةِ وَالنَّاسِ

1-1) 팔라끄장에서는 미신과 특히 자연과 외적 현상에서 오는 유혹과 두려움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 구하였으나 본 장은 주로 인간의 내적 요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유혹과 두려움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3-1)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음 3가지 견해에서 다루고 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주님이요 창조주로서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에게는 그의 노력에 의하여 모든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하였으며 외적 그리고 내적인 유혹과 두려움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하나님은 만물의 왕국을 지배하는 왕이요 통치자로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인도할 권능이 있어 인간을 선으로 인도하기 위해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셋째 인간의 최후 목적지는 하나님께로 귀의되며 인간이 현재에서 행하였던 선과 악의 모든 업적을 계산하여 그에 따라 보상과 응벌을 주신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유혹과 사악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114. 꾸-라툼 나-쓰 ( Sūratun Nās )

비쓰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BismillLâhi arRahmān arRahīm

01. 꿀 아우-주 비 랍빈 나-쓰

Qul 'A'ūzu Bi Rabbin Nāsi

02. 말리킨 나-쓰

Malikin Nāsi

03. 일라-힌 나-쓰

'ilāhin Nāsi

04. 민 샤르릴 와쓰와썰 칸나-쓰

Min Sharril Waswāsil Khanāsi

05. 알라지 유와쓰위쭈 피 쭈두-린 나-쓰

Alazi Yuwaswisu Fi Sudūrin Nās

06. 미날 진나티 완 나-쓰

Minal Jinnati Wan Nāsi





## ★ 최영길

### · 학력 및 전공

---

- 한국외국어대학교(아랍어 : 문학사)
- 사우디 왕립 이슬람대학교(이슬람학 : 수료)
- 한국외국어대학교(아랍어 : 문학석사)
- 수단 움두르만 국립 이슬람대학교( 이슬람학 : 문학박사)

### · 경력

---

- 사우디 젓다 이슬람문화원 교수
- 사우디 이맘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 왕립대학교 초청 객원교수
- (현)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이슬람 협의기구 한국측 집행위원
- (현) 성천문화재단<동서인문고전강좌> 교수
- (현) 명지대학교 아랍어문학과 교수

### · 논문

---

- 한정사를 수반한 아랍어 명사의 분류와 용법
- 한국교과서에 왜곡소개된 이슬람실태 연구
- 기독교교리와 이슬람교리의 비교연구
- 이슬람사상에서 본 아담의 원선설 연구
- 이슬람 신화사상 연구
- 이슬람의 결혼관
- 무함마드 승천에 관한 연구
- 꾸란에 나타난 이슬람인의 인사말 연구
- 꾸란 특성에 관한 연구
- al Islami in Korea
- al Da'wah al Islamiya in Korea
- Korean & Islaimic Common Traditions
- Prospect of Islam in Korea
- Status of Islam in Korea

### · 저서

---

- 생활아랍어 회화
- 하디스 40선
- 이슬람의 생활규범
- 이슬람 문화사
- 꾸란의 이해
- 꾸란해설
- 아랍문법해설
- 16억 이슬람인의 역사와 문화
- 이슬람문화의 이해
- Arabic Language I (공저)
- Arabic Language II (공저)
- Islamic Thoughts



